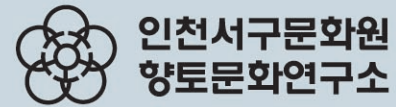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

1. 인천서구의 설화 「천마와 아기장수 외」
2. 인천서구의 문화
3.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편」
4. 서곶인물사
5. 알기 쉬운 서구사
6. 검단의 역사와 문화
7. 근세조선 서구인물지
8. 인천서구 그리고 사람들 I [화보집]
9. 붓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 [시문집]
10. 사진으로 만나는 좋은 동네, 서구 [화보집]
11. 인천서구 그리고 사람들 II [화보집]
12.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13. 알기쉬운 인천서구의 역사와 문화
14.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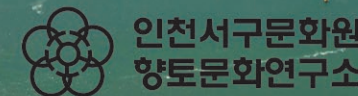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5

인천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5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5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발간사



현재 인천 지역에 현존하는 섬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 36개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 126개, 총 16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서구의 섬은 유인도인 세어도와 무인도인 호도, 매도, 대다물도, 소다물도, 정도, 지내섬, 꾀섬 등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의 섬은 앞의 8개의 섬들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본래 서구의 섬은 이보다 훨씬 많은 34개의 섬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오류동, 경서동, 원창동, 가좌동 등 서구의 해안선을 따라 여러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26개의 섬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들 사라진 섬들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덮고 있는 이 땅에 숨 쉬고 있습니다. 사라진 섬들은 서구 부근에 개발이 시작되었던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서서히 간척되어 사라졌습니다.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개발붐이 일었던 1960~1980년대에 많은 섬들이 간척되어 육지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알던 섬들은 하나하나 육지와 맞게 되어 사라져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진행되었던 간척사업은 사라진 섬들 위에 넓은 옥토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이들과 같은 매립지를 우리들은 수도권매립지, 동아매립지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들 간척지는 김단 오류농장 등 농토로 쓰이거나 목재단지나 주물단지, 가석공업단지 등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앞장섰던 공업단지로 쓰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울도와 일도가 있던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던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이 들어서 수도권의 전

력생산을 책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청라도(靑羅島)에는 현재 청라국제 도시가 들어서 그 옛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었던 섬들은 그 희망을 실현해나가는 공간으로 재창조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사라진 섬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섬들은 사라진 섬들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는 아직 사람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어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등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섬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이러한 섬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곁을 늘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섬들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섬들에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서구의 섬에 관심을 가지고 사라지고 남은 섬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애써주신 집필위원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이 서구의 기억 속에 남은 모든 섬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서구의 섬들을 활용하여 서구의 향토문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 군 섭

인천 서구의
사라진  남은 

Contents

발간사

지리지로 보는 서구의 섬 · 007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 019

사료로 보는 서구의 섬 · 033

사라진 서구의 섬 · 053

서구의 유인도 세어도 · 079

서구의 무인도 · 095

오랜 기억 속 서구의 섬 · 105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 125

지리지로 보는 서구의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1 지리지로 보는 서구의 섬

조선시대 기록 중 지역정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전해지는 것이 지리지(地理志)이다. 지리지는 전국지·지방지(읍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통치의 기초 자료로 제작되었다.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중종 25), 『여지도서(輿地圖書)』(1757년~1765년)와 조선후기 제작된 각 군현 별 읍지는 그 편찬 목적이 전국의 사회·경제적 정보와 군사적 정보의 수집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고산자 김정호의 『여도비지(輿圖備志)』는 지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리에 편찬 목적을 두고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들 지지류들은 기본적인 지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당시 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록 내용이 관찬읍지의 경우는 대부분이 관청에서의 거리와 넓이(둘레)만을 수록하고 있고, 사찬지지류는 섬에 관한 기록이 더욱 소략하다.

앞의 3책과 함께 지금의 서구에 속하는 지역의 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읍지는 1698년(숙종24) 경에 제작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 1842년 『경기지(京畿誌)』의 「김포군」, 1871년 『경기읍지(京畿邑誌)』의 「부평부」와 「김포군」, 1875년 『기전읍지(畿甸邑誌)』의 「부평부」, 1899년(광무 3)의 『부평부읍지』 등이다. 그러나 읍지류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편찬 체제를 따랐기에 섬에 대한 내용 또한 소략하나, 각 군현 읍지의 앞에 수록된 지도에서 읍지의 내용을 보충 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리적 정보만을 수록하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한계는 있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중종 25)에 이행(李荇)·홍언필(洪彦弼)이 1481년(성종 12)의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여 간행한 책으로, 지방 통치의 기초 자료로 간행한 지리지이다. 책머리에 해당 도의 지도를 싣고, 이어 군현 별 연혁·풍속·관부(官府)·학교·토산·산천·사사(寺社)·역원 등 군현별 정보를 실었다. 각 군현의 섬에 관한 기록은 산천에 수록되어 있다. 서구의 섬에 관한 기록은 부평부의 경우에는 많은 대부분의 섬이 기록되어 있으나 김포현의 경우에는 군의 북쪽 한강에 있는 조도(助島)만이 기록되어 있어 지금의 서구인 검단면 쪽의 섬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부평도호부 산천(山川)

- 물차도(勿次島) 부(府)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호도(虎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응도(鷹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청라도(靑羅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일도(一島) 부의 서쪽 8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에 있다. 둘레는 500보이다.
- 울도(栗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서천도(西遷島)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50보이다.

■ 김포현 산천

- 조도(助島) 현 북쪽 5리에 있다.

지리지로
보는
서구의 섬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산천

2) 부평부읍지

1698년 무렵에 작성된 부평부의 읍지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이 1698년 숙종 24년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명환(名宦)’의 마지막에 권대재(權大載: 1620~1689), ‘인물(人物)’에는 병자호란과 현종 때의 사람이 주로 수록되어 있어 그 편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읍지의 맨 앞에는 채색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부평부의 관아가 위치한 읍내를 중심으로 각 면의 위치·산·방축·고개·하천 등의 자연지리 정보를 알 수 있다. 지도의 서구의 섬에 관한 정보는 응도, 일도, 울도, 난지도, 청라도 등 10 곳의 섬의 위치가 그려져 있고, 읍지에는 ‘도서(島嶼)’ 항목을 두어 섬의 위치와 행정소재지에서의 거리는 리(里), 섬의 둘레(周)를 보(步)¹⁾의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1) 조선시대의 거리 단위로 1보는 주척 6척으로 약 124.8cm이고, 1리는 360보(步)로 약 449.50m이다.

내용 중 지금의 세어도가 읍지의 지도에서는 ‘세어도(細於島)’로 표기되어 있으나, 도서 항목에서는 ‘서천도(西遷島)’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이채롭다. 그러나 이를 볼 때 전체 항목이 일률적인 조사를 통해 기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전지도(全之島)는 부의 남쪽에 있는 전지방축 안에 있는 섬으로 보이며 지금의 서구의 섬에 속하지는 않는다. 크기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다.

■ 도서(島嶼)

- 물차도(勿次島) 부(府)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호도(虎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응도(鷹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청라도(靑羅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일도(一島) 부의 서쪽 8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에 있다. 둘레는 500보이다.
- 울도(栗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서천도(西遷島)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50보이다.
- 전지도(全之島)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3) 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펴낸 각 군현의 지리지를 합한 것으로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가 포함되어 있다. 간행된지 270여 년이 지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다시 수정 증보하기 위해 편찬되었으나, 김포현의 읍지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읍(缺邑)·누락되었다. 조세수취와 연관된 진공·전세·대동 등이 독립적인 조항으로 정해졌으며, 방리·제언·도로·전결(田結)·부세(賦稅)·군병 등의 항목이 더해져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

다. 지금의 서구 섬에 관련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산천’에 수록되어 있는데 물차도의 넓이를 300보로 달리 기록할 뿐 다른 내용은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다.

■ 부평도호부 산천

- 물차도(勿次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호도(虎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응도(鷹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청라도(靑羅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일도(一島) 부의 서쪽 8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에 있다. 둘레는 500보이다.
- 울도(栗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서천도(西遷島)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50보이다.
- 전지도(全之島) 부의 남쪽 3리에 있다.

4) 경기지(京畿誌) 「부평부」와 「김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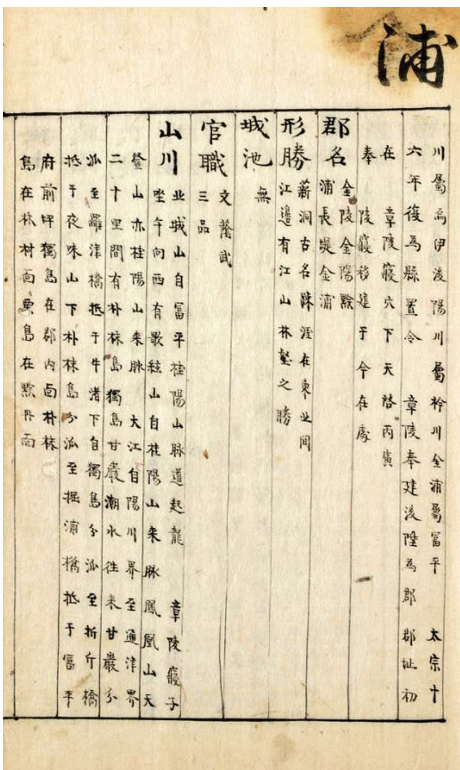
이 읍지는 영조 년간에 편찬된 『여지도서』를 바탕으로 현종대의 새로운 표준 서식을 도입하여 당대의 정보를 증보한 읍지로 19세기 전반 경기도의 여러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부평부 읍지는 앞에 채색지도를 배치하여 산·하천·도로·교량 등의 자연 지리 정보를 표시하였고, 청라도를 비롯한 12섬을 서해안에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읍지 안에는 섬에 관한 기록이 없다.

김포군은 읍지의 앞에 단색지도를 배치하였고, 별도의 섬 관련 항목을 두지 않고 ‘산천’에서 설명하고 있다. 지도에서는 서해안의 울도와 한강의 박말도·초평도·독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산천’에는 박말도·독도·울도만 기재되어 있다. 섬의 규모와 거리

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소재된 면(面)만 기록되어 있다. 지금의 서구인 검단면에 속한 섬은 울도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섬에 관한 기록은 소략하다.

■ 김포군 산천

- 독도(獨島) 군내면에 있다.
- 박말도(朴抹島) 임춘면에 있다.
- 울도(栗島) 검단면에 있다.



1842년 『경기지』 「김포군」 산천



1842년 『경기지』 「김포군」 지도

5) 경기읍지(京畿邑誌)의 「부평부」와 「김포군」

『경기읍지(京畿邑誌)』 또한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나 현종 대의 『경기지』의 편찬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읍지 구성이 ‘지도’와 ‘읍지’로 이루어진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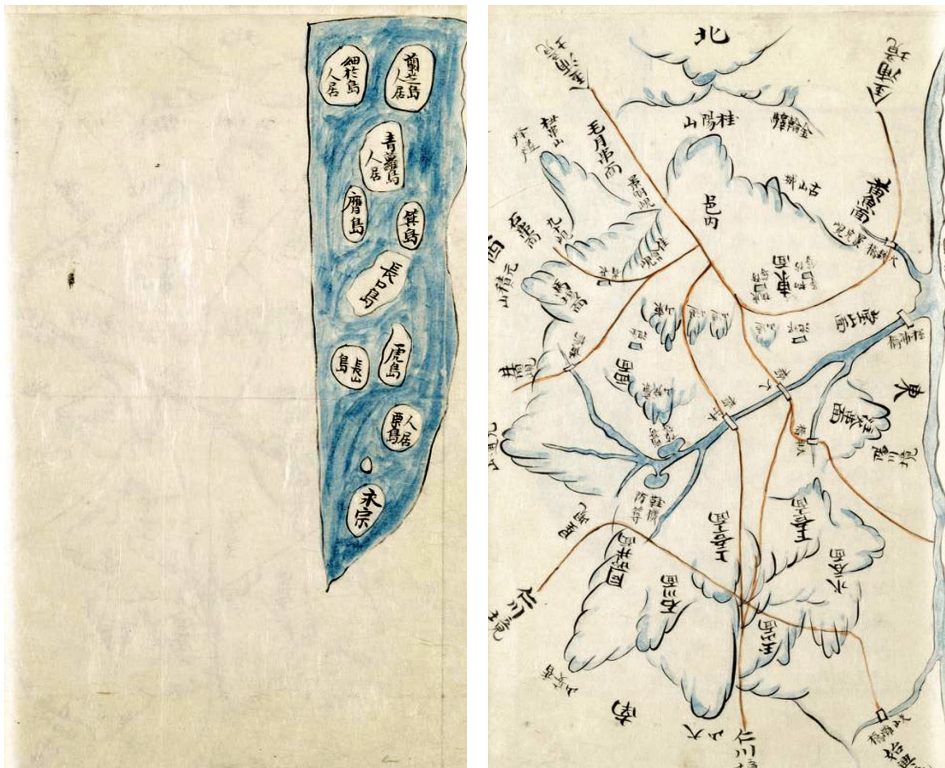
지리지로
보는
서구의 섬

반해, 사회경제적 정보를 더욱 자세히 기록한 ‘사례(事例)’가 추가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1) 부평부

부평부의 읍지 맨 앞에는 1장 2면의 채색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부평부의 관아가 위치한 읍내를 중심으로 각 면·산·방축·고개·하천 등의 자연지리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이전의 읍지 지도보다는 소략하다. 서구의 섬에 관한 정보는 2면에 그려져 있는데 난지도, 세어도, 청라도, 응도, 기도, 장구도, 호도, 장산도, 울도와 함께 지명이 기재되지 않은 섬 1곳과 영종도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중 난지도, 세어도, 청라도, 울도는 ‘인거(人居)’라 표기하여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읍지에는 ‘도서(島嶼)’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고 산천(山川)에 산·하천·저수지와 함께 섬의 위치와 군 행정소재지에서의 거리, 섬의 둘레(周)를 보(步)의 단위로 표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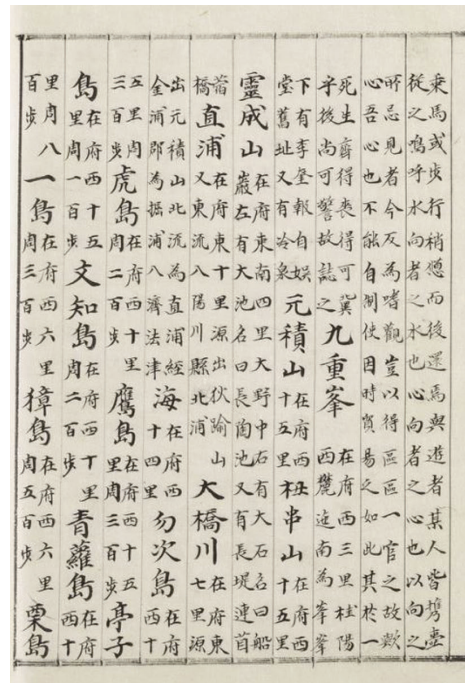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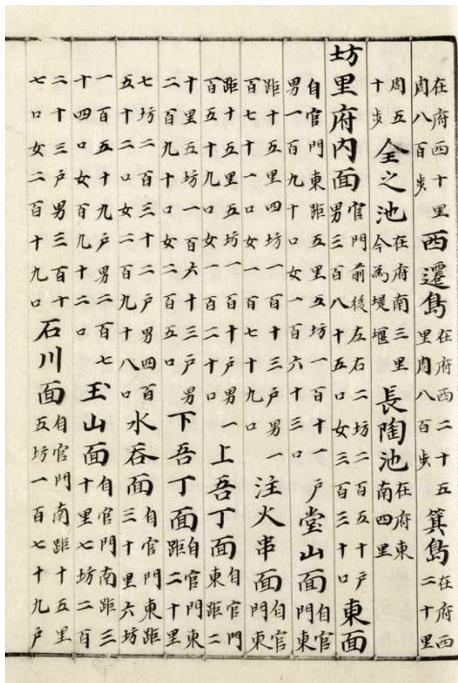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고 있다. 이 읍지 또한 지금의 세어도를 읍지의 지도에서는 ‘세어도(細於島)’로 표기하고 있으나, 산천 항목에서는 ‘서천도(西遷島)’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1698년 『부평부읍지』와 같다. 이를 볼 때 읍지를 제작할 때 이전의 기록을 전재하였던 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 추가된 ‘읍사례’ 항목에는 섬에 관한 기록은 없다.

■ 산천

- 물차도(勿次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호도(虎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응도(鷹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정자도(亭子島)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둘레는 100보이다.
- 문지도(文知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200보이다.
- 청라도(靑蘿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일도(一島) 부의 서쪽 6리에 있다. 둘레는 300보이다.
- 장도(獐島) 부의 서쪽 6리에 있다. 둘레는 500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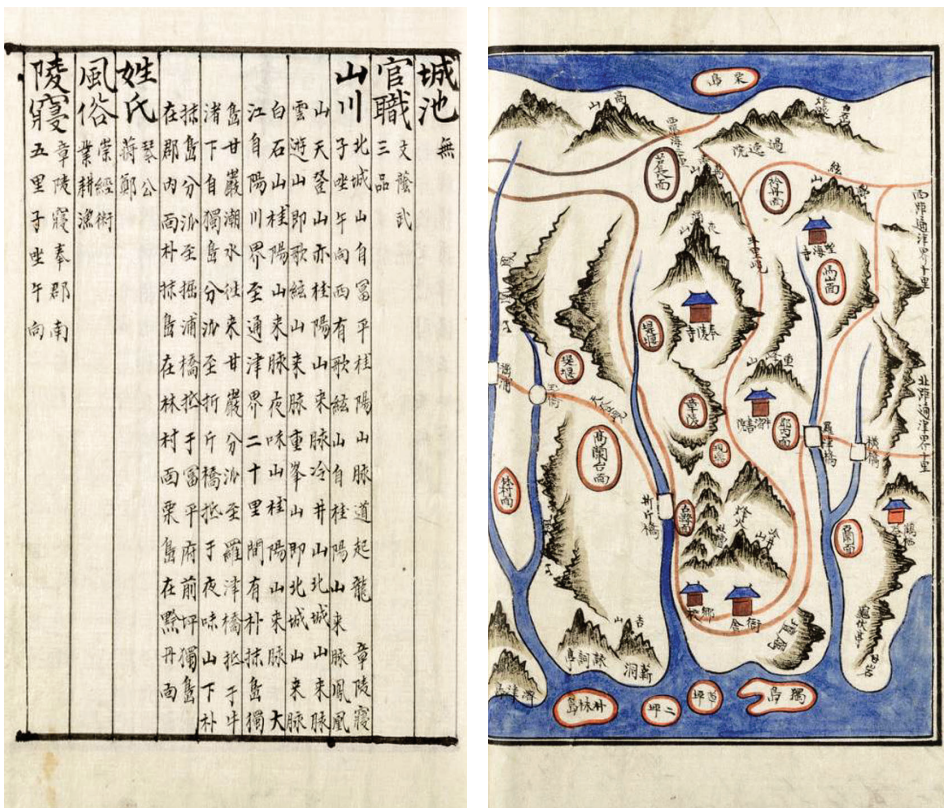
1871년 『경기읍지(京畿邑誌)』 「부평부」 산천

지리지로
보는
서구의 섬

- 울도(栗島)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서천도(西遷島) 부의 서쪽 25리에 있다. 둘레는 800보이다.
- 기도(箕島) 부의 서쪽 20리에 있다. 둘레는 50보이다.

(2) 김포군

김포군도 읍지 맨 앞에는 1장 1면의 채색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김포군의 관아가 위치한 읍내를 중심으로 각 면·산·방축·고개·하천 등의 자연지리 정보를 알 수 있다. 부평부 읍지의 지도보다는 수록 내용은 소략하나 채색과 산과 하천 등의 표현은 좀더 정밀하다. 이 읍지 또한 앞 시기의 읍지와 마찬가지로 섬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지도에는 군의 동쪽인 한강의 독도·초평도·이평도·박말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섬은 검단면 앞에 울도만이 표시되어 있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읍지에는 산천(山川)에서 한강 쪽의 섬은 강·조류와 섬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울도에 대해서는 검단면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도서(島嶼)’ 항목을 별도로 두어 김포군에 속하였던 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박말도·독도 두 섬의 명칭만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수록하고 있지 않다.

■ 산천

- 큰(한)강은 양천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통진의 경계에 이른다. 20리 사이에 박말도·독도·감암이 있다. 조수가 왕래한다. 감암에서 나누어진 갈래는 나진교에 이르고, 우저(牛渚) 아래에서 그친다. …… 독도는 군내면에 있다. 박말도는 임춘면에 있다. 울도는 검단면에 있다.

■ 도서

- 박말도와 독도가 있다.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2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서구 지역을 기록한 주요 전근대의 지도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지도 중에서도 전국 단위로 편찬된 주요 지도에는 대부분 현재의 서구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당시 서구 지역은 당시 독립된 행정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포(金浦), 부평(富平) 등 현재의 서구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역의 지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전근대의 지도에서 서구의 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김포, 부평의 지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1) 광여도(廣輿圖)

광여도는 19세기 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인 구성은 해동지도(海東地圖)와 유사하다. 광여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각 지방의 윤곽이 해동지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18세기에 제작되고 배포된 해동지도를 모사하여 만든 지도로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해동지도와는 달리 대부분 도로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지도와 주기를 지도안의 여백에 기입하지 않고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광여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구의 섬은 먼저 김포군(金浦郡) 지도에 묘사된 울도(栗島, 오류동)이다. 이러한 울도는 노장면(盧長面)과 금단면(衿丹面)에 인접한 서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여도(廣輿圖)』의 「김포군(金浦郡)」의 지도

또한 부평부(富平府) 지도에는 난지도(蘭芝島), 서일도(西日島), 청라도(靑羅島), 기도(箕島), 장도(獐島), 호도(虎島), 장고도(長古島), 성종도(成宗島), 응도(鷹島), 울도(栗島, 원창동)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모월곶면(毛月串面)과 마장면(馬場面), 석곶면(石串面)과 인접한 서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난지도, 청라도, 응도, 울도(원창동)에는 인거(人居)라 하여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임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청라도에는 절수(折受)라고 표기되었는데, 절수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궁방(宮房)에서 임진왜란으로 비롯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러한 절수의 대상



『광여도(廣輿圖)』의 「부평부(富平府)」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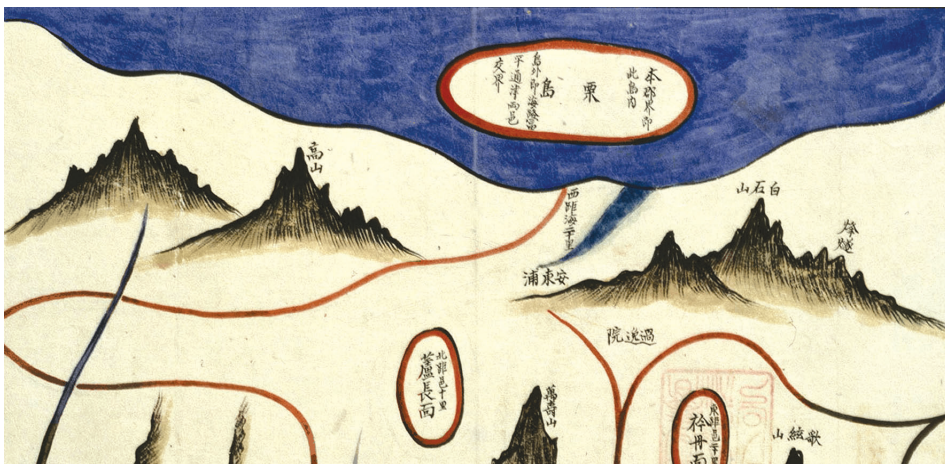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은 어(漁), 염(鹽), 시장(柴場), 선척(船隻)을 비롯하여 토지, 노전(蘆田), 해택(海澤)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어장과 염장은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수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2) 1872년 지방지도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왕조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의 양요(洋擾)를 겪은 후 서양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던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지도이다. 양요 이후 조선은 국방과 치안을 위해 관제 개정, 군제(軍制) 개편, 군사시설의 확충과 각종 무기에 대한 정비 및 실험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의 지리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1781년 전국적인 읍지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다음해인 1872년에 지도제작을 추진하여 제작된 지도가 1872년 지방지도이다. 이 지도는 총 459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군현(郡縣)뿐만 아니라 영(營), 진보(鎭堡), 목장(牧場), 산성(山城) 등이 기재되어 있는 특수지도이다. 특히 이전에 제작된 다른 지도들보다 큰 규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량이 현재 남아 있는 고지도들 중에 가장 풍부하다.

1872년 지방지도의 ‘김포군(金浦郡)’ 지도에서도 울도(栗島, 오류동)가 묘사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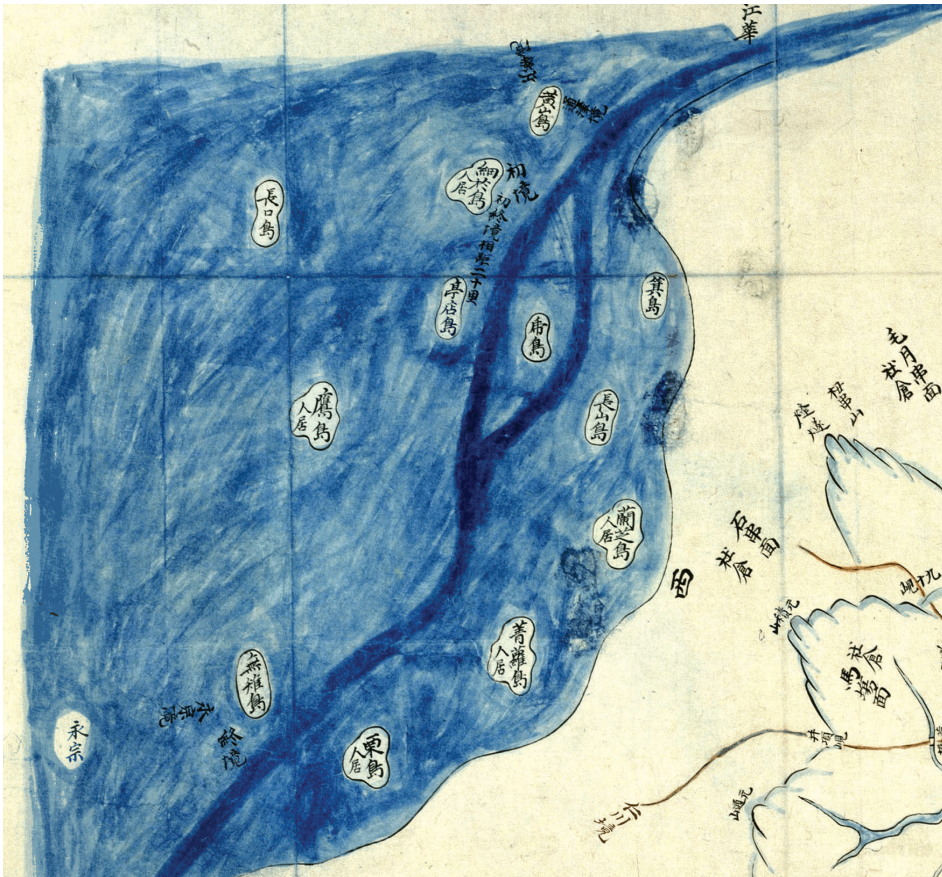


『1872년 지방지도』의 「김포군(金浦郡)」의 지도

다. 그리고 노장면(盧長面)의 울도 앞까지 들어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울도에는 ‘본 군(김포군)의 경계는 이 섬 안 까지이며, 섬 밖의 해로는 부평과 통진, 두 고을과 함께 경계를 이루고 있다(本郡界即此島內 島外即海路富平通津兩邑交界).’ 라고 기록하였다.

부평부(富平府) 지도에는 황산도(黃山島), 세어도(細於島), 장구도(長口島), 기도(箕島), 정점도(亭店島), 호도(虎島), 응도(鷹島), 장산도(長山島), 난지도(蘭芝島), 청라도(菁蘿島), 울도(栗島, 원창동)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에 인접한 서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어도, 응도, 난지도, 청라도, 울도(원창동)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을 기입하고 있다.



『1872년 지방지도』의 「부평부(富平府)」의 지도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3) 지승(地乘)



『지승(地乘)』의 「김포군(金浦郡)」의 지도

지승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로, 회화식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고지도이다.

지승의 김포군(金浦郡) 지도에는 서해에 울도(栗島, 오류동)가 그려져 있으며, 호장면(芦長面)과 금단면(衿丹面)이 인접하고 있다. 또한 울도가 보이는 해안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두리현(斗里峴)을 거쳐 우저서원(牛渚書院)까지 연결된다.

부평부(富平府) 지도에는 난지도(蘭芝島), 서일도(西日島), 청라도(靑蘿島), 기도(箕島), 장도(獐島), 호도(虎島), 장고도(長古島), 성종도(成宗島), 응도(鷹島), 울도(栗島, 원창동) 등이 확인되며, 난지도, 청라도, 응도, 울도(원창동)에는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청라도에는 절수로 기입되어 있다.



『지승(地乘)』의 「부평부(富平府)」의 지도

4)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팔도군현지도는 경기도 38개 고을, 충청도 54개 고을, 평안도 42개 고을을 3책으로 엮은 지도이다. 작자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동일한 채색과 필법으로 보아, 관에서 동일인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녹색, 물은 청색, 읍거(邑居), 즉 읍치는 큰 붉은 색 원, 역(驛)은 작은 붉은 색 원, 변방의 진(鎭)은 청색, 창사(倉社)는 창사 모양의 그림으로 하고 도로는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성(城)과 봉수(烽燧)도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정조대에 널리 보급된 지리좌표지도 또는 방격지도(方格地圖)의 한 예이고,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방위와 거리가 정확한 군현도를 전국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역행정단위인 16개의 성(省)이 그려져 있다.

지도책의 제작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조선전도인 아국총도와 도별 지도에 1787년(정조 1)에 신설된 함경도의 장진도호부가 표시되어 있고, 1789년(정조 12)에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긴 현릉원이 수원에 표시되어 있어 그 이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1795년 이후에 변화된 시흥(始興), 노성(魯城), 이원(利原)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 김포군(金浦郡)의 지도에서는 울도(栗島, 오류동)가 묘사되어 있으며, 호장면(芦長面)과 접하고 있다.



『여지도(輿地圖)』의 「김포군(金浦郡)」의 지도

부평부(富平府)의 지도에도 난지도(蘭芝島), 서일도(西日島), 청라도(靑蘿島), 기도(箕島), 장도(獐島), 호도(虎島), 장고도(長古島), 성종도(成宗島), 응도(鷹島), 울도(栗島, 원창동)가 묘사되고 있다. 그 중 난지도, 청라도, 응도, 울도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청라도는 절수로 기록하고 있다.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여지도(輿地圖)』의 「부평부(富平府)」의 지도

6) 동여도(東輿圖)

동여도는 19세기 중엽 김정호(金正浩)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제작하기 위해 그 원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단위 채색 필사본 지도이다. 일부 학자들은 동여도가 대동여지도의 제작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동여도는 수록된 고을의 이름이 적혀 있는 1층과 지도가 그려져 있는 22층 등 총 23층의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지도를 연결하면 세로 약 7m, 가로 약 3.2m에 이르는 대형 전국지도가 만들어진다. 동여도의 가장 특징은 각 지방에 분포하는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들이 기입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대동여지도에 실린 것보다도

많은 수이다. 또한 연맥식(連脈式) 표현을 통해 전국의 산줄기들을 모두 연결하여 묘사하고 있어,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된 주요 산줄기가 전국의 산줄기로 이어져 있다. 지도에 담긴 내용은 산줄기와 하천 외에 육상로와 해로 등의 교통로, 진보와 봉수를 비롯한 군사 시설, 10리 단위의 방점을 통한 거리 정보, 기타 행정 구역 경계 등 당대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다.

동여도에 묘사된 섬은 장도(獐島), 파라도(巴羅島), 호도(虎島), 서천도(西遷島), 난지도(蘭芝島), 일도(一島), 울도(栗島, 원창동), 기도(箕島), 정자도(亭子島)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 중 파라도는 청라도(靑羅島)를 다르게 부른 이름으로 보인다.



『동여도(東輿圖)』의 지도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7)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1861년에 조선을 남북 22폭으로 나누어 만든 목판본 대축적 전국 지도집이다. 1864년에는 일부분을 수정하여 재판하였다. 각 폭은 가로 80리, 세로 120리 간격의 동일한 크기이며, 위와 아래를 모두 연결하면 동서 약 3m, 남북 약 7m의 초대형 전국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와는 달리 채색필사본이 아닌 목판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각 종 기호들을 보다 단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 산줄기 표현을 간략화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지도가 아닌 측량과 표현의 과학성을 가진 근대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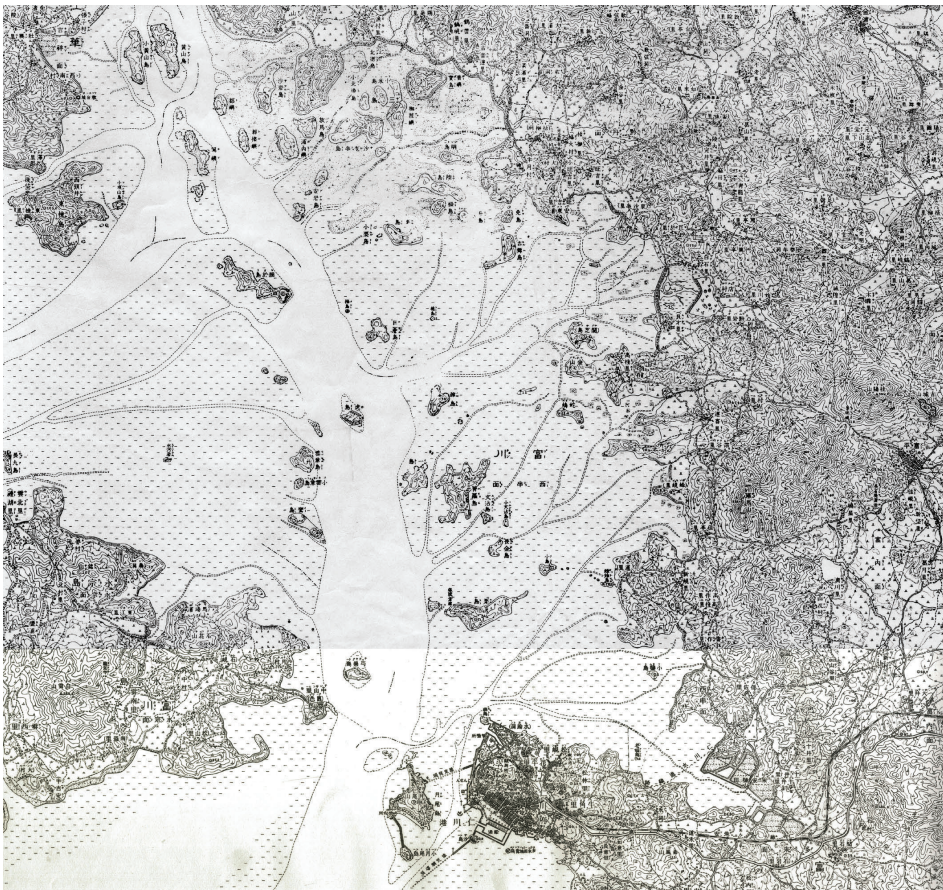
대동여지도에 나타나는 서구의 섬은 호도(虎島), 파라도(巴羅島), 장도(獐島), 난지도(蘭芝島), 기도(箕島), 정자도(亭子島) 등의 섬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외의 4개의 섬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동여지도』의 지도

8) 근세 오만분의 일 지형도

1910년대에 발행된 이 지도는 일본이 조선의 통치를 위해 제작된 것이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군 육지측량부대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조선 인부를 고용하여 측량하기 시작하였다. 합방 이전까지 약도 형태의 축척 5만분의1 신속측도(迅速測圖)가 제작되었고, 1910년 합방 이후 약도를 수정 보완하여 제2차 5만분의1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후 6년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삼각측량과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조선반도 전역의 5만분의1 지형도 722매를 완성하였다.



근세 오만분의 일 지형도 중 서구의 섬이 기록된 지도

지도로
보는
서구의 섬

서구의 섬이 기록된 지형도는 김포(金浦)지도와 인천(仁川)지도 일부에 기록되어 있다. 지형도를 살펴보면 지도 좌측에 부호(符號)와 도력(圖歷)이 기입되어 있다. 그 내용은 김포지도는 1919년(大正 8) 2월 25일에 인쇄 및 2월 28일에 발행되었고, 1916년(大正 5)에 측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인천지도는 1918년(大正 7) 12월 25일에 인쇄 및 12월 28일에 발행되었고, 1917년(大正 6)에 측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지형도의 저작권소유는 조선총독부, 인쇄발행처는 육지측량부로 기록하고 있다.

지도를 살펴보면 간척 전의 복잡한 해안선과 매립 전 연안의 섬들 모습이 잘 보인다. 특히 난지도, 청라도, 울도, 소염도, 장금도, 일도 등등 매립되기 이전의 섬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현재 매립지에서 섬의 위치를 찾는 데 이 지도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사료로 보는 서구의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3 사료로 보는 서구의 섬

1) 조선왕조실록

之辭也○劉敞曰佛氏禍福之說虛誕不足信也 上曰然講畢
賜講官官醢○立不與同訟者不給奴婢之法司憲府啓相訟
奴婢不與同訟者不給奴婢已有成法雖辛丑年前事亦依此
例 允之○癸丑雨雹于南原甲寅雨雹于完山大如彈丸傷牟
麥桑麻○兩炭于端州東北面察理使報端州東北間非烟非
霧渾天黑暗有炭落地封數枚以上○乙卯遣判三司事禹仁
烈如京師謝恩也○幸新都駕次廣灘 上問於左右曰此行
無乃有枚鷹犬者乎左右皆以無對 上曰可喜可喜有犯令
者而憲司請罪不可不從罪之亦所不忍 上在幕次與金科
讀大學衍義二卷○丙辰 上至新都至晝停幄次曰四方皆
牟麥之田停駕必有踏損之弊遂過行入新都齋于議政府○
戊午 上服冠袍乘輦率百官詣 宗廟齋宮○富平府栗島
石自移六百七十尺○是月旱○對馬島沙彌靈鑑使人獻禮
物穀還被擄人口○夏四月己未朔躬禋 太室是日親祭于
仁昭殿及貞陵○壬戌 上還宮留司羣臣設山棚結綵籬禮

① 율도 · 세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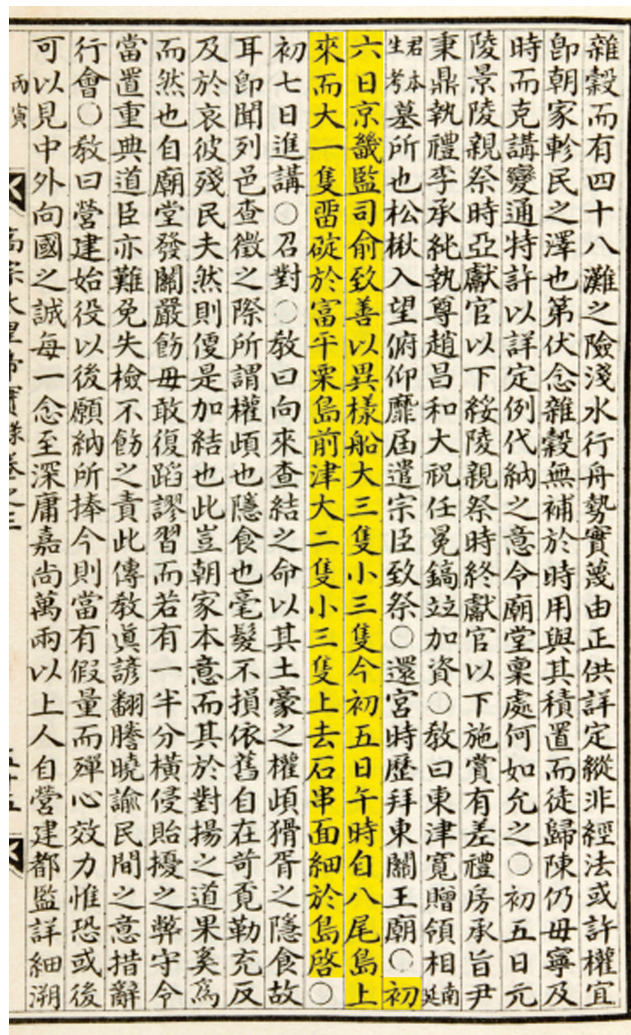
『태종실록』 권1, 1년
윤3월 29일
부평부 율도의 돌이 저
절로 6백 70척이나 옮겨
지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고종실록』 권3, 3년 9월 6일

크고 작은 이양선 6척이 팔미도로부터 올라오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俞致善)이, ‘이양선(異樣船) 큰 배 3척과 작은 배 3척이 이번 5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尾島)로부터 올라왔는데, 큰 배 1척은 부평(富平) 울도(栗島) 앞 나룻가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며, 큰 배 2척과 작은 배 3척은 석곶면(石串面) 세어도(細於島)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사료로
보는
서구의 섬

『고종실록』 권3, 3년 10월 9일

부평 부사 조병로가 연통선 1척이 팔미도 쪽으로 내려갔다고 보고하다.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 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의 급보를 보니, 「덕포 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鉉)의 보고에 의하면 부평 일대에 정박하였던 큰 이양선(異樣船) 5척 가운데서 3척이 오늘 동틀 무렵에 세어도(細於島) 밖을 향해 갔는데 본진에서 감시하였으나 산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접수한 부평 부사(富平府使) 조병로(趙秉老)의 공문에서는 연통선(烟筒船) 1척이 8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尾島) 쪽으로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應所報有廟啓也○營建都監以勤政殿上樑文製述官趙斗淳思政殿上樑
文製述官金炳學慶會樓上樑文製述官柳厚祚勤政門上樑文製述官金炳
冀弘禮門上樑文製述官金炳國啓差○巡撫營以卽見先鋒中軍李容熙馳
報則到付德浦僉使李斗鉉所報富平境碇雷具大船五隻中三隻今日開東
向于細於島外自本鎮瞭望則阻山不見同時到付富平府使趙秉老牒呈以
爲烟筒船一隻初八日午時下去于八尾島云啓○初十日進講○以李經在
爲司憲府大司憲張仁遠爲司諫院大司諫○巡撫營以前虞侯申孝哲遊擊
將差下領率關西砲手二百名下去永宗鎮啓○議政府啓卽見巡撫營草記
啓下雲山出身安樂豐乃壬申軍功人故僉使如坤之子而賣家辦錢以助本
邑砲手糧資褒獎之典請令廟堂稟處矣爲公忘私實有乃父之風安樂豐特
爲加資五衛將加設單付其父故僉使如坤加一階贈職以示朝家優獎之意
何如允之○十一日議政府啓灣府管稅廳之設始也獨於柵貨而稅北貨之
初不舉論者雖未知何故而法意攸在宜無異同自今曆門爲始北貨自灣府
逐條磨鍊別具成冊修報本府收稅一依柵貨例令稅廳照驗俾無隱漏之弊
而每門比包成冊亦爲報本府定式施行何如允之○十二日以林永洙爲漢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② 난지도

『순조실록』 권30, 29년 10월 8일

경기 감사 김렴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2만여 냥을 털 사건을 보고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렴(金簾)의 장달(狀達)에 이르기를……

…… 9월 28일 경강(京江)¹⁾의 상민(商民) 김종형(金宗亨) 등과 난지도(蘭芝島)의 거민(居民) 김득성(金得成) 등의 정장(呈狀)에 이르기를, ‘지난 8월 21일 무미전(買米錢) 1만 7천 3백 냥을 난지도(蘭芝島)의 차여진(車汝辰) 선척(船隻)에 싣고 사격(沙格)²⁾ 14명이 떠났습니다. 한 달이 넘어도 끝내 도착하지 않는 까닭에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 널리 탐문하니, 파괴된 선척(船隻)이 강녕포(康寧浦) 바닷가에 얹어져 있고, 결박 당한 시체 10여 구가 조수를 따라 출몰하였는데, 1구는 통진(通津)으로부터 나온 관리가 건져내어 검험(檢驗)하였고, 1구는 본리(本里)에 거주하는 백성이 자발적으로 묻어 두었으며, 또 3구의 시체가 강화(江華) 장곶포(長串浦)에 표류해 왔는데 모두 침녕쿨로 결박하여 눈을 제거하고 잇빨을 빼버렸고, 입은 찢어지고 얼굴은 깨뜨려진 상태였으며, 선체(船體)는 강녕포에 사는 임만석(林萬石) 등 여덟 놈이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또 심영(沈營)의 이문(移文)을 받아보니, 9월 21일 썰물[汐水]에 익사(溺死)한 3구의 시체가 장곶보(長串堡)에 표류해 왔는데, 혹은 침녕쿨로 결박하고 혹은 삼[麻]으로 끈 새끼로 두 손을 묶었으며, 1구의 시체는 호패(號牌)가 있었는데, 한산(韓山)에 사는 양귀룡(梁龜龍)으로 나이가 59세였으므로 묻어두고 입표(立標)하였다고 합니다.

1) 경강(京江) : 독섬에서 양화도에 이르는 한강 일대.
2) 사격(沙格) : 사공과 그 결꾼.

戊辰○已巳京畿監司金鑣狀達以為通津府使具載默所報九月十九日潮水有一渰死男人漂到康寧浦口而以葛繩被縛兩臂有縛痕右眼拔去被人結縛投水的實故姑為埋置立標云聞極驚駭另飭本官訶察發關各邑推去屍體矣九月二十八日京江商民金宗亨等蘭芝島居民金得成等呈狀以為去八月二十一日買米錢一萬七千三百兩裝載於蘭芝島車汝辰船隻沙格十四名離發矣月餘終不到泊故驚怪廣探則破傷船隻覆在康寧浦邊結縛已丑

純宗大王實錄卷之三十一

四十九

屍體十餘名隨潮出沒而一則自通津官拯出檢驗一則本里居民自下埋置又有三屍漂到於江華長串浦皆以葛繩結縛去眼拉齒填口破面船體則康寧浦居林萬石等八漢奪取云又接沁營移文九月二十一日汝水渰死三人漂到於長串堡而或以葛繩結縛或以麻索結其兩手一屍則有號牌韓山居梁龜龍年五十九故埋置立標云發關各鎮營及沿海各邑使之讖捕別遣臣營校卒多岐探察則去八月二十八日午潮水無主船隻掛在草嶼則康寧浦居林萬石等八漢往見空船船中所餘錢各自分取所聞狼藉故林萬石等使本官嚴問取招則或五百兩或二三百兩分取合計為一千八百兩戕殺十餘人命剽奪數萬錢財決非尋常水賊廣加讖訶期於捉得而林萬石等當日事變雖云不見初不告官潛取他物情狀痛駭賊漢就捕間姑為嚴囚為先馳達

『순조실록』 권30, 29년 10월 8일

『순조실록』 권30, 29년 11월 9일

포도청에서 수적 김수온 등의 취조 내용을 보고하다.

포청에서 아뢰기를,

“죄인(罪人) 김수온(金守溫)의 공초(供招)에 의하면, 금년 8월에 완력이 있고 담차며 꺾이 많은 자들인 박완식(朴完植) 형제와 장운흥(張雲興)·원명숙(元明肅)·김금철(金今哲)·장여남(張汝男)과 그의 5촌숙(寸叔)인 장중진(張重振), 그리고 안광식(安光植)·임득철(林得喆)·이명상(李命祥)·장천운(張千云) 등을 모집하고는, 우피(牛皮)를 배에 싣는다고 거짓 핑계를 대어 난지도(蘭芝島)의 선인(船人) 차여진(車汝眞)으로 하여금 보령곶(保寧串)에 〈배를〉 정박(碇泊)시키게 한 다음, 먼저 김이온(金履溫)·김명철(金命喆) 두 사람을 보내고, 이어서 여러 놈들과 함께 만봉(萬峰)에서 천제(天祭)를 지내고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그 자들의 배를 타고 박의서(朴義瑞)·최멸치(崔蔑致)·이재옥(李再玉)을 사격(沙格)157) 으로 삼아, 보령곶(保寧串) 차여진(車汝眞)의 선척(船隻)이 있는 곳에 다달았는데, 낮 모르는 사람으로 장여남(張汝男)은 철릭(天翼)158) 을 착용시켜서 종사관(從事官)이라 칭하게 하고, 박완식(朴完植)은 전복(戰服)을 입혀 포교(捕校)라 칭하게 하였으며, 이명상(李命祥)·장운흥(張雲興)·임득철(林得喆)·박창인(朴昌仁) 등은 포졸(捕卒)로 칭하게 하여, 안광식(安光植)을 붉은 실로 결박하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공갈하면서 말하기를, 「우피(牛皮)는 본래 금(禁)하는 물건인데, 너희들이 김수온(金守溫)과 같이 몰래 실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들이 이 죄인을 잡아가지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하여 내려왔다.」 하고는, 이어 김이온(金履溫)·김금철(金今哲)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자들이 김 수온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곧 바로 결박하여 그 자들의 배에 보내고는, 차가(車哥)의 뱃사람 14명을 차례차례 결박하여 작은 배에 옮겨 가둔 후, 1명씩 불러 올려서 돈 30, 40냥씩을 내라고 하며 포박(捕縛)하여 물에 던진 다음, 돈 1만 2천 냥을 그 자들의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廳以為究覈之地○捕廳啓罪人金守溫招以為渠以牛皮紅蓼往來燕京商
業不利幾至蕩敗故敢生不測之心今八月募得有替力膽略者朴完植兄弟
張雲興元明肅金今哲張汝男渠五寸叔重振安先植林得詰李命祥張千云
等詭稱牛皮載船使蘭芝島船人車汝真流泊於保寧串先送金履溫金命詰
兩人而仍與諸漢天祭于萬峰約以兄弟仍乘渠船使朴義瑞崔茂致李再王
定為沙格抵於保寧串車汝真船隻處以生面人張汝男着天翼稱以從事官
朴完植着戰服稱以捕校李命祥張雲興林得詰朴昌仁等稱以捕卒安先植
以紅絲結縛作為罪人吼喝曰牛皮本是禁物而汝等符同金守溫潛載以去
云故吾等捉此罪人搜驗次下來仍指金履溫金今哲曰此是守溫所送之人
即地結縛送于渠船車哥船人十四名次次結縛移囚小船一名式招上錢三
四十兩式抱縛投水後錢一萬二千兩移載於渠船張千云欲為逃走故又為
撲打投水錢則或買物貨或給家用而往松都買得緞紬造胡服十六件及旗
幟刀鞭槍劍等物藏置船中約曰吾等六七人着胡服持槍劍入往南大門內
衝火於米廩又衝火於六曹前假家後出往新門外換服乘船遠走則必有騷
屑而不可無智略勇力之人故張雲興林得詰分送關東湖南使之募聚云又
言渠於昨年因鄭興魯之周旋得差包蒙別將又以牛皮都賈事言及則興魯

『순조실록』 권30, 29년 11월 9일

『고종실록』 권12, 12년 8월 22일

일본 군함 운양호가 영종진 난지도에서 정박하다.

영종 첨사(永宗僉使) 이민덕(李敏德)이, ‘이양선(異樣船)이 난지도(蘭芝島)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가 항로를 측량할 때이다.】

批曰所陳諸條當畱念矣○十八日○十九日加望金炳始爲刑曹判書以金尚鉉爲工曹判書○二十日○二十一日給江陵府壓死人恤典○二十二日永宗僉使李敏德以異樣船蘭芝島畱碇啓號日本軍艦雲揚○二十三日御景武臺行九日製○議政府啓異舶之溯入內洋未知其意之何居而何國人之緣何事來泊不容不詳細問情解事譯官幾人令該院另爲擇定使之除下直下送何如允之又啓卽見京畿監司閔台鎬所報則通津府使今旣領軍把守於德浦孫石項而軍糧劃給果係時急某衙門米限三百石特許劃下爲辭矣異舶闖入內洋防守不容疎虞而邑無畱庫之餉軍有艱食之憂以外倉所在米中三百石卽爲劃送之意分付度支何如允之又啓異船之來泊畿沿已至屢日而外洋諸邑過去形止無一修啓之舉者豈有如許邊政乎瞭望之節若是疎忽誠非細虞極爲寒心以此意爲先關飭於三南兩西道帥臣處其委折詳查馳聞以爲從重勘處嗣後舉行嚴加操飭毋敢懈慢事一體知委何如允之○三軍府啓異樣船來泊於沁都至近之地未知其意之何如而沿海防守之節嚴加申飭使之隨機應變事分付京畿監司及江華畱守處何如允之○二十四日三軍府啓畿沿畱泊之異船姑未知何國何地之人而犯入內洋已

자료로
보는
서구의 섬

『고종실록』 권12, 12년 8월 22일

③ 호도

『고종실록』 권3, 3년 9월 7일

경기 감사와 통진 부사, 덕포 첨사가 팔미도에 정박한 이양선의 이동을 보고하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치선(俞致善)이, ‘영종 첨사(永宗僉使) 심영규(沈永奎)가 올린 등보(謄報)에 의하면, 「이달 5일 오시(午時) 경에 이양선(異樣船) 3개의 돛을 단 배 3척과 2개의 돛을 단 배 4척이 신의 수영(水營)의 경내에 있는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에서 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虎島) 사이에 가서 정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시와 방비를 계속 강화하도록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또 ‘통진 부사(通津府使) 이공렴(李公濂)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이양선 3척이 이달 6일 사시(巳時) 경에 응도(鷹島)에서 출발하여 위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은 이미 본부(本府)의 죽진(竹津) 앞바다를 지났고, 1척은 손돌목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감시하던 장수와 교리(校吏) 등이 올린 보고에 의하면, 「위로 올라간 3척 외에 자그마한 배 1척과 먼저 올라간 배와 같은 배 1척이 또 그 뒤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미 강화의 기포(圻浦)를 지나갔으며 큰 배 1척은 응도 앞바다에 정박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덕포 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賢)이 올린 첩정(牒呈)의 내용에서는, 「이달 6일 사시경에 이양선 4척이 갑자기 물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2척의 배는 경강(京江)의 세미운반선보다 거의 배나 컸습니다. 1척의 배에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종선(從船)이 8척 이었고, 1척의 배에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종선이 7척이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경강선(京江船)의 종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올라탄 사람들은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척의 배는 경강의 조선(漕船)보다 약간 컸는데 두 척이 모두 일시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 본 진(鎭)의 앞바다를 지나갔으며 이어 갑곶 앞바다를 향해 나갔습니다. 큰 배 4척과 자그마한 종선 15척은 오늘 사시에 올라갔으며 부평(富平) 일대에 가서 정박하고 있는 3척의 배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考以入○議政府啓因京畿監司俞致善所奏以本營每年都試勅設火砲科使海邑武士赴試事有旨令廟堂稟處矣海民之疎於砲矢非其本業而然也今若設科勸獎則不出幾年可得其效依所奏施行俾爲激賞何如允之○京畿監司俞致善以卽接永宗僉使沈永奎謄報則今月初五日午時量異樣船三帆竹三隻兩帆竹四隻自臣營境八尾島外洋雷泊於富平境勿雉虎島之間瞭望防守之節連加嚴飭啓又以卽接通津府使李公濂所報則異樣船三隻今月初六日巳時量自鷹島發船上流二隻已過於本府竹津前洋一隻則上來于孫石項而卽接本府瞭望將吏等所告則上去三隻外小小船一隻及與先去同體船一隻亦爲尾後上來已過江華圻浦大船一隻碇泊於鷹島前洋又接德浦僉使李斗賢牒呈內今月初六日巳時量異樣船四隻忽地逆水上來而二隻船樣幾近京江稅船之甲倍一隻則隨後小小從船爲八隻一隻則隨後小小從船爲七隻如京江船從船之類而其船上所載人物不知爲幾百名二隻船則較京江稅船稍大竝卽一時逆水過去本鎮前洋仍向甲串前洋體大者四隻及小小從船十五隻今日巳時上去而富平境碇雷三隻姑無動止啓○永宗僉使沈永奎以今月初五日未時量異樣船七隻富平境雷碇而

『고종실록』 권8, 8년 4월 10일

이양선이 인천과 안산 경계에서 수심을 재고 있다는 보고를 받다.

경기 감사(京畿監司) 박영보(朴永輔)가, ‘방금 인천 부사(仁川府使)의 첩보(牒報)를

設置啓○京畿監司朴永輔以卽接仁川府使牒報今日辰時彼船下去八尾
島前洋畱碇四隻小艇一齊浮到仁川府海界故府使登岸瞭望則本府安山
兩界測水深淺獐風海濤無難往來極爲叵測云啓又以仁川府使牒報彼船
五隻今日酉時仍爲畱碇於富平界虎島前洋船樣段二帆船二隻三帆船三
隻而三帆最大船隻卽灣人目擊內作四層每十五間高四丈餘下來灣通事
三人與本邑吏金振聲眼同問情後所答辭緣及受來物名竝以修成冊上使
而物件段問情官直爲貴納于雲峴宮所報成冊別紙謄出緊封上送啓成冊
緣我仁川差覆呈貴官提督長均啓頃茲問奉欽憲西內稱欲函詢此船係因駛入境送我根由中辭
有人前來與貴朝廷有要事商辦茲奉欽憲令覆稱欲函詢此船係因駛入境送我根由中辭
有特前派大憲前朝廷有要事商辦茲奉欽憲令覆稱欲函詢此船係因駛入境送我根由中辭
海居民勿得驚恐彼此以前禮相待決無害意免生事端此大憲物名上送啓成冊
面則各給蠟燭二枚通寶金當百錢掛一鏡一葉○十一日御勤政殿行庭試文武科放
榜○敎曰此家科聲甚稀貴新及第李弼鎔賜樂弘文館校理除授○吏曹啓
降邑號卽是本曹舉行而問于義禁府則謀反不道罪人汝江居生於忠清道
公州地云公州判官降爲縣監何如允之○十二日議政府啓卽見三軍府草
記啓下者因北兵使金箕錫狀啓本營及行營各設銃手一百名而其所激勸
之方每年各取優等一人直赴殿試事令政府稟處事允下矣重邊固圉之政
固莫如此而況他道已許之事乎竝依狀請施行何如允之○永宗防禦使以

辛未

高宗大皇帝實錄卷之八

三

三

보니, 「오늘 진시(辰時)에 그들의 배가 팔미도(八尾島) 앞바다에 내려가 닻을 내리고는 작은 배 4척이 일제히 인천부 경계의 바다로 떠오므로 부사가 언덕에 올라가 살펴보니 인천과 안산(安山) 경계에서 수심을 재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사나운 바람과 파도에도 거침없이 오가는 것을 보아 매우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또 ‘인천 부사의 첩보에, 「그들의 배 5척(隻)이 오늘 유시(酉時)에도 부평(富平) 경계의 호도(虎島) 앞바다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었는데 배의 모양은 이범선(二帆船)이 2척이고 삼범선(三帆船) 3척이며, 삼범선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 배에 대해서 의주(義州)사람들이 목격한 바 있는데, 내부는 4층으로 만들고 층마다 15칸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는 4장(丈)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였습니다……

『고종실록』 권8, 8년 4월 12일

이양선 5척이 호도 앞바다에 닻을 내린다.

영종 방어사(永宗防禦使)가, ‘오늘 미시(未時)쯤에 양선(洋船) 5척(隻)이 일제히 닻을 올리고 올라왔는데, 본영(本營) 경계를 지날 때에 자세히 살펴보니 맨 앞에 선 이범선(二帆船) 1척은 길이가 거의 40파(把)에 가까웠고 그 다음의 이범선은 전날 다니던 배였으며 세 번째의 삼범선은 길이가 50파에 가까울 듯하였으며, 물위로 드러난 좌우 삼판(杉板)의 높이는 4장(丈) 가량 되었습니다. 네 번째의 삼범선은 세 번째의 삼범선과 거의 같았으며, 다섯 번째의 삼범선은 길이와 물위에 드러난 높이가 네 번째 배보다 약간 길고 높았는데, 배 위에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서서 그 길이를 자세히 살필 수 없었습니다. 배의 돛 사이에는 층층으로 깃발과 북을 매달았는데 바람에 흔들거렸습니다.

맨 앞에 선 배는 부평부(富平府)의 끝 경계선인 호도(虎島) 앞바다에 정박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박하였으며 다섯 번째 배는 본영 경계의 끝 경계선인 물류도(勿溜島)와 부평부의 첫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 첫 배로부터 다섯 번째 배가 정박한 곳까지의 사이는 불과 2리쯤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가 닻을 내릴 때부터 한방의 대포소리가 났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榜○教曰此家科聲甚稀貴新及第李弼鎔賜樂弘文館校理除授○吏曹啓降邑號卽是本曹舉行而問于義禁府則謀反不道罪人汝江居生於忠清道公州地云公州判官降爲縣監何如允之○十二日議政府啓卽見三軍府草記啓下者因北兵使金箕錫狀啓本營及行營各設銃手一百名而其所激勸之方每年各取優等一人直赴殿試事令政府稟處事允下矣重邊固圉之政固莫如此而況他道已許之事乎竝依狀請施行何如允之○永宗防禦使以

今日未時量洋船五隻一齊舉碇上來而過臣營界時詳察則初頭二帆船一隻把數幾近四十把其次二帆船前日往來之船第三三帆船把數似近於五十把而左右杉板出水之高假量爲四丈第四三帆船與第三三帆船大同小異第五三帆船把數與滌高稍勝於第四之帆船上列往來之人不可以詳察把數帆船間層層旗鼓橫懸飄風初頭碇畱於富平府終境虎島前洋第二第三第四船隻間間畱碇第五船臣營終境勿溜島富平府初境畱碇則自第一第五畱碇之間不過二里許自第五船畱碇之時有大砲一放之聲啓○十三日以李命詰爲司諫院大司諫○十四日以俞錫煥爲吏曹參判○三軍府啓鎮撫中軍今旣見窠矣此時此任不容不另擇行護軍魚在淵特爲差下何如允之○三軍府啓洋船來泊於沁都不遠之地雖未知其意之何居而凡於防守尤當加意增兵添糧之道自臣府量宜措處以爲及時下送何如允之又啓沁都之增兵添糧纔有稟啓者矣訓局步軍二哨火藥一千斤手弩弓十張具

『高宗實錄』 권8, 8년 4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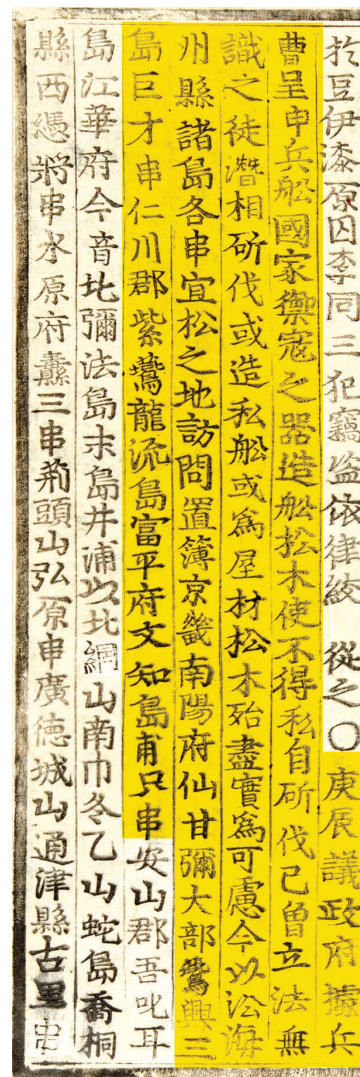
④ 문침도(문지도)

『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27일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해 소나무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 상신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병선(兵船)은 국가의 도둑을 막는 기구이므로 배를 짓는 소나무를 사사로 베지 못하도록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이 가만히 서로 작별(斫伐)하여 혹은 사사 배를 짓고, 혹은 집재목을 만들어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으니 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여러 섬(島)과 각 곳(串)의 소나무가 잘되는 땅을 방문하여 장부에 기록하였는데, 경기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仙甘彌)·대부(大部)·연흥(薦興) 세 섬과 거재곶(巨才串), 인천군(仁川郡)의 자연도(紫鷲島)와 용류도(龍流島), 부평부(富平府)의 문지도(文知島)와 보지곶(浦只串)……



『세종실록』 권121, 30년 8월 27일

사료로
보는
서구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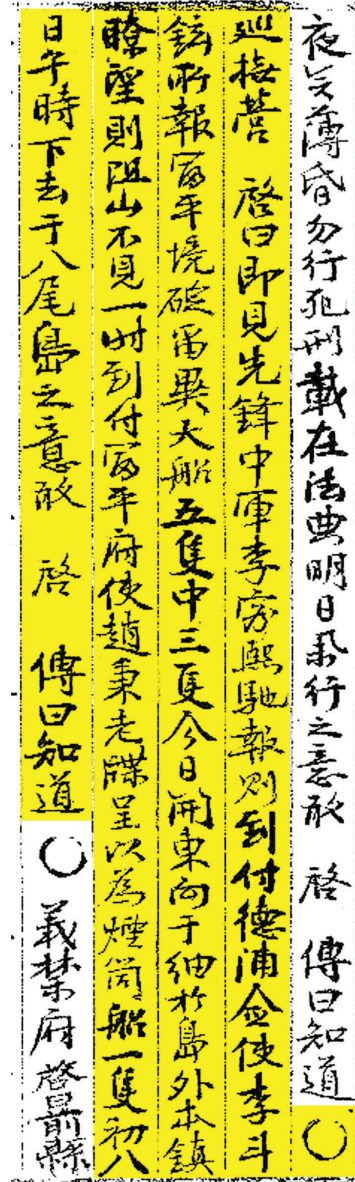
2) 『승정원일기』

① 세어도

고종 3년 병인(1866) 10월 9일(갑오) 맑음
선봉 중군 이용희가 치보한 이양선의 동태를
보고하는 순무영의 계

순무영이 아뢰기를,
“지금 선봉 중군 이용희(李容熙)의 치보를 보니
‘덕포 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鉉)의 보고가 도
착하였는데 「부평 경내에 머물러 있던 이상한 큰
배 5척 가운데 3척이 오늘 동틀 무렵 세어도(細於
島) 밖을 향하여 갔다. 이에 본진에서 바라보았으
나 산이 막혀 보이지 않았다.」 하였고, 일시에 도
착한 부평 부사 조병로(趙秉老)의 첩정을 보니 「연
통선(煙筒船) 한 척이 8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
尾島)로 내려갔다.」 하였습니다.’ 하였기에, 감히
아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고종 3년 병인(1866)
10월 9일(갑오)

3) 문 집

① 『경세유표』

경세유표 제1권 지관호조(地官戶曹) 제2 교관지속(敎官之屬)

사축서(司畜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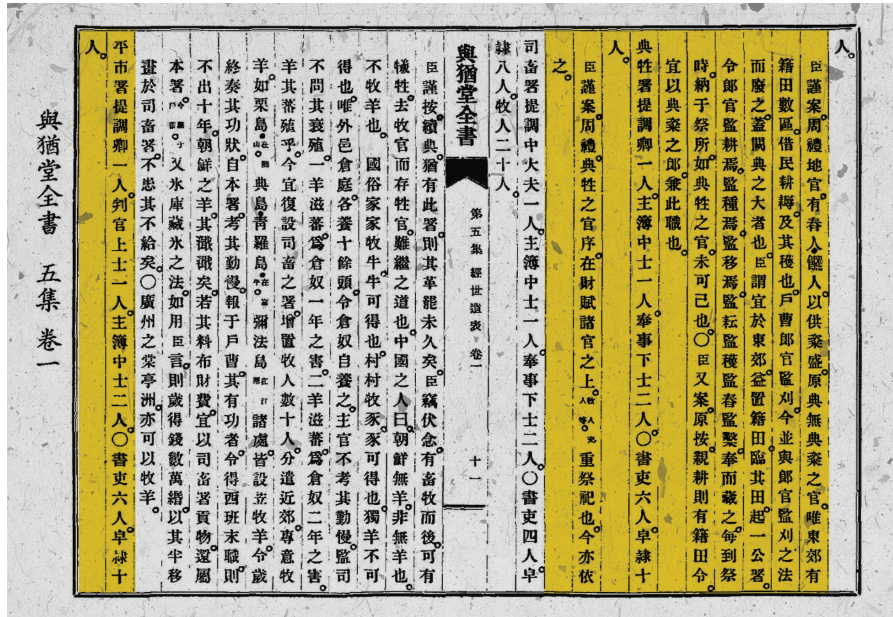
제조 중대부 1인, 주부 중사 1인, 봉사 하사 2인.

서리 4인, 조례 8인, 목인(牧人) 20인.

살피건대, 속전(續典)에도 오히려 이 관청이 있으니, 혁파된 것이 오래지 않았다. 생 각건대, 짐승을 기른 다음이라야 희생이 있을 수 있는데, 목관(牧官)은 없애고 생관(牲 官)을 남겨둔 것은 희생을 잇따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이 “조선(朝鮮) 에는 양(羊)이 없다” 하나,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풍 속에 집집마다 소를 치니 소를 구할 수가 있고, 마을마다 돼지를 치니 돼지도 구할 수 있으나, 유독 양은 구할 수가 없다. 오직 외방(外方) 고을 창고 뜰에다 10여 마리씩 기 르는데 창노(倉奴)에게 기르도록 할 뿐이요, 먹이는 데에 부지런한가 게으른가를 주관 (主官)이 고찰하지 않으며, 줄고 느는 것도 감사가 묻지 않는다. 양 한 마리가 불어나면 창노에게 1년 동안 해롭고, 두 마리가 불어나면 창노에게 2년 동안 해가 되는데 양이 어찌 불어나겠는가?

이제 목축(牧畜)을 맡은 관서를 다시 설치하고 목인 수십 명을 증원한 다음, 근교(近 郊)에 갈라 보내서 양치는 데에 전념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밤섬[栗島 : 용산에 있음] · 전도(典島) · 청라도(靑羅島 : 부평에 있음) · 미법도(彌法島 : 강화에 있음) 같은 여러 곳 에 모두 우리를 설치하고 양을 칠 것이다. 그해 연말에 공장(功狀)을 아뢰도록 하고 본 서(本署)에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한 다음, 호조에 보고한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는 서반(西班) 말직(末職)에 참여하도록 하면 10년이 못 되어 조선에도 양이 많 아질 것이다. 그 요포(料布)와 소비되는 재물 같은 것은 사축서 공물(貢物)을 본서(지금

은 호조에 속해 있다)에 다시 이속(移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또 빙고(氷庫)에 얼음 저장하는 법을 나의 말대로 한다면 해마다 수만 꿩미 돈이 남을 터이니, 그 절반을 사축서로 넘겨주면 넉넉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경세유표』

② 『임하필기』

『임하필기』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서해(西海)와 남해(南海)의 해로(海路)

서울의 용산강(龍山江)에서 서쪽으로 통진(通津)의 유도(留島)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백 리이며, 유도에서 남쪽으로 가면 갑곶진(甲串津)을 지나서 손돌목[孫石項]에 이르게 되는데 이 손돌목이 바로 강화부(江華府)의 손방(巽方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일명 손석항(巽石項)이라고도 한다. 강화는 그 산맥이 손돌목에서 포구(浦口)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물밑은 석각(石角)이 울퉁불퉁하고 파도가 소용돌이쳐서 뱃길이 지극히 험하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西南海路

自京都龍山江。西抵通津留島百里。自留島南行過
甲串津。至孫石項。項在江華府巽方。故名巽石項。江
華山脈。自孫石項入浦中米水底石角嶺。岫波濤洄
沱。船路極險。左夾藥山帟島。右夾德津鎮。草芝鎮。左
夾栗島永宗島。至月尾島。自留島至此島一百三十
里。自茂致島。左夾至平薪鎮二百三十里。右夾至呂
防島二百五十里。左夾安興鎮竹島。倍味島。自平薪
鎮至此四百五十里。右行至群山鎮。自呂防島至此
四百六十里。左夾自倍味島。至鳥驛島二百九十里。
自群山鎮。右夾至注之島二百九十里。左夾歷暮來
草。右扼揪于島。左夾會寧鎮。歷全羅左水營。至非浦
鎮。五百二十里。左夾統營船廠所。歷巨濟湖山島。右
扼加德鎮。左夾至鳴音島。四百餘里。右夾絕影島。倭
館對馬島。左夾釜山鎮。轉向北。過慶尚左水營。機張
蔚山長鬚。近日。至于嶺東關北。自留島至喬桐。歷延
坪島。左夾身浦島。至蝦島。自身補。至蝦島七十里。

『임하필기』 제1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산(藥山)의 호도(虎島)를 끼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덕진진(德津鎮)과 초지진(草芝鎮)을 끼고 지나서 다시 왼쪽으로 울도(栗島)와 영종도(永宗島)를 끼고 지나서 월미도(月尾島)에 이르게 되는데 유도에서 이 섬까지 이르는 거리가 130리이다. 그리고 무치도(茂致島)에서 이를 왼쪽으로 끼고 평신진(平薪鎮)까지 이르는 거리가 230리이고 이를 오른쪽으로 끼고 여방도(呂防島)까지 이르는 거리가 250리이며, 다시 왼쪽으로 안흥진(安興鎮)과 죽도(竹島)를 끼고 배미도(倍味島)에 이르는데 평신진에서 이 섬까지 이르는 거리가 450리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군산진(群山鎮)에 이르는데 여방도에서 이곳까지 이르는 거리가 460리이다. 여기에서 다시 왼쪽으로 길을 잡아 배미도에서 조역도(鳥驛島)까지 이르는 길이 290리이고 군산진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잡아 주지도(注之島)까지 이르는 거리가 290리가 된다.

다시 왼쪽으로 길을 잡아 모래초(暮來草)를 지나 오른쪽으로 추자도(楸子島)를 안고 왼쪽으로 회령진(會寧鎭)을 끼고 전라 좌수영을 지나서 비포진(非浦鎭)까지 이르는 거리가 520리이고 왼쪽으로 통영(統營)의 선창소(船廠所)를 끼고 거제의 한산도(閑山島)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덕진(加德鎭)을 안고 왼쪽으로 길을 잡아서 명지도(鳴旨島)까지 이르는 길이 400여 리가 된다. 다시 오른쪽으로 절영도(絶影島)의 왜관(倭館)과 대마도를 끼고 왼쪽으로는 부산진(釜山鎭)을 끼고 북쪽으로 꺾어서 경상 좌수영과 기장(機張), 울산(蔚山), 장기(長機), 연일(延日) 등을 지나서 영동(嶺東)과 관북(關北) 지방에 이른다.

그리고 유도에서 교동(喬桐)에 이르고 연평도(延坪島)를 지나서 왼쪽으로 신미도(身彌島)를 끼고 가도(假島)에 이르게 되는데 신미도에서 가도까지의 거리가 70리이다.

사라진 서구의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4

사라진 서구의 섬

현재 서구의 관할 구역은 인천의 북서쪽 연안을 포함한다. 근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서구 연해의 간척 사업으로 서구의 섬들이 사라져 왔다. 반면에 간척된 곳은 농업용지, 산업용지, 주거용지, 도로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의 서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잦은 행정구역의 변화로 인한 것임은 물론, 간척의 역사가 큰 역할을 차지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간척(干拓)’이란 하천, 바다 등을 육지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 제방을 쌓고 해수를 퍼내며 땅을 고르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새로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인 ‘간척지(干拓地)’가 생성되는데, 서구는 근대 이후 이러한 간척지를 꾸준히 늘려나갔다.

경기만에 속한 서구 연해에서는 갯벌이 많은 지역성 특성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갯벌 중 인천(경기 포함) 연안에는 약 838.5km²에 해당하는 갯벌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갯벌의 35퍼센트에 해당한다.¹⁾ 인천의 갯벌은 김포 갯벌, 송도 갯벌, 남동 갯벌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서구 연해의 갯벌은 김포 갯벌에 해당한다.²⁾

한반도의 중서부 경기만에 위치한 인천은 섬이 많고, 조차(潮差)가 크며, 해안선이 복잡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찍부터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인천광역시 육지

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19쪽.
2) 최춘일, 「경기만의 갯벌」, 경기문화재단, 2000, 80쪽.

부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106,789km²가 간척 사업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서구의 간척지이다.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 실행된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한 것이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간척된 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다.

서구의 연안은 조선시대와 근대에 걸쳐 만(灣) 사이를 간척하여 농지로 이용되었으

며, 광복 이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육지와 섬 사이의 바다를 매립한 결과 기존의 섬들이 사라지고 지금과 같은 지형이 형성되었다.



인천지역 갯벌 분포도
(해양수산부 바다생태정보나라)

1) 광복 이전 서구 지역 간척과 섬

앞서 조선시대 지지자료와 고지도에 기록된 서구의 섬을 언급한 바 있다. 전통시대 자료에 기록된 섬들은 대부분 사람이 사는 섬이거나, 혹은 물자가 풍부하여 이용할 만하거나, 말 등을 기르는 목마장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거나, 혹은 유배지로 이용하기 적절한 절도(絶島) 등으로 생각된다.

지지자료와 고지도에 기록된 서구의 섬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도(箕島), 난지도(蘭芝島, 蘭芝島), 독도(獨島), 문지도(文知島), 물차도(勿次島), 박말도(朴抹島), 세어도(細於島), 서변도(西邊島), 서일도(西日島), 서천도(西遷島), 성종도(成宗島), 오류동 울도(栗島), 원창동 울도(栗島), 응도(鷹島), 일도(一島), 장고도(長古島), 장구도(長口島), 장도(獐島), 장산도(長山島), 전지도(全之島), 정자도(亭子島), 정점도(亭店島), 조도(助島), 청라도(靑羅島), 파라도(巴羅島), 호도(虎島), 황산도(黃山島)

사라진
서구의
섬

위 섬들은 한자 표기 방법과 여러 가지 이칭으로 불렸기에 동일한 섬임에도 다른 명칭으로 기록된 것이 많다. 따라서 실제로 전통시대 서구 지역의 섬 기록은 위의 섬 숫자보다 현격히 적게 나타난다.

한편 조선시대 서구의 갯벌은 조금씩 간척되었다. 바닷가에 독을 쌓아 갯벌을 막고 바닷물을 제거하여 농토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방조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조수의 흐름이 약한 곳에 제한적으로 간척이 이루어졌는데 서구 해안은 다른 곳에 비하여 간척이 용이한 편이었다. 조수가 드나드는 입구가 좁고 오목한 만(灣)의 형태로 발달되었기 때문이었다. 만 사이 갯벌에는 대조(大潮) 시에만 바닷물이 잠기는 높이까지 성장하는 염생식물이 발달한 염생습지가 형성되어 간척의 최적지가 되었다.³⁾

아래 지도의 A지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금곡동, 좌동, 오류동 일대이고, B지역은 서구 백석동 일대로, 이 두 지역은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당시 간척은 만 사이의 입구에 방죽을 쌓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A지역의 대표적인 방죽은 황포방죽, B지역의 대표적인 방죽은 한들방죽과 그 바로 아래 해머리방죽이었다.

기존에는 위 방죽들이 개항 이후 일제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1913년 백석·시천·검암리 일대 갯벌의 갯벌을 친일파 송병준이 대부(貸付)하여 1919년에 완공하였다는 것이다.⁴⁾



1910년 이전의 간척지

3) 권혁재, 「지형학」, 1991, 352~353쪽.

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62쪽.

그러나 『서구사』(2014)에 의하면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1년 측도, 1913년 제작)에 황포방죽, 한들방죽, 해머리방죽의 모습이 확인되며, 이 지역에서 일본인이 대규모 농장 경영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조선 후기 이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국 서구 지역의 간척은 1911년 이전부터 이미 그 기본적인 틀은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⁵⁾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1년 측도)에 나타난 서구의 섬과 방죽

5)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근대 들어 해안에 대한 측량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문지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전통시대 지도보다 좀 더 사실적인 지형을 나타내는 지도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 섬의 위치와 크기 등이 명확하게 그려졌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1년 측도, 1913년 제작)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근세 오만분의일 지형도」(1916년 측도, 1919년 제작)에서도 서구 각 섬의 위치와 면적, 수로 등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었다. 위 지도들에서 확인되는 서구 연안의 섬은 다음과 같다.

거점도(巨籤島), 길무도(吉舞島), 난지도(蘭芝島), 도도(桃島), 명도(明島), 매도(梅桃), 문점도(文沾島), 사도(蛇島), 소도(小島), 소문점도(小文沾島), 소운염도(小雲兼島), 소울도(小栗島), 소황산도(小黃山島), 안암도(安岩島), 오류동 울도(栗島), 운염도(雲兼島), 육도(陸島), 원창동 울도(栗島), 응도(鷹島), 일도(一島), 자치도(此倣島), 장구도(長九島), 장금도(長金島), 장도(獐島), 청라도(靑羅島), 축도(丑島), 토도(兔島), 황산도(黃山島), 호도(虎島)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일제강점기 들어 서구 연안을 간척하여 농지를 확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으나, 섬을 매립하는 방식보다는 방죽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40년 1월 19일 조선총독부가 ‘경인시가지계획’ (총독부고시 제25호)을 발표하며 서구를 포함한 경인 지역을 공업 용지와 주택 용지로 지정하였다. 월미도 서부에서 서구 울도 북쪽에 이르는 갯벌을 매립하여 공장 지대를 형성하고 경인공업단지와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업은 1944년 1월 8일(총독부고시 제12호)변경며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



1944년 경인시가지계획
(총독부고시 제12호)

정리하자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서구 연안의 해안 개발을 주로 방죽을 쌓아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일제강점기 들어서도 그 목적과 방법을 대략 유지되었다. 강점기 말 경인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서구 연안이 개발이 예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서구의 섬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산업화 물결 속에 사라진 섬

광복 이후, 조국을 되찾았다는 희망과 함께 국토 개발의 청사진이 펼쳐지는 듯 했으나 이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전쟁 직후에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복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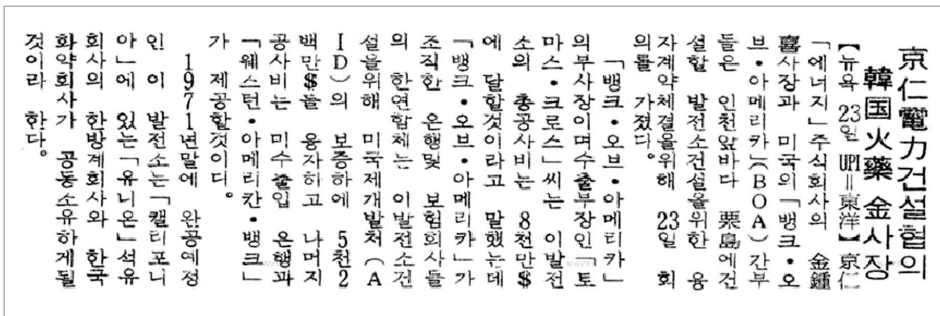
인천 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기 말 경인시까지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서구 지역은 자연부락과 논밭, 임야가 대부분인 상태였다. 일부는 제방을 쌓아 간척한 땅을 농지로, 혹은 소규모 염전으로 이용하였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1965년 10월 19일(건설부고시 제1915호) 도시계획도를 보면 서구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공업지역의 부지로 지정되었다. 해안선을 직선화하는 방법으로 공업용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사도(蛇島)가 그 범주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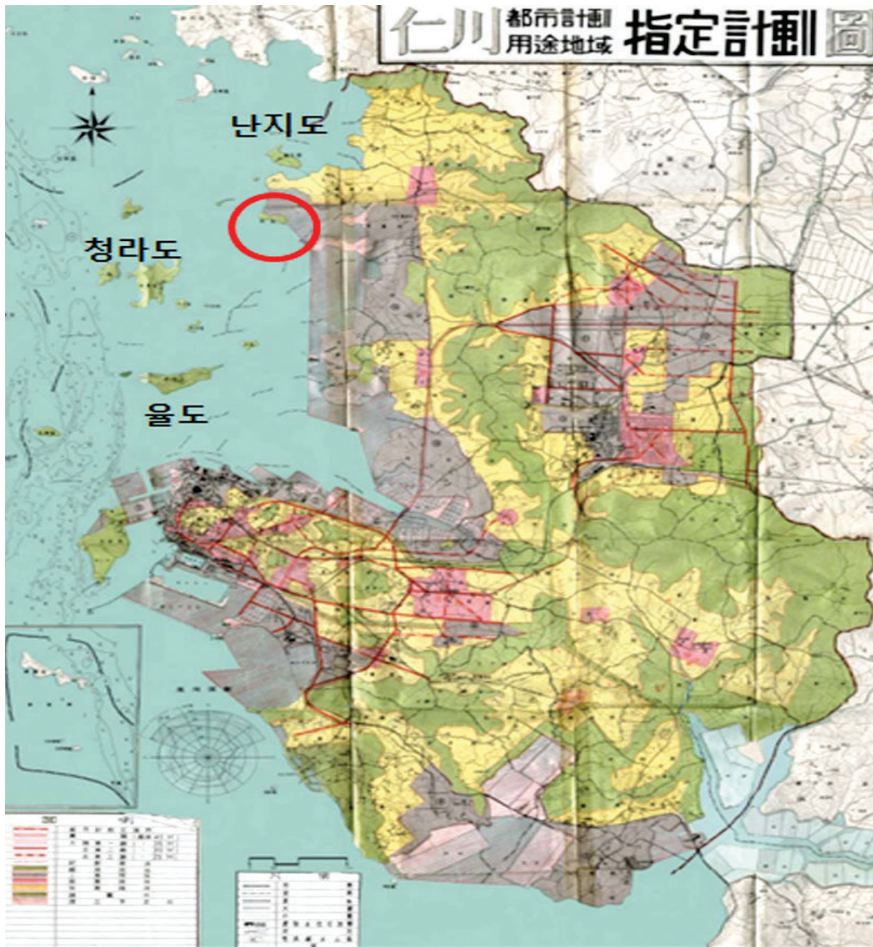
「인천도시계획도」(1965년)를 보면 난지도 아래에 위치한 금산(金山, 범머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아래 사도를 지나 포리(浦里), 주안으로 이어지는 공업용지가 구획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계획에서는 난지도, 청라도, 울도 등은 포함되지 않아 섬으로 존속될 수 있었다. 한편 1970년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시설이 울도에 들어서기로 협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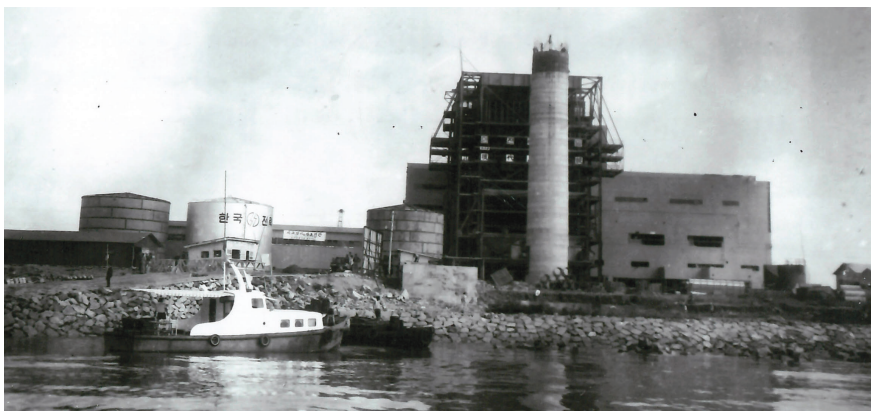
울도에 전력 공급용 발전 시설 건설 기사
(1970. 01. 24. 매일경제 2면)



1968년 인천화력발전소 준공식 모습



인천도시계획도(1965년) (빨간 원 부분이 매립된 사도)



1970년 울도화력발전소 모습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1964년 9월 9일 농림부에서 수산 증식 사업을 허가하여 서구 연안 간척지에 대한 매립이 이어졌는데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1967년경부터는 인천항만사령부와 AID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를 통하여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영세노동자들은 울도~장금도~문점도~청라도~일도~장도~경서동 고잔 간 길이 6,830m의 제방으로 7개 섬을 이어 놓은 상태였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제방길은 사실상 제방길 내의 모든 섬을 매립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1960년대 중반
섬과 섬을 잇는
청라지구 물막이 공사
『봉덕학원 50년사』

1970년대 들어 김포매립지(일명 동아매립지) 등의 매립 계획이 구상되었는데, 기존의 난지도, 청라도, 울도 등의 매립을 포함하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었다. 1970년 2월 9일 건설부 고시 제54호에 의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 쌓은 둑은 북쪽에서부터 경서동, 장도(獐島), 일도(一島), 청라도(菁蘿島), 문점도(文沾島), 장금도(長金島), 울도(栗島; 원창동), 소염(小鹽), 신현동으로 이어졌다.⁶⁾ 사도(蛇島)와 이도(耳島)는 매립지 안에 포함되었고, 소문점도(小文沾島)와 자치도(雌雄島)는 높이가 낮아서 지면 아래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경서동 산251·산252 일대에 위치하던 청라도는 섬이었을 당시 해발고도는 67.7m였으며, 면적은 0.79km²였다. 이름은 푸른 넝쿨과 관목들이 무수히 많아, 푸른 섬이라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한다. 섬의 모양이 뽕어나간 땡덩이덩굴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

6) 『경향신문』 1971. 12. 21. 7면.

졌다고도 한다. 멀리서 보면 유난히 푸른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란섬이라는 뜻으로 ‘파렘’이라고도 불렀다고 전해진다. 청라도에는 인천 본토와 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편이 있었는데, 1972년 6월 28일에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7월 4일부터 운행이 재개되었다. 주민들이 당제를 지내던 당나무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은 폐교된 인천신현북초등학교 청라분교가 한때 존재했다. 청라도 남동쪽의 옛 경인유스호스텔 북동쪽 능선에서 고인돌 하나가 발견되었다.

장도는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염’ 또는 ‘노렘’이라고도 하였다. 일도에는 한국가스공사 기지와 한국전력공사 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위치한다. 경서동 산256임, 661, 662 일대에 있던 장금도는 원래 2개의 섬이었는데 섬을 깎고 매립하여 해발 15m의 섬 한 개로 변하였다. 1900년 미국인 사업가 타운센드(Townsend)가 폭약 창고를 짓기도 하였던 울도(원창동)에는 임진왜란 때 조헌이 시켜 개간되었다는 설화가 남아있고, 1972년 경인에너지가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를 지었다. 소울도(원창동)는 울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라 붙은 이름이며, 간조 때 울도와 연결되는 모습이 사람의 목과 같아 ‘목섬’이라고도 하였다. 사도는 뱀이 많이 살아 붙은 이름으로, ‘사염’으로도 불렸다. 이도는 경서동 산249, 509-10임, 672 등에 위치하였으며, 청라도의 남서쪽과 가까웠다. 해발 8.5m의 소문침도는 경서동 산255임 등지에 위치하였다. 자치도는 섬의 모양이 까투리를 닮아 ‘까투렘’이라고도 하였다.

동아건설은 1980년 1월 14일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고, 대규모 간척 농지개발을 위해 1983년 9월부터 4년 동안 기존의 간척지를 포함하여 원창동, 울도, 청라도, 김포 대곶면 약암리를 매립하여 있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초 매립 면허 면적은 372.4

靑羅島에 旅客船 재취항

交通部 赤字운항비는 補償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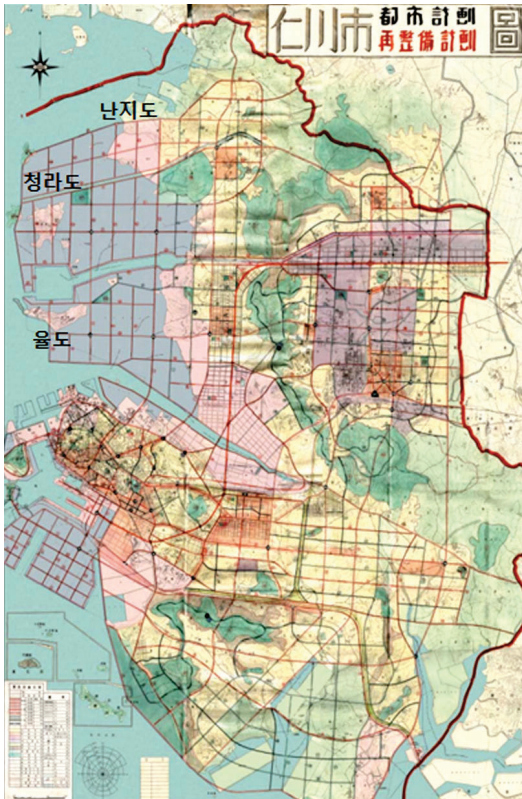
【仁川】속보 靑羅島에 해진호(18톤)를 여객선으로 운항(명)을 토록 신규면허하고 적자운항비를 보상해 주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28일경부터 인천 靑羅島간의 육상 및 해상 교통이 끊겨 주민들의 발이 묶여 이 게 된 것을 해소시키는 조치이다.

인천 본토와 청라도를 잇는 여객선이 재운항한다는 기사
『매일경제』 1972. 07. 06. 7면

km²로 당시 기존 서구지역 크기만큼 갯벌을 매립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동아그룹이 창립 42주년을 맞아 작성한 김포간척지 그림



인천시도시계획도(1970년)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이 지는 83년 9월부터 자체자금 7백94억 4천9백만원(국비, 민자)을 투입, 진행해온 김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의 한과정으로 공사구간은 仁川시원창동~울도~청라도~일도~장도~거침도~안암도~가서도~인도를 잇는 총연장길이 9.4km의 방조제 가운데 일도와 장도사이 1천1백40m이다.



인천~김포海面 9백만坪農地 조성 최종물막이工事 끝내 東亞建設(회장崔元碩)은 27일 인천시북구원창동에서 김포군까지의 해수면을 이어 9백만坪의 농지를 조성하는 최종물막이 공사를 끝냈다. 동아건설이 물막이 공사는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관련 기사
(1985. 05. 28. 「매일경제」 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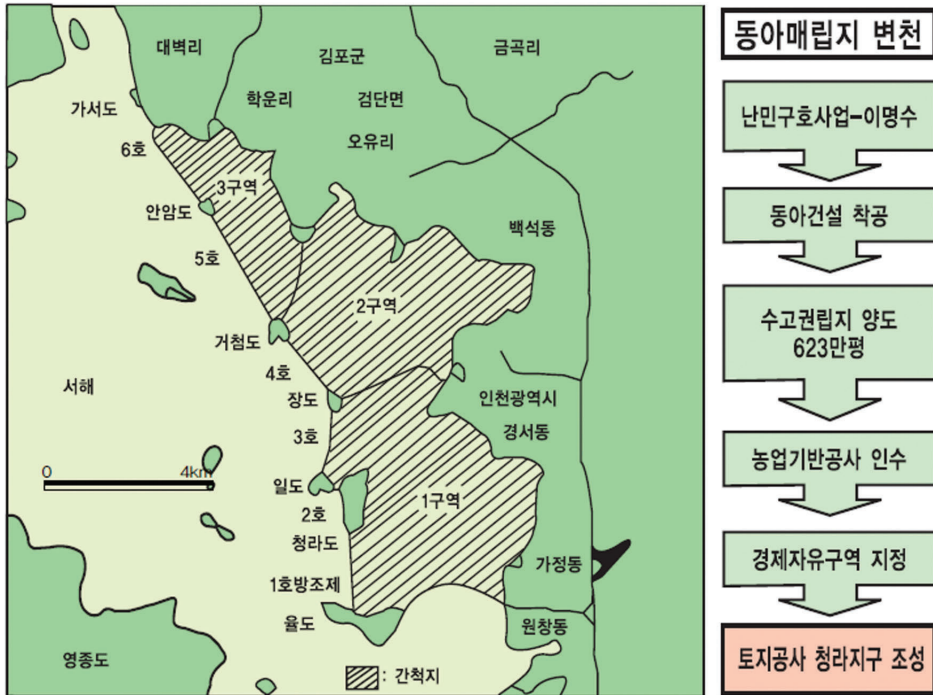
장도와 일도 사이 매립공사

그러다가 1980년대 말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1987년 9월 김포매립지 일대 및 추가로 설정한 서구 일대의 공유수면에 새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1988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환경부에 매각하고, 나머지 16.49km²는 1989년 매립준공 되었다. 결국 1980년 1월14일 시작된 매립공사는 10년여의 공사 끝에 1991년 1월 8일 준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방조제는 총 연장이 9,403m에 달하며 7개의 섬(울도, 청라도, 일도, 장도, 거침도, 안암도, 가서도)을 남북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매립 면적 38km²에 비하면 방조제 연장이 타 지구에 비해 긴 지역이다.

1구역은 3호 방조제 200m, 2구역은 4호 방조제 400m, 3구역은 6호 방조제 200m를 끝막이 구간으로 설정하여 1984~1985년 사이에 끝막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동아건설의 매립 공사로 인하여 서구 대부분의 섬이 없어졌는데, 이 때 없어진 섬들은 방조제 건설에 이용된 가서도(駕嶼島), 안암도(安岩島),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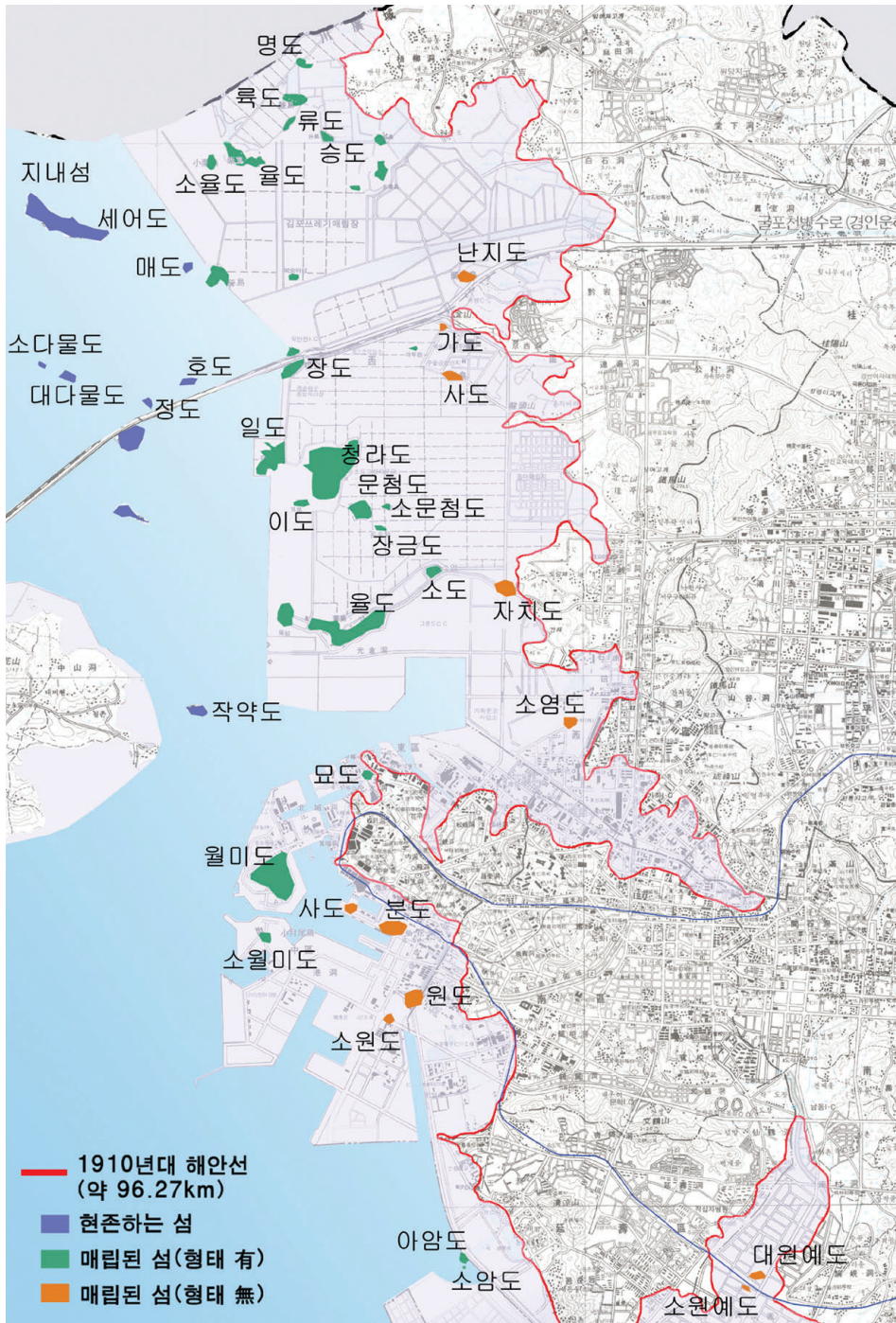
김포매립지의 평면도와 변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76쪽

첨도(巨簷島), 장도, 일도, 청라도, 울도(원창동)를 비롯하여 인천 서구 쪽에서는 울도(栗島; 오류동), 소울도(小栗島; 오류동), 명도(明島), 육도(陸島), 축도(紐島), 승도(升島), 토도(兎島), 고무도(古舞島), 도도(挑島), 난지도(蘭芝島)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고무도는 길무도(吉舞島)로 오기(誤記)이기도 하였다. 한편, 김포 쪽에서는 도여(都礪), 사암도(沙岩島), 포내도(浦內島), 방마도(放馬島), 소미도(小米島), 북덕도(北德島), 소북덕도(小北德島)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서구의 섬들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재 서구의 관할로는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 이외에 대부분 섬이 매립되었다. 다만 사라진 섬들의 이름 중 일부는 지명으로 남아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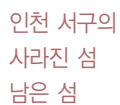


2015년 항공 사진(인천시 지도포털)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인천 해안의 도서 현황도
서구사 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참고



매립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

동별	위치	도서명	이용실태	비고
오류동	1	안암도	수도권매립지내 유수지	△
	2	명도(봉우도)	검단 오류농장내 편입(금호동 서북측)	△
	3	륙도	검단 오류농장내 편입(금호동 서측)	△
	4	추도(싸리염)	검단 오류농장내 편입(금호동 서측)	△
	5	울도(밤섬)	검단 오류농장 남측 경계	△
	6	소울도	동아건설 매립지	△
	7	매도	거침도앞 도서	○
	8	거침도	수도권매립지 경계로 육지화	△
	9	복숭아섬	수도권매립지 내	△
	10	승도(되섬)	수도권매립지 인접지	△
	11	토도(토끼섬)	수도권매립지 인접지	△
	12	길무도	수도권 매립지 인접지	△
경서동	13	호도(범섬)	영종대교 북측	○
	14	정도	영종대교 북측 호도옆	○
	15	장도	북인천 I.C 동아매립지	△
	16	까투염	주물공단 앞 동아매립지내	△
	17	기도	동아매립지내 청라도 우측	×
	18	난지도	' 68년까지 도서로 존치(수도권매립지)	×
	19	사도	' 77년까지 도서로 존치 (주물단지 및 수도권매립지 편입)	×
	20	소다물도	세어도 남측	○
	21	대다물도	세어도 남측	○
	22	일도	' 77년까지 도서로 존치, 일도복합화력전소 입지	△
	23	청라도	동아매립지 서측	△
	24	이도	청라도 남측	△
	25	문침도	청라도 동남측 동아매립지내(70년도에 통계연보에 등재)	△
	26	소문침도	청라도 남측 동아매립지	△
	27	장금도	청라도 남측 동아매립지	△
원창동	28	소울도(목섬)	인천화력발전소 부지(목도)	△
	29	울도	' 78년까지 도서로 존치(한화발전소부지)	△
	30	소도	' 77년까지(소염)으로 존치(울도 입구)	△
	31	자치도	' 78년까지 도서로 존치(울도 입구)	×
	32	세어도	인천 최서북단 도서	○
	33	지내섬	세어도 인접섬(세어도에 편입)	×
가좌동	34	소염도	' 77년까지 도서로 존치(목재단지북측)	×

주) ○ : 현존하는 섬 △ : 매립된 섬 × : 사라진 섬

서구의 섬 현황

사라진
서구의
섬

3) 사라진 섬 위에 들어선 청라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청라국제도시는 동아건설이 간척한 김포매립지 중 일부에 들어선 신도시다. ‘청라’라는 이름은 매립되기 전에 있었던 섬인 청라도(靑蘿島)에서 유래되었다. 김포매립지 조성 당시 청라도는 사라졌으나 그 지명을 따서 청라지구라 명명하였다. 사실 전통시대부터 청라도의 한자 표기는 여러 가지였는데, 청라지구 홍보자료에서는 ‘인천의 푸른 보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면서 ‘靑蘿’ 대신 ‘靑羅’ 표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청라지구가 국제 도시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동아건설은 수도권 매립지 터를 환경부에 넘기고 남은 땅을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농림부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히 실패하였다. 이들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 용도변경 계획 즉각 중단, 새로 들어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 특혜 시도 중단, 갯벌 매립지역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온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김포매립지 현장을 방문하며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된다. 이 때 신문 기사 내용이 흥미롭다. 매립지에 대단위 위락시설, 즉 디즈니랜드와 같은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과 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인천 경서동 동아매립지에 1백50만평 규모의 대단위 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25일 동아건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클 잭슨과 최원석(崔元碩)동아건설 회장은 24일 서울 장충동 최회장 자택에서 만나 인천 동아매립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투자 규모와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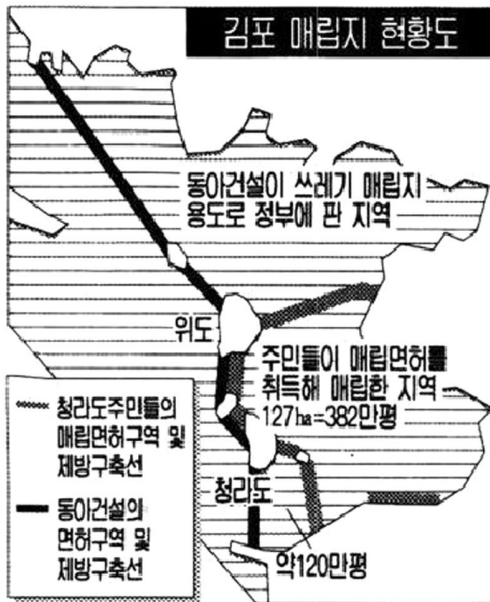
- 1998. 02. 26. 『동아일보』



동아건설 인천매립지 위치도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과 마이클잭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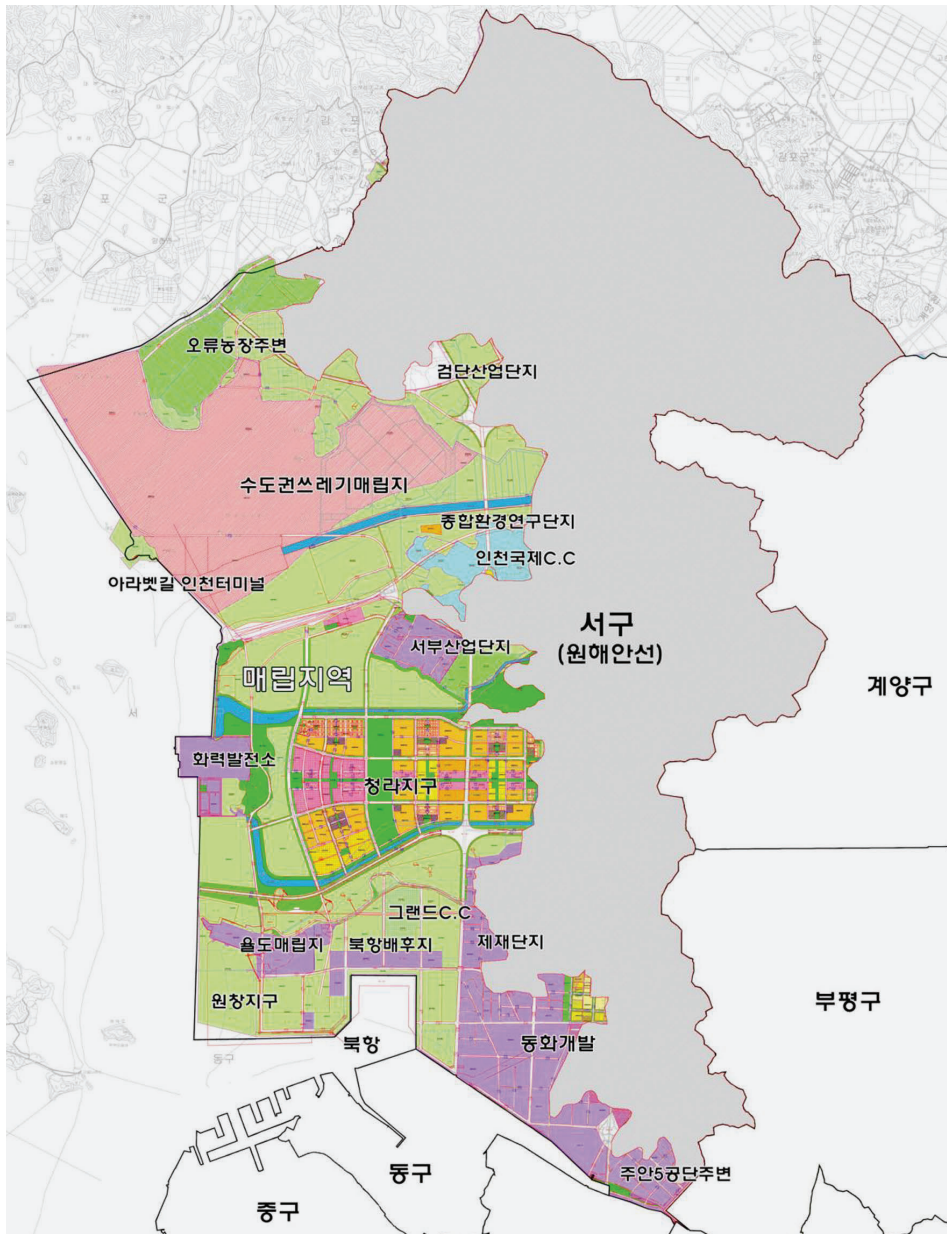


김포매립지 현 조성로

하지만 위락지 조성 계획은 진척되지 않았고 자금난에 몰린 동아건설은 1999년 농업 기반공사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2000년 끝내 최종 부도를 맞았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의 소유주가 바뀌고 용도 변경의 빙장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2003년 8월 11일, 재정경제부는 김포매립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8년 12월 20일,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지 용지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청라국제도시에는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며, 국제업무와 레저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고속도로, 경인아라뱃길 등 주요 교통축에 자리한 해안도시로 2015년 기준 인구 8만명을 넘어서 향후 도시 발전이 기대된다.



청라국제도시 구획도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서구의 유인도 세어도

인천 서구의 사라진 $\frac{K_1}{K_2}$, 남은 $\frac{K_1}{K_2}$

5 서구의 유인도 세어도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세어도 전경

1) 세어도 현황

세어도(細於島)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에 속하는 섬이다. 면적은 0.408km², 해안선 길이는 4.2km이다. 서구의 섬 중 유일한 유인도이다. 세어도는 섬의 형태가 가늘고 길게 늘어선 모양을 하고 있어 ‘세어도’

란 이름이 생겼다고 하며, 별칭으로 ‘세루’ 혹은 ‘시루’ 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어도를 부르던 옛 지명 중 세루는 ‘서쪽에 멀리 머물다’의 뜻으로 서유(西留)라고 불리던 것이 세루로 음운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서천은 ‘서쪽 멀리 귀양 가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¹⁾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어도에는 26가구 약



세어도 선착장

37여 명(2015년 현재)이 주로 농어, 송어, 새우, 농게 등을 잡는 어업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1970년대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섬은 지금보다 조선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다. 한양으로 향하는 배들이 이 섬을 마지막 정박지중



세어도 민가에서 송어를 말리고 있는 모습

1) 이원규, 『천마와 아기장수 외』, 2003년, 인천서구문화원.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약 60~70 가구가 살았으며, 당시엔 섬에 주막까지 있었다고 한다. 1960년대엔 또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섬에 모여 들었다. 연안부두 매립공사를 위해 이 섬에서 돌을 캐던 300여 명의 인부들이다.²⁾

세어도 가는 길은 2010년까지는 가까운 육지에 선착장이 없어서 약 12km 떨어진 동구 만석부두에서 1시간 가까이 배를 타야 육지와 오갈 수 있었다. 2011년에 세어도 선착장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수도권매립지 방조제에 세어도 선착장이 생기며 행정선인 정서진호를 이용하여 하루에 한번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물때에 따라 만석부두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군사시설로 통제되었고,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개발이 늦어진 점은 세어도의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환경의 보존이 뛰어나며, 소나무·고로쇠나무·고욤나무 등은 오래된 수령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섬에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관광객은 하루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날씨 혹은 배의 수리로 배가 뜨지 않는 날도 있기 때문에 섬 방문을 위해서 예약은 필수이다.



세어도를 오가는 정서진호

2) 한국관광공사, 「봄날의 작은 섬」, 인천 세어도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2014.



세어도 돌레길



세어도 갈대숲



세어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갯벌

2) 옛 기록의 세어도

세어도가 기록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천도(西遷島)’라 되어 있다. 이후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에도 대부분 서천도(西遷島)로 표기되어 있는데, 동일 읍지 내에서도 읍지의 앞에 실린 지도에는 세어도(細於島) 읍지에서는 서천도(西遷島) 등으로 혼재되어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조선시대 제작된 고지도를 살펴보면 세어도(細於島)의 명칭이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의 『광여도』나 『지승』에는 서일도(西日島), 18세기 중엽의 『해서경기해로도』는 서여도(西如島), 『1872년 지방도』에서도 부평부와 강화부에 서는 ‘세어도(細於島)’, 통진부에는 ‘세어도(細魚島)’로 표기하고 있다. 19세기 중엽 김정호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제작하기 위해 그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 단위의 채색 필사본 지도집인 『동여도전국지도』에는 서천도(西遷島), 『청구요람전국지도』에는 서변도(西邊島)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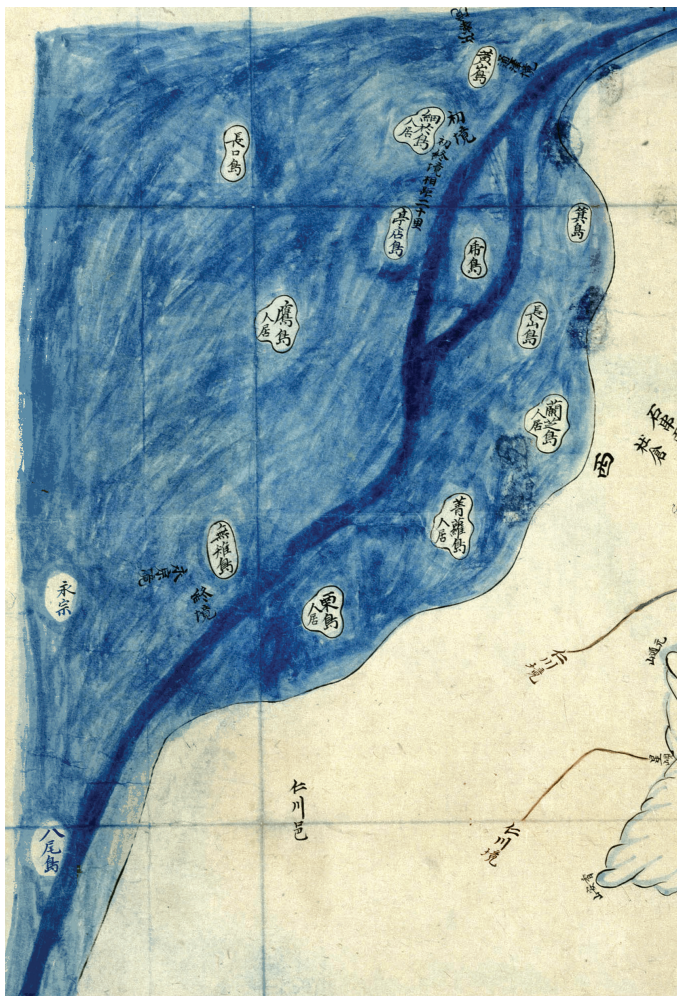
3)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452쪽.

세어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아직까지 고고학적 성과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초기에는 섬에 사는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쇄환정책으로 공식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는 못하였지만, 15세기 이래 바다와 섬은 부를 축적하는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육지에서의 힘든 삶을 피해 섬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그런 이유로 이후 제작되는 지리지에는 섬들이 기재되고, 해당 섬의 크기(둘레, 넓이)·본 읍과의 거리 등의 내용이 실렸다. 이것은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섬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제작된 지도에는 섬을 표시할 때 ‘인거(人居)’로 유인도와 무인도를 구별하였다. 세어도는 1842년 『경기지』의 「부평부」 지도와 19세기 초 제작된 『광여도』에는 서구의 섬 가운데 청라도·난지도 등 4개의 섬은 인거로 표시되어 있으나 세어도는 무인도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1871년 『부평부읍지』의 지도와 1872년 『지방지도』의 「부평부」에는 인거로 표시되어 유인도로 구분되고 있어 세어도에 사람이 공식적으로 거주하였던 시기를 가늠해 볼 수는 있으나 단정지을 수는 없다.



19세기 초 『광여도』의 세어도



3) 이양선과 세어도

인천 앞바다가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었던 시기에 세어도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난 해에 『고종실록』과 『일성록』에 당시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이, “이양선(異樣船) 큰 배 3척과 작은 배 3척이 이번 5일 오시(午時)에 팔미도(八尾島)로부터 올라왔는데, 큰 배 1척은 부평(富平) 울도(栗島) 앞 나룻가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며, 큰 배 2척과 작은 배 3척은 석곶면



18세기 중엽
『해서경기해로도』의
세어도

(石串面) 세어도(細於島) 쪽으로 올라갔습니다.”⁴⁾라고 보고하였다. 이어 며칠 뒤 순무영(巡撫營)에서 선봉중군(先鋒中軍) 이용희(李容熙)의 급보에 “덕포 첨사(德浦僉使) 이두현(李斗鉉)의 보고에 의하면 부평 일대에 정박하였던 큰 이양선(異樣船) 5척 가운데서 3척이 오늘 동틀 무렵에 세어도(細於島) 밖을 향해 갔는데 본진에서 감시하였으나 산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⁵⁾라는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병인양요 이후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양선의 출몰을 감시, 보고하기 위해 서해안이나 연안 섬 주민 중에서 청장년을 선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기 위해 요망장(瞭望將)이라는 장교를 배치하였다. 경서동을 비롯해 서곶에서도 울도, 청라도, 세어도, 난지도 등 4개 마을에서 요망병이 활약하였다고 한다.

4) 『고종실록』, 권X, 고종X년 9월 6일.
5) 『고종실록』, 권X, 고종X년 10월 9일.

4) 세곡미와 세어도

조선시대 충청도 결성현(結城縣)에서 수곡한 세곡미 1,039석을 신고 세어도에 정박한 운반선이 폭풍으로 침몰되었는데, 침수되지 않은 벼 582석과 콩 53석은 국고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400석은 결손 처리하였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침몰한 곡식을 건져 식량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1831년에 세어도가 개척될 당시⁶⁾ “원창동 출신의 포구장(세곡미저장소)이 섬을 관리하였으며, 이 시기에 강화에서 정씨, 김씨, 이씨가, 김포 통진에서 채씨들이 이주를 해와 세어도의 개척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⁷⁾도 있다.

세어도(細於島)가 속한 신현원창동은 원래 갯말(浦里), 환자곶(還子串) 마을로 불렸는데, 갯말은 갯벌마을을 뜻하고, 환자곶은 환곡이라는 지금의 대여양곡(貸與糧穀)을 수납하는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세곡미를 실은 배들이 인천 앞바다를 통해 한강의 용산이나 마포나루에 닿으려면, 강화도의 손돌목에 지나야 하는데, 그곳은 물길이 거칠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이에 세곡선들은 손돌목에 들어 서기전 물때를 살핀 후 항해하였으며, 그 최적지 중 한 곳이 세어도였다.

5) 선박의 중간 기착지

세어도는 조선시대 삼남지방에서 세곡을 운반하던 길목에 있고 한양으로 가는 마지막 정박지 중 하나여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여 거주하기 시작하여 한때는 60~70호에 이를 정도로 번창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형 선박들의 출현으로 운반선의 운행이 줄어들면서 생계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이주하였다. 특히 남북분단으로 한강으로의 뱃길이 끊기게 되면서 다소 활기를 잃게 되었다. 그래도 강화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세어도는 강화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였는데 강화도의 ‘인조견(人造絹)’을 거래하는 장사꾼들이 많았다고 한다.

6)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35쪽.

7) 박한준, 「세어도(細於島)를 지킨 보호수 이야기」, 『서구구정소식』 200호, 2013년 7월.

6) 세어도의 나무

세어도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지켜온 소나무·고욤나무·고로쇠나무가 있다. 선착장에서 세어도 어촌계 마을회관을 지나면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 제사를 지냈던 공간이다. 태풍피해로 인해 나무의 수가 많이 줄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33그루의 소나무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옛 마을회관 좌측의 고욤나무는 봄에는 연녹색 꽃을 피우며, 여름에는 풍성한 나무 그늘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된다. 최근에는 나무 주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나무를 보호하고 있다.

세어도 부두에서 마을로 오르는 언덕 좌측에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킨 수호목인 고로쇠나무가 있다. 동네 주민들은 이 고목을 ‘김침지나무’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만선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술과 떡으로 제를 지낸 장소이다.⁸⁾



세어도 고로쇠나무(김침지나무)



세어도 고욤나무

8)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449-450쪽.

7) 세어도 동제

세어도에서는 동제(도당제)를 예로부터 매년 정월에 지내왔다. 정월에 날을 정해 마을과 가정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였다. 마을 제사는 북쪽에 있는 당고개에서 유교식 제례로 행하였는데, 특이하게도 제물로 소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세어도가 동서로 길쭉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의 천적인 돼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제를 지내던 당고개에는 흙담에 초가를 올린 당집이 있었는데, 당집 안에는 삼신(신령)의 초상을 걸었다. 당고개에 있는 당집은 세어도 마을 제사 중심이 되는 곳이며, 소나무 군락지에 위치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소나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금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인구 감소로 인해 세어도의 마을 제사는 중단되었다.⁹⁾



소나무 군락지

8) 세어도의 학교

1946년 10월 석남초등학교 세어도분교가 개교하였으나, 1960년대 6.25 이후 송현 초등학교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후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적어 세어도 분교는 1995년 폐교되고 말았다. 학교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여 현재 세어도 어촌계 회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박한준, 『나무와 마을이야기』, 2014, 242-254쪽.



세어도 어촌계 회관(옛 석남초등학교 세어도분교 자리)

9) 연안부두와 세어도

1960년대부터 매립공사가 활성화되면서, 10여 년간 세어도 부둣가 앞쪽 켄섬에서 채석이 이루어졌다. 그 덕분에 세어도 경제는 다시 한 번 호황을 맞게 되었고 외지인들의 유입이 많아졌다. 당시 세어소에서 채석한 돌은 인천 연안부두 매립공사에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채석작업은 일시적인 것으로 세어도 경제를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었다. 현재 세어도에는 26가구 37명으로 인구가 줄었고, 상주인구는 그보다 훨씬 적다.¹⁰⁾



세어도 마을 모습

10)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04, 52쪽.

사진으로 보는 세어도



벽화가 그려진 세어도 주택



세어도 주민들이 보호하는 고욤나무



세어도에서 바라본 인천 서구



세어도 주민들이 말리는 송어



갯벌이 드러난 세어도에서 바라본 컴섬과 정서진호



세어도에서 바라본 영종대교

서구의 무인도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6 서구의 무인도

1) 호도(虎島)

호도(虎島)는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소재에 속한 무인도로, 총 면적 23,702㎡이며, 인근 육지인 서구 1.6km, 장도에서 3km 서쪽에 위치해 있다. 옆으로 영종대교가 지나고 있는데, 공항 건설 전 군 폭파훈련장 이용과 영종대교 교각설치로 인해 훼손이 심한 상태다. 호도는 1960년대 당시 해군기지였다고 한다. 호도(虎島)는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넓은 갯골 가운데 앉아있다. ‘범염’ 이라고도 했으며, 생긴 모습이 호랑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볼 수 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바로 이 앞으로 개설되어 있어 쉽게 바라볼 수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를 포함하여 깃잡도요 등 4종이 관찰되었고, 좀사마귀, 팔중이, 섬서구메뚜기, 꼬마납생이무당벌레, 뱀허물쌍살벌 등 60종의 곤충이 확인되었다. 갯벌 바위에는 총알고둥, 조무래기따개비, 지중해담치, 바지락 사패 등이 확인되었다. 관속식물 71종이 분포하며, 서식처가 매우 제한적인 고란초군락 분포하고 있다. 남사면에는 소나무, 북동사면에 혼합활엽수림, 교란지에 망토군락이 분포하고 있다.¹⁾

호도는 대한제국기 역사 속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1871년 4월 10일 인천부사의 첩보

1) 다음백과, 호도(虎島), <http://100.daum.net>.



호도

에 따르면 “이양선 배 5척(隻)이 오늘 유시(酉時)에도 부평(富平) 경계의 호도(虎島) 앞 바다에 그대로 정박하고 있었는데 배의 모양은 이범선(二帆船)이 2척이고 삼범선(三帆船) 3척이며, 삼범선이 제일 컸다고 합니다.……”라는 기록이 있다.²⁾ 또한 같은 해 4월 12일에는 영종방어사 이유증이 “이양선 5척이 호도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맨 앞에 선 배는 부평부 경계의 끝 경계선인 호도 앞 바다에 정박하였고 다섯 번째 배는 신의 군영 경계의 끝 경계선인 물치도와 부평부의 첫 경계에 정박하였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³⁾ 이는 이양선이 출몰하던 시기 경기만 연안과 강화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 해로에 호도가 위치하고 있었고 밀물 때나 썰물 때나 큰 배가 다니기 쉽고 정박하기 쉬워서 배들의 통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882년 3월 21일 청의 후선도(候選道) · 마건창(馬建忠) · 통령북양수사기명제독 정여창(丁汝昌)이 군함 위원 · 양위 · 진해를 이끌고 인천부 호도에 도박하였고,⁴⁾ 1882년 3월 25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 해군대장 로버트 슈펠트가 군함 스와타라(The Swatara)를 이끌고 인천부 호도에 도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

2) 『고종실록』, 권8, 고종8년 4월 10일.

3) 『고종실록』, 권8, 고종8년 4월 12일.

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고종시대 인천자료』, 2005, 197쪽.

5) 주 4)와 같음.

2) 매도(梅島 갯섬)

매도(梅島)는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의 섬으로 갯섬으로 불리는 무인도이다. 윤령도 옆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섬의 형상이 매와 같다하여 이름 붙였다. 저어새의 서식지이자 번식지로 정서진에서 약 0.2Km 떨어진 곳에 위치



매도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조회)

하며, 육지와 가깝고 섬의 면적이 513m²인 작은 섬이다. 1980년에 동쪽에 있던 거침도 일대가 매립되어 육지화된 것과는 달리 아직 섬으로 남아 있다. 매도는 국유지로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출입이 통제된 군사지역이다.

한국재갈매기, 팽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저어새와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다. 저어새의 경우 전 세계에 약 3000 여 마리 정도인데, 이중 90% 이상이 한반도 서해안이 고향이다. 저어새는 꾸준한 번식지 보존활동으로 개체수가 많이 증가 하였지만, 매립 사업 강행으로 인해 갯벌과 습지가 사라져 새들의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다.⁶⁾

3) 대다물도(大多物島)

대다물도(大多物島)와 소다물도(小多物島, 거여도)는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소재에 속한 무인도로 쌍둥이처럼 나란히 떠 있는 아담한 크기의 섬이다. 대다물도(大多物島)의 면적은 15,273m²이다. 육지와는 인천항에서 8.3km, 유인도인 세어도와는 1.6km 떨어져 있다.

섬을 둘러싼 갯벌과 대규모 염생식물군락이 연출하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가는갯

6) 인천 포커스 뉴스, 2016년 9월 6일.

능쟁이, 나문재, 칠면조, 갯사
상자, 갯질경, 지채, 갈대, 갯
잔디, 천일사초 등의 염생식
물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갯벌에서는 세스랑게, 도둑
게, 농게, 조무래기갈대발기
수우렁, 따개비, 총알고둥 등
을 볼 수 있다. 고라니가 서식



대다물도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조회)

하고 있으며, 썰물 때에는 소다물도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류는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 위주로 확인되었는데, 직박구리, 박새, 까치, 팽이갈매기가 서식
하고 있다. 섬에는 주로 8~10m 정도의 소나무, 떡갈나무, 산벚나무와 3~4m 정도의
자귀나무, 소사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⁷⁾

4) 소다물도(小多物島 거여도)

소다물도(小多物島, 거여
도)는 1,785m²의 작은 섬이며,
동서 200m, 남북 100m인 장
구형으로 생긴 섬이다. 500m
에 북쪽에 대다물도가 위치해
있는데, 썰물 때 이 두 섬이
연결된다. 인천항 8.6km와
유인도인 세어도 1.5km에 위
치해 있다.



소다물도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조회)

대다물도와 같이 섬 주변은 넓은 갯벌과 이어져 있다. 갯벌 상부에 나문재, 칠면조
등의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해안무척추동물 6종과 주변 갯벌에서 갑각류가 있다.
고라니를 확인하였으며, 집쥐가 주인으로 추정되는 굴이 다수 확인되었다. 조류는 2종

서구의
무인도

7)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rex_blog/Redirect=Log&logNo=40194748688.

이 확인되었고, 백로류로 추정되는 알과 둥지가 발견되었다.

곤충은 38종으로 호랑나비, 제비나비, 작은멋쟁이나비, 실베짚이, 썩새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 팔중이, 다리무늬침노린재, 무당벌레, 호리꽃등에, 배짧은꽃등에가 확인되었다. 관속식물 36종이 분포하고 있고, 섬 전체에는 소나무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5) 정도(亭島)

정도는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에 속한 무인도로, 영종대교 인근에 있는 섬이다. 영종도의 부속섬인 운염도와 인천 육지 사이에 있다.⁸⁾ 동쪽의 호도와 600m정도, 남서쪽 운염도와 400m 정도에 위치해 있다.



정도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조회)

정도는 남북 300m, 동서 100m인 장타원형이며 파식대상에 발달된 사주로 두 섬이 연결된 형태이다. 정도는 6종의 조류가 관찰 되었는데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 등 대부분 흔한 텃새와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의 주요 번식지이다. 섬은 작지만 바위가 많고 모래자갈 혼성 해안이 발달과 갯벌이 인근하고 있어 새들의 번식지가 많다. 하지만 영종대교의 소음으로 매년 포란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곤충은 섬서구메뚜기, 등검은메뚜기, 뱀허물쌍살벌,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 배짧은꽃등에 등 18종이 확인되었다. 해안가에는 둥근얼룩총알고둥 조무래기따개비 총알고둥 바지락 사패 등이 서식하고 있다.

관속식물 68종 분포하였으며, 특정식물종 4종과 해안지표종 20종이 확인되었다. 잡목림이 우세하였다. 정상부에 혼합활엽수림과 굴피나무군락 분포하였고, 해안가에 순비기나무군락이 분포하고 있다.⁹⁾

8)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9) 다음백과, <http://100.daum.net>.

6) 지내섬(소세어도)

지내섬은 서구 신현원창동 소재의 섬으로 사유지이며, 물이 빠지면 주변이 모두 갯벌로 변하는 섬이다. 세어도와 100m 정도 떨어진 동쪽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로 현재는 지내섬보다 ‘소세어도’라는 명칭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 두 섬을 이어주는 연결 다리와 둘레 길을 조성하였는데, 나무데크와 돌다리를 설치하여 이동이 편리하다. 하지만 간조 때만 돌다리를 건너 지내섬으로 들어 갈 수 있다.

지내섬의 둘레길은 산과 바다를 함께 둘러보며 산책을 할 수 있으며, 강화도가 보이는 곳에 정자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동검도와 강화도 등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내섬(소세어도)은 특이 지형은 없지만 간조시 갯벌이 주위에 드러나 세어도에 서식하는 고라니가 지내섬까지 이동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지내섬은 편암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북 100m, 동서 50m 정도의 타원형으로 생긴 섬이다. 해안에 무척추동물 7종이 발견되었고, 갯벌에서 갑각류가 다수 서식한다. 조류는 3종이며, 갯벌지역에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저어새가 서식한다. 곤충은 24종으로 색새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 무당벌레, 배짚은꽃등에 등이 확인되었다. 관속식물 33종 분포하고 있으며,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되어 있고, 남동 사면에 소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¹⁰⁾



소세어도

서구의
무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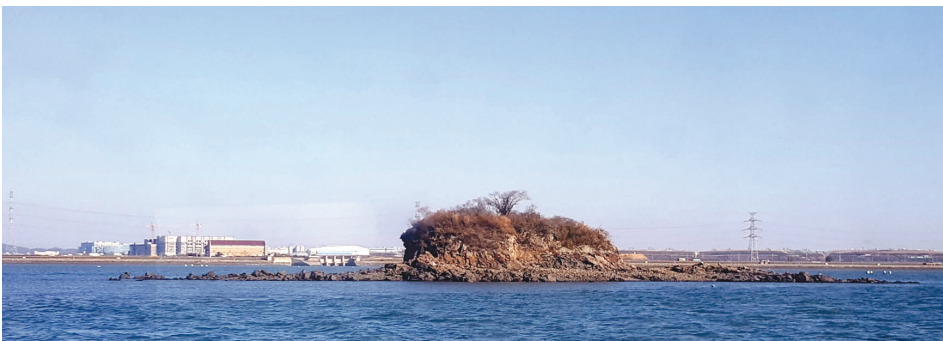
10) 다음백과, <http://100.daum.net>.

7) 켜섬

켜섬은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소재의 섬으로 사유지다. 세어도와 김포매립지 사이의 수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육지와 거리는 인천항에서 10.6km 떨어져 있다. 세어도 주민들은 이 작은 무인도를 “켜섬” 또는 “키도”라고 부른다. 세어도와 세어도선착장 중간 지점에 있어 배 운항에 기준점 역할을 하여 배 운항에 도움이 된다. 켜섬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둥글었으나, 1960년대 인천연안부두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 등의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깎아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편암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 40m, 동서 20m의 소규모 타원형으로 생긴 섬으로, 면적이 793㎡인 작은 섬이다. 육상동물이 서식하기에는 식생이 빈약하고 규모 또한 작아 적합하지 않다. 해안무척추동물 9종이 발견되었고, 해안의 암반에 조무래기따개비 등이 확인되었다.

조류는 이동 중에 잠시 기착하는 조류로 추정되는 노랑할미새와 쇠솔딱새가 확인되었고,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어새의 서식지로 확인되었다. 곤충은 36종으로 호랑나비, 실베짚이, 검은다리실베짚이, 싹새기, 팔중이, 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가 확인되었다. 관속식물 25종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에 참싸리를 중심으로 한 잡목림이 분포하고 있다.¹¹⁾



켜섬

11) 다음백과, <http://100.daum.net>.



서구 지역의 세어도와 무인도

- | | | |
|-------------|-------------|------|
| ① 세어도 | ④ 매도 | ⑦ 호도 |
| ② 지내섬(소세어도) | ⑤ 대다물도 | ⑧ 정도 |
| ③ 컴섬(키도) | ⑥ 소다물도(거여도) | |

서구의
무인도

오랜 기억 속 서구의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7오랜 기억 속 서구의 섬

이 원 규 / 소설가 · 전 동국대 교수

필자는 조상 대대로 300여 년을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에서 출생해 살아왔다. 선친(이훈익 향토사가)의 인천향토사 연구를 도와드리기도 했고 모시고 차를 운전해 답사를 다닌 일도 많다. 필자의 유년시절 기억, 아버님과 지역 원로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같이 늙어온 선배와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 20여 년간 인천 서구의 지명과 관련하여 집필했던 여러 원고들, 그리고 문헌자료의 기록들을 섞어 가면서 내 고향 인천 서구의 섬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갯벌 매립으로 이제 거의 모두 사라진 내 고향의 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남겨야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검단 앞바다 섬들은 『인천시사』와 『서구사』의 지명부분을 집필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 고향 서곶보다는 잘 알지 못한다. 상세히 기술할 수 없어 유감이다.

마침 청라국제도시가 각광을 받고 있으니 내 고향의 사라진 섬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부활되기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학술적인 것은 다른 연구가들이 글로 쓰실 것이니 스토리텔링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 인천 서구의 섬들 이야기가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떠오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필자는 서곶초등학교 4학년 봄 처음 소풍 가서 표고 395미터인 계양산에 올랐다.

1, 2, 3학년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도롱뇽을 보며 소풍하고, 4학년이 되어야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마치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다. 정상에 서면 동쪽으로 멀리 서울 남산이 보였고 서쪽으로 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허정 교감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합창했다.

“청라도는 파렴, 장도는 노렴, 울도는 밤염, 사도는 배암섬…”

허정(許楨 1924-2003) 선생님은 경서동 출신으로 서곶초등학교에만 거의 20년 근무하시어 60대-70대 거의 모든 서곶 토박이들의 스승님이시다.

서곶과 검단의 갯벌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밀물과 썰물이 빠르게 드나들었다. 섬들은 밀물 때는 바다에 잠겨 푸른 수평선 끝에 보이기도 하고 썰물 때는 망망한 갯벌의 끝에 암전히 앉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드넓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와 맛조개를 잡았으며, 썰물을 따라서 섬까지 걸어가 한두 시간 일을 보고 밀물에 앞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갯벌 매립으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1차로 난지도가 육지화되었고 경서동 금산 앞의 사도와 까투림이 1960년대에 ‘이명수방죽’ 공사로 사라졌다. 그 후 동아건설에 의해 1차로 금곡동과 오류동 앞바다가 매립되고 2차로 원창동과 석남동 앞바다가 매립되었으며, 2차로 왕길동, 백석동, 검암동, 연희동 앞바다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이 청라 매립지(처음엔 동아매립지라고 했다)에 포함되면서 거의 모든 섬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세어도를 제외한 청라도, 일도, 장도 등 거의 모든 섬들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 매립사업으로 인해 인천 서구의 면적은 원래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 제일 먼저 사라진 난지도(蘭芝島)

난지도는 본격 매립 이전 사라진 섬으로 경서동의 서단(西端)인 금산의 정북 300m에 놓여 있었다. 난지도에 대한 옛 문헌 기록으로 주목할 것은 1789년(정조 13)에 간행한 『호구총수』이다. 이 책은 당시 전국 인구분포 상황을 부·군·방·계·면 등 행정조직별로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녀 인구 수까지 기재했고, 방리의 명칭을 부기해 이 시기의 인구사 연구와 지방행정 조직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부평부 모월곶면에 난지도(蘭芝島) 지명이 실려 있다.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蘭芝草)가 자생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난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난지염’의 음운변화이다. 사멸된 우리말에 ‘염’이라는 것은 바위로 된 작은 섬이라는 단어였다.

물에서 가까워 경서동의 한 마을로 여겨져 왔다. 형체는 몸을 크게 편 해파리 같은 모습이었다. 금산과의 사이에는 큰 갯골이 하나 있어 밀물이 들어찼을 때는 건너가지 못했다. 물과 위낙 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지화되었다. 현재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난지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놓여 있다.

인천 서구 섬들의 정확한 좌표 기록이 있다. 아버님 회고에 의하면 서곶출장소장으로 계시던 1960년 정부는 일제가 1910년대 초반 근대식 삼각측량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며 모든 지명을 한자로만 적은지라 재래지명을 회복할 겸 행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명조사를 명령했다. 서곶출장소도 아버님 지휘로 현지출장으로 지명을 확인하고 정확한 지명을 적어 올렸다. 그것은 1961년 4월 21일 국무령고시 제16호로 『표준 지명 사용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책자로 제작되어 정부의 관보로 발간되었다. 난지도는 동경 126도 38분, 북위 37도 33분이다.

기록된 난지도 관련 스토리텔링 자료 가장 오래 것은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이 야기일 것이다. 그는 1418년 6월 계양산 경명현에서 매사냥을 하고 난지도 앞바다에서 낚시하며 3일을 놀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아우가 자신보다 영특하여 장자 상속을 비켜가 왕위에 올랐다면 그 형인 대군은 소리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하는 법, 양녕대군로서는 매사냥도 하고 바다낚시도 하는 서곳이 더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 일 외에 난지도가 세상의 눈을 끌 일은 없었다. 조선 중기에 들어 원창동, 청라도, 난지도에 정부 양곡을 보관하는 전조창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크게 주목할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조선후기 통상을 요구하는 서구열강의 함선들이 인천 앞바다에 출현하는 일이 일어났다. 난지도 관련기록도 있다. 강화 교동현감 등의 보고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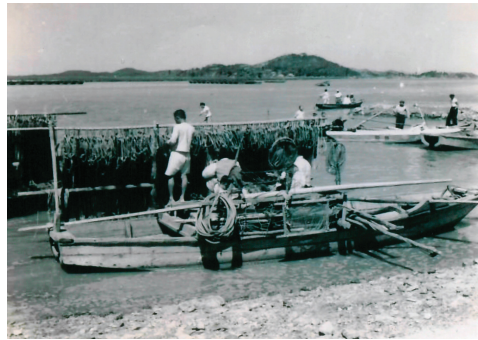
고종 3년 8월 14일(庚子) 이 날 아침에 「프랑스」국 군함 「테루레드」호는 인천 부(仁川府) 제물포 팔미도 외양(外洋)으로 향하여 수원부(水原府) 풍도(楓島) 외양에 정박 중인 요함(僚艦) 「프리모게」 및 「타루디프」호 등과 합류하다. 잠시 후

다시 팔미도 앞 바다를 거쳐 부평 경내에 들어와 강화부(江華府)를 향하여 북상하다. 이 때 「프리모계」호는 난지내서(草芝內嶼)에 머물다가 다시 난지도 전양(前洋)에 정박하다.

고종12년 1875년 8월 21일에는 운요호(雲楊號) 사건 때 일본군함이 난지도 옆을 거쳐 한강을 타고 북상, 22일 중앙에 보고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몇 달 전 일이다.

병인양요와 운요호 사건, 두 사건이 즉시 보고된 것을 보면 간이봉수라도 있었을 것 같다.

난지도는 지대가 낮아 아늑 짓이고 필자는 최단거리 육지인 금산으로 본다. 금산은 범머리산 혹은 호두산(虎頭山)이라 고도 불렀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금산에 망루와 봉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봉수는 국내의 전체 봉수를 계통적으로 집성한 『한국의 성곽과 봉수·상·중·하』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양선 침범을 보고 받기 위한 연변봉수(沿邊烽燧)의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변봉수란 국경선이나 해륙 연변에 제1선을 설치하여 기점 구실을 하였다. 통신이외에 국경의 초소와 수비대 기능도 가졌다.



난지도 포구에서 어망을 손질하는 모습
멀리 보이는 섬이 금산(호두산)이다.

1887년 11월 25일 난지도의 전조창에서 한양으로 운송하는 세곡의 분실과 도난이 빈발하자 조정은 부평부사 조병하(趙秉河)를 토포사(討捕使)로 임명했다. 그 시기는 고종 24년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민란이 일어나던 시기, 배가 고픈 우리 고장 선조들이 조금 흠쳤는지, 해적들이 본격적으로 흠쳤는지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본다.

그렇게 조선후기가 지나가고 세곡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폐지되자 난지도는 인구가 줄어들었다. 필자가 기억하는 40~50년 전에는 30여 가구가 어업으로 삶을 영위하였다. 남자들이 잡아온 어획물들을 아낙네들이 머리에 이고 서곶 12개 마을을 돌며 곡식으로 바꿔 갔다. 어획량이 많지 않아 무척 가난하게 살았다. 초등학교 동창들 중 그곳

에 사는 친구가 여럿이었는데 납부금을 내지 못해 집으로 쫓겨가곤 했다.

난지도는 그 후 돈 많은 사람들이 간척사업을 하면서 경서동 사이의 갯벌을 메워 논으로 만들자 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서곶의 섬들 중 가장 먼저 육지화되었다.

다시 부활시킬 만한 문화 콘텐츠로 풍어제를 겸한 도당굿이 있었다. 도당굿은 단순히 말하면 샤머니즘이지만 지난 날 서곶 지방이 가진 마을제였다. 인접한 경서동 연희동 등의 도당굿이 추수감사제 성격을 가진 데 비해 풍어를 기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경서동에는 남서곶 6개 동의 무속을 관장하는 이씨 부자(父子) 무당이 있었고 난점 도당굿도 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소나무 숲에서 용왕에게 어선의 무사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도당 굿은 일부 선주들에 의해 당고사 정도로 축소되었다가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2) 이명수방죽과 사도(蛇島), 까투름

사도는 사렴 또는 뱀섬이라고도 불렸다. 경서동의 서단인 금산에서 남쪽으로 700m, 연희동 용의머리 반도의 서단에서 북서서 800m에 자리잡고 있던 섬이었다. 오른쪽 끝은 남동동으로, 왼쪽 끝은 북서서로 길게 누운 섬이었다. 뱀이 유난히 많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40~50년 전 그 곳에서 백사(白蛇)가 여러 마리 잡혀, 땅꾼들이 드나들었다.

필자의 고향 마을 연희동에서는 물의 끝 용의머리산(용두산)에서 보면 좁은 우측면이 보여 작은 섬 같지만 경서동에서는 달랐다. 중학교 다닐 무렵 여름방학에 경서동 사는 친구들을 찾아 놀러 가면 금산에 가곤 했다. 친구네 원두막에서 가까이 보이는데 연희동에서와 달리 꽤 넓어 보였다.

“저 섬까지 독을 막는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농토가 생기겠지. 그러나 물살이 빨라 못한다. 노인들 말씀을 들으면 여러 번 독을 막으려다가 실패했대.”

경서동 친구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경서동 주민들은 매립시도를 한 것 같다. 그 마을은 인접한 연희동이나 백석동보다 논이 적어 가난했으니까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연희동에서나 금산에서나 뱀섬 사이의 물살이 빨라 독을 쌓기는커녕 배가 다니기조차 어려울 것 같았다.

서곶의 대부분의 섬이 그랬듯이 뱀섬은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으나 경작지도 적고 밀물 때 물살이 빨라 배를 대기 어려웠다. 그래서 민가가 없이 덩그러니 놓

여 있었다.

필자가 인천고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 중반, 토박이 서곶 사람들은 꿈으로만 꾸던 금산 앞바다 매립이 시작되었다. 외지 사람인 김옥창이었다. 이분은 서곶의 역사, 청라도의 연혁, 나아가 인천의 인물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분은 회사를 설립하고 남해에서 포경업과 어업으로 번 돈을 서곶 앞바다 매립에 쏟아 부었다. 저절로 경서동과 연희동 사람들이 그에게서 노임을 받고 독을 막는 공사에 참여했다. 그의 목표는 청라도까지 갯벌을 매립해 수백만 평의 농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공사는 경서동 금산에서 뱀섬의 서단까지, 섬 동단에서 다시 경서동으로 두 개의 독을 쌓는 일이었다. 위에서 말한 바대로 이곳은 밀물 썰물 때 물살이 빨라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공사는 진척이 되어 뱀섬까지 독이 이어졌다. 경서동 출신인 가까운 친구 추태일 형의 회고에 의하면 그 후 독은 바로 북쪽의 섬 까투림으로 뻗어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곳 방죽을 경서동과 연희동 사람들은 ‘이명수방죽’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명수라는 분이 사업권을 넘겨받았던 것이다. 군사정부에서 막 정부가 민간에 이양된 시기에 정치 줄을 잡고 비상한 수단가로 알려진 이명수 사장이 어떤 절차로 김옥창 씨에게 보상을 하고 넘겨받았는지 필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명수 씨는 군의 공병장비를 끌어와 투입하고 미국 정부의 잉여농산물을 방죽 공사의 노임으로 풀어 경서동과 연희동 주민들이 굶주림을 면했던 것은 사실이다.

김옥창 사장과 이명수 사장, 필자가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인천 인물 아카이브’ 작업의 부평, 계양, 서구, 김단 출신 인물들의 발굴을 맡아 집필하고 있으므로 이미 작성한 원고를 옮기면 이렇다.

김옥창(金玉昌 1918~2005)

전남 신안군 신안면 비금도 출생이다. 목포보통학교 4학년 때 지역유지이던 부친이 일본인들의 강압으로 파산하고 흑산도로 이주하자 그곳에 있던 일본수산회사 지사 사환으로 일했다. 그 후 본사가 있는 일본으로 가서 오사카(大阪)상업학교 야간부를 졸업하고 회사 포경부(捕鯨部)에서 8년간 일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중고 포경 어선 2척을 수입해 조선포경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울진 장생포에서 한국 포경산업을 개척했다. 그해 4월 16일 처음으로 작살

을 사용해 고래를 잡고 인천의 철강회사에 발주해 포경포를 장착했다. 120여 마리의 고래를 잡는 등 포경업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나 경남 출신 정치가의 강압으로 사업권을 놓쳤다.

이후 1949년에 서울에서 공동어업이라는 어업회사를 경영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인천 서구로 와서 청라도 갯벌 매립공사를 시작했다. 1964년 천해개발공사 대표로서 청라도까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권을 받았으나 당시 공화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이던 이명수가 구호양곡과 물자를 지원 받는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동업계약을 맺었다. 그 후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 뒷날 이명수 방죽으로 불리게 된 매립사업이 오늘의 청라 국제도시개발의 시작이었으므로 그는 개척자로서의 업적이 있다.

이명수(李明洙 1919~1971)

황해도에서 출생했다. 청년기 삶은 알 수 없다 1964년 여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기록이 있다. 1959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광공민학교를 모태로 학교법인 봉덕학원을 설립했다. 그해 2월 봉영여자중학교를, 1961년 봉영여자상업고등학교(현 영상고등학교)를 개교해 운영했다.

이 학원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자녀와 전쟁고아의 육성사업을 하면서 미군 제 76공병대의 지원을 받아 교사를 신축하고 부대의 잔반을 받아 양돈사업을 펼쳐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재정을 충당했다.

그는 민간단체의 물품을 지원 받아 영세민들에게 배분하는 난민구호사업도 펼쳤다. 그것의 일환으로 청라도로 눈을 돌렸다. 노역자에게 밀가루를 배급하는 난민 정착사업과 자조근로사업장인 청라도 앞바다 매립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1964년 천해개발공사(대표 김옥창)이 신청한 청라도 매립사업권을 놓고 동업계약을 맺고 회사대표가 되었다. 당시 공화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이던 그가 구호양곡과 물자를 지원 받는다는 조건에서였다.

그는 경서동의 금산-장도-일도-청라도-문점도-장금도-소도를 잇는 7,800미터의 방조제를 쌓는 공사에 착수했다. 갯골이 있는 장도-일도, 청라도-문점도, 문점도-장금도 사이 둑이 자주 무너져 난공사가 이어졌다. 서쪽 사람들은

이곳을 ‘이명수방죽’이라 불렀다.

준공을 눈앞에 둔 1970년 12월 갯벌이 공업지구로 변경되어 도로 배수시설 및 해발 10m 높이로 추가 매립하라는 건설부의 명령을 받았다. 결국 매립권을 동아건설에 넘겨주었고 서구 앞바다 매립에서 손을 떼었다. 그가 경서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 즉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청라도와 경서동의 주민들에게 1정보씩 분배하기로 한 약속은 폐기되었다.

그는 아내 이봉덕(李鳳德 1921-2010)을 앞세워 교육사업을 펼쳤다. 1952년 학교법인 봉덕학원을 설립해 서울에서 그가 사망한 후에는 양천여자고등학교(현 양천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학교인 한가람고등학교도 설립했다. 그리고 봉덕학원은 2008년 청라지구에 Dalton외국어학교를 설립했다.

두 분을 사도 설명 글에서 소개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제일 먼저 물이 된 것이 이 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앉은 청라도를 포함한 광대한 매립지가 두 분 주도와 경서동, 연희동, 그리고 청라도 사람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매립되었고, 동아건설이 시공한 것은 그것을 확장해 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인천 서구의 광대한 갯벌이 모두 동아건설에 의해 매립된 걸로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물과 가까운 여러 섬들이 이미 두 분에 의해 물으로 바뀌었다.

『기호일보』는 금년에 들어 여러 차례 청라매립지 사업 관련 보도를 했다. 그 중에는 경서동 사람들이 ‘매립이 완공되면 3,000평씩 나눠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완공 전 동아건설에 넘기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다. 오래 전에 필자도 잘 아는 선배인 경서동의 김 아무개 선배가 동아건설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인천을 대표하는 대기업가 한 분이 청라매립지 앞을 차로 지나다가 동승한 필자도 아는 지인에게 “저기 내 땅도 있네”라고 말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일개 소설쟁이니까 그런 풍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지금은 금싸라기같이 비싼 청라국제도시, 그 곳을 지날 때면 어린시절 푸르게 보이던 청라도의 모습이 떠오른다.

김옥창 이명수 두 분의 주도에 의해 처음 물으로 변한 사도까지의 갯벌은 지금 서부 공업단지(옛 명칭 주물단지)이다. 사도의 1961년 관보 좌표는 동경 126도 38분, 북위

37도 32분이었다.

까투름은 한자 지명이 자치도(雌雄島)였다. 썰물이 많아서 붙은 이름으로 짐작된다. 뱀섬보다 서쪽에 놓였던 섬이다. 이곳도 이명수방죽으로 연결되어 물이 되었다. 1961년 관보의 좌표는 동경 126도 38분, 북위 37도 31분이다.

3) 거참도(巨巖島)와 장도(獐島, 노렴)

거참도는 경서동의 서단 금산에서 서쪽 4km,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의 맨 끝이었다. 섬의 바로 등 뒤(서쪽)는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이 있었다.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노렴은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남서 3km, 연희동 용의머리 서단에서 4km 떨어진 섬으로 서곳 사람들은 ‘노렴’이라고 불렀다. 이 섬에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섬’이란 지명이 붙었다가 ‘노렴’으로 축약이 되었고, 한자로 뜻을 살려 장도로 표기했던 곳이다. 꽤 먼 섬이었지만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나갈 수 있었다. 경서동에서 가려면 갯골이 없어 가기 쉬웠으나 연희동에서는 3개를 건너야 했다.

육지에서의 거리는 사도에 비해 4-5배쯤 멀다. 갯벌 3km를 걷기는 매우 힘들다. 더구나 갯골이 있어서 밀물이 빠른 속도로 팽 돌아버리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연희동에서는 노렴에 걸어가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추태일 형의 말을 들으면 경서동 사람들은 밀물과 썰물 사이 서너 시간에 넉넉히 노렴에 다녀왔다고 한다.

그 어려운 갯골을 막아 이명수 사장은 독을 쌓았고 두 섬은 바로 남쪽의 청라도와 함께 육지로 연결되었다.

노렴은 1961년 관보의 좌표가 동경 126도 36분 북위 37도 33분이다.

4) 청라도(靑羅島)와 부근 섬들

지금 국제도시로서 인천의 총아가 된 청라신도시는 청라도만이 아니라 많은 섬들이 포함되고 광대한 갯벌이 포함된 매립지역이다.

청라도는 부평부 모월곶면의 가장 저명한 섬이었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머리반도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다. 해발고도는 67.7m,

면적은 0.79 km²였다. 서곶 사람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렘’이라고도 불렀는데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이기 때문이었다. ‘염’이 사멸된 우리말로써 섬을 말하는 것이었으므로 파란 섬이라는 뜻이다. 파렘은 서곶 앞바다의 섬들 중 가장 컸다.

썰물 때 부지런히 갯벌을 걸으면 밀물이 오기 전 섬에 이를 수 있었다. 원창동에서 가려면 갯골을 3개, 연희동에서 가려면 갯골 5개를 건너야 했다. 청라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의 끝이 되어 버렸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과 이 섬 사이에는 소도(小島), 소문점도(小文占島), 대문점도(大文占島) 등 작은 섬들이 놓여 있었다. 연희동에서는 그것들이 청라도의 일부처럼 보였다. 문점이란 무슨 뜻이었을까. 그 섬들 주변에 문어와 낙지가 많았다는 말씀을 아버지에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아마 문어(文魚)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된다.

청라도의 옛 지명은 고지도에 靑蘿 또는 靑羅로 실려 있는데 넝쿨 라(蘿)인가 벌일 라(羅)인가 따질 필요는 없다. 우리말 지명 ‘파렘’의 혼차이기 때문이다. ‘파렘’은 1911년 발간 『조선지리지자료』에 포구 이름으로 실려 있다. ‘청라’가 한자 뜻도 좋고 어감도 좋지만 국제도시 지명을 지을 때 ‘파렘국제도시’라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연희동에서 보낸 유년시절, 이 섬을 아이나 어른이나 ‘파렘’이라고도 불렀다.

청라도에는 지방 관장의 가렴주구에 대한 전설이 있다.

혹독하게 현물세를 받아낸 이야기이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 물에 사는 관리인인 좌수가 배를 타고 섬으로 왔다. 좌수는 그 섬에서 그렇게 거둔 새우젓 10독 중 2독을 수송비 명목으로 빼고 1독은 자기가 먹고 1독은 세도가에게 상납했다. 나머지 6독은 부평관아에 바쳤다. 그러면 부평 부사는 자기 몫으로 또 2독을 떼어냈다. 나머지 4독을 경기감영으로 보내면 감영에서는 다시 2독을 착취하고 결국 2독만을 호조(戶曹)에 바치었다. 그래서 섬마을은 혹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필자는 이 이야기를 서구의 설화집 『천마와 아기장수 외』에 썼다.

그리고 이 ‘파렘’에 관한 추억이 많다. 6·25 전쟁 때 서곶출장소 부소장이던 아버지가 남쪽 전라도로 탈출하신 뒤 그곳 분들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었기 때문이다. 서

구의 역사일 것이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세 살 때라 기억이 어렵겠지만 누님과 형은 선명하다. 전쟁이 나기 직전 우리 집은 건넌방의 구들을 뜯어내고 다시 깔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 인민군의 서울 점령 소식을 듣고 탈출하시기 전 날 밤, 아버지는 지게로 서류를 가득 담은 가마니 한 개를 지고 와서 내려놓았는데 서곶 12개 동의 호적이었다. 아마 북한군이 노획품으로 가져갈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 혹은 인천시에서 급히 명령을 내렸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당시 한가한 농촌이었던 서곶 지역을 관장하는 출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 주민의 호적이었다. 아버지는 미완성된 구들 골에 호적 담은 가마니를 집어넣고 밤새도록 흙을 발라 덮은 뒤 새벽에 연희동 용의머리 포구에서 어선으로 탈출하셨다. “나는 전라북도로 피해간다” 한 마디를 남기시고.

서곶은 인공 치하가 되었고 우리 식구들은 어머니가 인민군과 내무서에 붙잡혀 시달리느라 피난가지 못했다. 남편 탈출한 곳이 어디야 물으면 들은 대로 전라도라고 대답하셨다. 중학교 다니던 누님들도 심문 받았는데 전라도라고 들었으므로 그렇게 답했다.

어머니는 간신히 풀려 나오셨다. 이틀 후 깊은 밤에 조용히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파렴의 중선배 선주인 김 씨였다. 우리 식구들은 밤중에 용의머리 포구로 나가 그분 배를 타고 청라도에 도착해 김 씨 댁에 숨었다. 그곳 청라분교의 교사 사택에서도 지냈다. 수복된 뒤 알려진 사실, 아버지는 전라도로 가신 게 아니라 인접마을 경서동의 민가에 석 달을 숨어 계셨다. 나는 그래서 청라도를, 아버지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준 고마운 섬으로 기억한다. 서곶 12개 동리 주민의 호적은 우리 집 구들에서 나와 다시 출장소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 필자는 형과 함께 용의머리반도의 돌출된 곳(돌부리라고 불렀다), 조선 말기 연희돈대가 있던 곳에 서서 파렴으로 출장 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여전히 서곶출장소에 근무하신 아버님은 청라도에 출장을 자주 가셨다. 바다 위로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으로 보였고 아버지가 탄 배는 파렴 앞에서 홀연히 나타나 순풍을 타고 물으로 왔다. 대개는 문어와 낙지, 굴 조개 같은 것을 들고 오셨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형과 나는 아버지를 따라 청라도에 갔다. 네 살 때 피난 갔었으니까 7년 만에 간 것이었다. 전쟁 때 우리 식구들을 숨겨주었던 김 씨 아저씨를 방문했고 형과 나는 큰절을 올렸다.

“‘아부지 빨리 태어 와요.’ 했던 꼬마가 그 새 많이 컸구나.”

김 씨 아저씨는 내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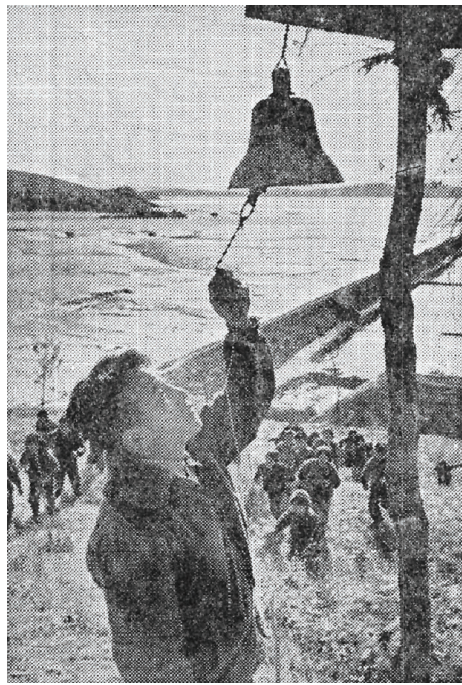
나는 말을 빨리 배운 아이였고, 배를 몰고 물으로 가는 아저씨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때 청라분교는 선생님이 없어서 비어 있었던 듯하다. 그 후 교원을 구할 때도 있고 못 구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이민제라는 선생님이 자진해서 분교장이 되어 청라도 아이들을 가르친 특집기사가 『동아일보』에 있다.

내 고향 연희동과 청라도 사이의 바다는 썰물 때 광활한 갯벌로 변했다. 맛조개가 무궁무진하게 잡혔다. 사리 때는 빠른 속도로 물이 밀려들어와 조개 잡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했다. 6월에는 특히 게가 많이 잡혔다. 연희동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가, 나문재풀에 암수가 매달려 짹짹하는 것을 식은 죽먹기처럼 잡아 망태에 넣었다.

일도(一島)는 문점도보다 컸다. 청라도 등 뒤에 숨듯이 앉아 있던 섬이었다. 위의 호도처럼 육지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매립되어 한국가스공사 기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천북합 화력발전소가 앉아 있다. 그리고 위의 장도와 청라도와 더불어 방조제로 연결되어 서곶의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이명수 방죽이 뚫어졌고 청라도 사람들도 노임을 받으며 일했다. 이명수 사장이 동아건설에 이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형성된 재산이 청라매립지에 ‘청라 Dalton 국제학교’로 문을 열었다. ‘파럼국제학교’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청라분교 이민제 선생님
1967. 01. 04. 동아일보 7면

5) 울도(栗島, 밤염)와 주변 섬들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서남서 2km에 있던 섬이다. 멀리서 보면 밤알처럼 보여 밤염이라고도 불렀다고도 하고 밤나무가 많아서 붙인 지명이라고도 한다. 육지인 원창동의 환자곶 포구와의 사이 드넓은 갯벌에 갯골이 하나 있었으며 해안에서 썰물 때 갯벌을 걸어 섬까지 갈 수 있었다.

지금은 사라져 없는 이 갯골은 계양산에서 발원하여 연희동과 공촌동과 경서동을 스치고 흘러나가는 빈정천이 뺏어간 것이었다. 서곶에서 가장 큰 이 하천은 연희동 용의머리 마을 북쪽 앞바다에서 갯골이 되어서 드넓은 갯벌을 구불구불 가르며 서쪽으로 뺏어, 장금도와 소문점도 사이를 거쳐 썰물 때도 조수가 머무는 큰 갯골에 합류된다. 합류지점은 울도의 남서쪽이었다. 이 갯골은 지난날 어선이 쉽게 정박하는, 서구의 가장 큰 뱃길이었다. 40~50년 전에는 선착장이 있었다. 닭우리 들판도 바다에 방파제를 막기 전에는 갯벌이었을 것이므로 고대에는 밀물이 과기평 마을까지 올라왔고 선착장도 거기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매립지에 포함되었으므로 지금 갯골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필자 부친의 저술 『인천지』에는 울도 관련 설화가 두 개 보인다. 아마도 촌로들의 구비 전승되던 설화를 채록한 듯하다

하나를 조헌(趙憲)의 울도 개척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전공을 세우고 금산(金山)전투에서 전사한 조헌은 김포시 감정동에서 출생했다. 명종 22년(1572)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에 있었는데 한 때는 고향에서 가까운 김포 통진(通津)의 현감을 지냈고 부평에 유배된 적이 있었다. 그가 심문한 죄인이 옥에서 죽었는데 너무 심하게 다뤘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었다. 그때 석곶(남서곶)에 유배를 왔다.

그때 그는 임진왜란을 예언하고 대비했다. 『토정비결』을 쓴 토정(土亭) 이지함(李之涵)과 교유하며 들은 말 때문이었다. 그가 석곶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부친이 별세했다. 그는 죄인이라 거상(居喪)도 못하고 비통해하고 있었는데 친구인 이지함이 위로하러 찾아왔다. 그리고 조헌 곁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이지함이 말했다.

“이상한 느낌이 오네. 잠깐 같이 밖으로 나가세.”

조현은 친구가 도통하고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 얼른 등을 밝히고 앞장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대문을 열면서 소리쳤다.

“토정, 하늘을 보게. 큰 유성이 하늘을 긋고 지나가네.”

토정은 그의 등뒤에서 탄식했다. “불길한 신호일세.”

“뭐가 불길하단 말인가?”

조현은 유성의 자취가 사라진 하늘에 눈길을 보낸 채 물었다.

“십오 년 뒤에 큰 전쟁이 나겠네. 사방에 피가 뿔치겠어.”

“명나라인가 왜인가?”

“왜일 것일세.”

조현은 이지함의 예언을 믿었으므로 울도를 개척하여 대비했다.

또 하나는 「열녀 영렬(永烈)」이라는 설화이다. 200여 년 전, 울도에 영렬이라는 노비가 있었다. 정씨(鄭氏) 가문에 예속되어 16세에 이르렀는데 그 집의 남자종 종인(鍾仁)과 짝을 이루어 금슬 좋게 살았다. 그녀가 19세 되던 해, 남편 종인이 바다에 빠져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식음을 전폐했던 그녀는 남편을 장례 지낸 뒤 자결하여 뒤를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정절을 가상히 여겨 합장해 주었다. 비록 노비 신분이었으나 조정에서도 열녀의 정려(旌閭)를 내려 칭송하였다. 그 정려는 세월이 흐르면서 허물어졌고, 마을 뒷산에 있던 두 사람의 무덤도 없어졌다.

한참 세월이 지나고 이 섬에 1896년에 타운센트 회사가 석유저장고를 만들고, 1898년에는 화약고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13년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역을 삼각측량으로 측지하고 작성한 지도를 보면 울도의 서쪽 끝에 ‘보세창고’라는 기록이 보인다. 망국 이전 대한제국 정부가 인천해관(세관) 관장 하에 이곳에 보세창고를 두었던 것일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항구 앞에 월미도와 영종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세창고를 설치했을 것 같지 않아서이다. 아니면 총독부가 만들었을까? 젊은 향토사가들이 연구해주면 좋겠다.

울도는 적당히 많은 농지를 가진 섬, 포구를 가진 어촌으로 살아갔다. 그러다가 1969년 이후 대규모로 간척사업을 시작하면서 육지가 되었다. 1974년 인천화력발전소가 세워졌고 경인에너지의 정유시설과 발전 시설이 들어앉았다.

울도의 중심, 정확한 지점은 어디일까? 옛 경인에너지, 현 SK에너지 자리이다. 1961

년 국무원 고시 관보 『전국표준지명』의 좌표는 동경116도 37분, 북위 37도 30분으로 ‘밤염’이라는 우리말 지명으로 실려 있다.

원창동 환자곶 바로 앞에 까투림이 있었다. 1913년의 일제 측량지도에 표시된 지명은 자치도(雌雄島)이다. 까투리처럼 생겨서 그렇게 지었거나, 핑이 많아 지어진 지명으로 보인다. 청라매립지 공사로 사라져 육지가 되었고 1961년 관보표시 좌표는 동경 126도 38분, 북위 37도 31분이다.

울도의 동북쪽 가까운 곳에 소염도(小鹽島)라는 섬이 있었다. 1913년 일제측량지도와 1961년의 관보기록은 소도(小島)이다. 정확한 위치는 동경 126도 38분, 북위 37도 31분이었다.

이 섬은 대부분이 포도밭으로 되어 있었다. 1950년대 말, 필자는 아버님을 따라 간 적이 있었다. 지금 기억을 더듬으면 해발 60-70미터의 구릉이 온통 포도나무였다. ‘해풍을 씹어서 최고의 맛’을 가졌다고 하신 아버지 말씀이 생각난다. 이 섬에 ‘큰 지네가 많아 섬 사람네 아이가 물려 죽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도 들었다.

그때 각시당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도둑들에게 목숨을 잃은 처녀의 혼을 달리는 각시당이 1970년대까지 있었다고, 아버지가 『인천지』를 내가 교열해 드릴 때 말씀하셨다. 나는 그 설화를 손질해 서구문화원에서 낸 『천마와 아기장수』에 썼다. 이 섬은 행정동이 원창동이었으며, 1961년 관보 표기 좌표는 동경 126도 38분, 북위 37도 31분이다.

울도와 청라도 사이에 장금도(長金島)라는 제법 섬이 있었다. 장구도, 장구염이라고도 했는데 그 모습이 장구처럼 생겨서 그렇게 부른다고 들었다. 그러나 지도로 본 평면도는 장구 같지 않다. 크기는 소도와 비슷했다. 행정동으로 원창동이었으며 좌표는 동경 126도 37분, 북위 37도 31분이었다.

6) 매립되지 않고 살아 있는 호도와 세어도

서곶과 검단의 바다가 청라 매립지에 포함되어 사라졌지만 호도와 세어도는 남아 있다.

호도(虎島)는 물에서 보면 청라도와 노림[장도] 사이로 멀리 보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두 섬의 서쪽으로 3km나 떨어져 있다.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넓

은 갯골 가운데 앉아있다. ‘범섬’이라고도 했으며, 생긴 모습이 호랑이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볼 수 없었으니 뱃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

호도는 갯골에 앉아 있어서인지 밀물 때나 썰물 때나 큰 배가 다니기 쉽고 정박하기 쉬워서 1871년 5월에는 미국 함대 5척이 강화에서 신미양요를 일으키기 전 며칠 동안 정박했다.

융희 3년(1909)에 이곳에 화약고가 들어섰다. 인천개항과 더불어 신문물이 들어오고 화약류도 수입되었는데 독일계 화사인 세창양행과 미국계 회사인 타운센트사가 울도에 화약 저장고를 짓고 독과점을 하면서 조선 조정에 화약을 팔자 조정이 국영화약고를 만든 것이었다.

이 국영화약고는 다음해 일제에 강제합방되면서 일본 수중으로 넘어갔고 몇 년 뒤 폐지되었다.

그런데 이 시절 호도 관리인들의 사냥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진다.

호도에는 오리와 지네가 유난히 많았다. 섬의 화약을 지키는 관리인들은 지네를 잡아 말려 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렸는데 더 신나는 것이 있었다.

그는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산란기가 되면 청둥오리 수천 마리가 앉아서 알을 낳고 품었다. 관리인이 탕 하고 총을 한 방만 쏘면 오리들은 놀라서 알을 두고 날아갔다.

관리인들은 자루를 메고 다니며 알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육지 저자에 팔아 쓸쓸한 수입을 올렸다.

세어도(細於島)는 인천 관내에서는 물에서 가장 먼 섬으로 청라 매립지에 포함되지 않아 아직 섬으로 살아 있다.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쪽 6km 떨어져 있으며 검단 안동포에서는 4km 떨어져 있어 더 가깝다.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 건너편에 있다. 그러므로 썰물 때 갯벌을 걸어 나가도 이 섬에는 갈 수 없다.

가늘게 늘어진 섬이라 세어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세루, 또는 서천도(西遷島)라는 별칭도 있다. 세루는 ‘서쪽에 멀리 머물다’의 뜻으로 ‘서유(西留)’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세루로 음운이 변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서천은 서쪽 멀리 귀양 가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섬에는 삼남에서 오는 세곡선이 기항했다. 세곡선이란 징수가 끝나 지방 창고에

보관했던 농지세 현물을 서울로 실어가던 운반선을 말한다. 많은 조선들이 한강 수로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이 섬에 기항하였는데 선원들은 여기서 세곡을 빼돌렸다.

세금 운반선의 기항지이고 보니 그런 부패 행위가 섬을 활기 있게 바꾸어 놓았다. 강화에서 온 정 씨, 김포 양촌에서 온 채 씨, 영종도에서 온 김 씨 등이 주막과 객주집을 짓고 들병이 여자들을 데려와 술을 팔기 시작했다. 그들은 톡톡한 재미를 보았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주해 와 세어도는 한 시기에 70여 호가 넘는 큰 마을로 변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1783년 6월 충청도 결성현(結城縣)에서 수곡한 세곡미 1,039석을 신고 세어도에 정박한 운반선이 폭풍으로 침몰했다.

세어도의 객주집 주인들은 미인계를 내세워 도사공과 관리들을 사로잡았다.

여자들의 관능에 마음을 빼앗긴 도사공과 관리는 침수되지 않은 벼 582석과 콩 53석은 국고에 납부, 나머지 400석은 침몰한 것으로 결손 처리했다. 그 덕분에 섬 주민들이 침몰한 곡식을 건져 식량으로 사용하였다.

구한말 개화와 함께 현물세의 관리방식이 달라지고 세곡선의 기항도 그치게 되자 섬은 다시 한적한 어촌 마을로 변했다.

세어도에는 썰이 유난히 많았다. 썰들은 탕 하고 충성을 올리면 놀라서 바위틈이나 덩굴에 머리만 처박고 숨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첩하게 손을 뻗어 그것들을 잡아 자루에 담기만 하면 되었다.

지금 세어도는 행정동이 서구 원창동이다. 전체면적은 12만평이라던가. 20여 가구가 산다. 소나무숲과 갈대숲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서구에서는 청라국제도시-초지대교 간 해안도로 선착장에서 행정선을 타면 된다. 송어가 많이 잡혀 서곳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초겨울이면 송어를 먹으러 가곤 했다.

7) 길무도와 안동포의 섬들

검단도 길게 해안을 끼고 있는 터라 연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있었다. 안동포 앞에 서서 보면 바로 드넓은 갯벌 건너 눈앞에 면도(免島)가 보였다. 우리말 지명으로 토끼섬이라 불렀다.

서남쪽으로는 큰 섬 길무도(吉舞島)가 보였다. 어디서 온 어원일까. 검단 토박이들

은 질염이라고 불렀다. 국어에서 ‘길’이 구개음화되어 ‘질’로 변하는 것은 일반적 원칙이다.

오류동 해안에서 보면 북쪽부터 봉도(朋島), 육도(陸島), 축도(丑島) 등이 보였다. 갯벌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밀물과 썰물이 빠르게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이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드넓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와 맛조개를 잡았으며, 썰물을 따라서 섬까지 걸어가 한두 시간 일을 보고 밀물 앞에 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섬들은 서해안 매립 사업으로 거의 모두 사라졌다. 물론 이 매립 사업으로 인해 검단은 면적은 크게 늘어났지만 바다와 갯벌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그리고 옛 북서곶 앞바다와 함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되면서 천만 인구의 쓰레기를 받아 안아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었다.



멀리 보이는 산이 토끼섬



안동포 고깃배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8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¹⁾

1) 세어도 관련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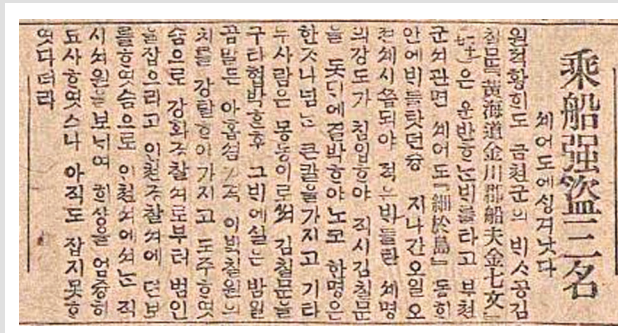
『매일신보』 1919. 12. 10. 3면

乘船強盜三名 세어도에 생겨났다

원적 황해도 금천군의 뱃사공 김칠문(27)은 운반하는 배를 타고 부천군 서관면 세어도(細於島)동해안에서 배를 탔던 중 지나간 5일 오전 3시쯤 되야 적은 배를 탄 3명의 강도가 침입하여 직시 김칠문을 돛대에 결박하여놓고 한명은 한자나 넘는 큰 칼을 가지고 기타 두 사람은 몽둥이로써 구타협박한 후 그 배에 실은 밤 일곱말 든 아홉섬사섯 이백칠원의치를 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였으므로 강화경찰서로부터 범인을 잡으라고 인천경찰서에 전보를 하였으므로 인천서에서는 즉시 사원을 보내 여 희상을 엄중히 조사하였으나 아직도 잡지 못하였다더라.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1) 원문을 그대로 실었으나 기사를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한자는 삭제하였고, 띄어쓰기는 현재에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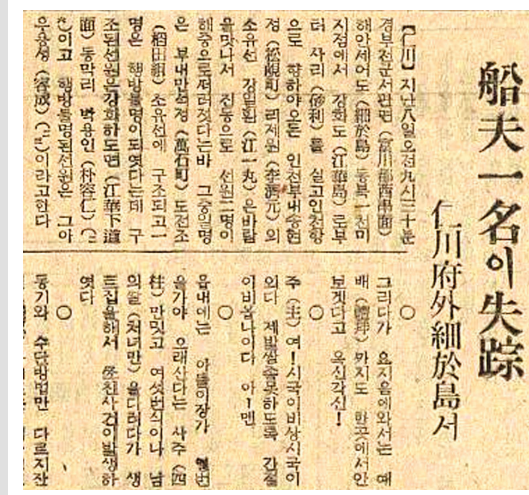


『매일신보』 1919. 12. 10. 3면

『매일신보』 1939. 05. 13. 3면

船夫一名이失踪 仁川府外細於島서

【仁川】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경 부천군 서곶면 해안 세어도(細於島) 1천미지점에서 강화도(江華島)로부터 사리(砂利)를 싣고 인천항으로 향해야오든 인천부내 송현정(松峴町) 리제원의 소유선 강일환은 바람을 맞아서 진동으로 선원 2명이 해중으로 떠러졌다는바 그 중 1명은 부내 만석정(萬石町) 도전조(稻田組) 소유선에 구조되고 1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데 구조된 선원은 강화하도면(江華下道面) 동막리 박용인(26)이고 행방불명된 선원은 그 아우 용성(23)이라고 한다.



『매일신보』 1939. 05. 13. 3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매일신보』 1941. 03. 28. 3면

“집업는天使”의 樂園 仁川府，細於島에建設準備

【仁川】거리에서 해매는 고아의 수가 해마다 느려가서 艱生관에 전부수용할 수 업스므로 인천부에서는 그들을 좀더 인간미있게 교양시켜 인적자원 부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져 仁川 細於島에 이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부의 일반예산에서 건축비를 거출하고 일반유지의 기부를 받아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고아들의 낙원을 건설하기로 되어 今春부터 공사를 착수하리라는바 그지도에대해서도 경찰부국과 상의해서 적절한 시설을 한 후 소학교 정도의 교육을 시켜가며 생산 확충에도 도움이 될 만큼 직업교육을 시키리라한다.



『매일신보』 1941. 03. 28. 3면

『매일신보』 1941. 08. 02. 3면

更生館新築移轉 北仁川細於島로

【仁川】백여 부랑아를 수용하고 잇는 인천 艱生관은 벌써 그곳 출신으로서 직공 등으로 일개의 완전한 사회인이 된 자도 적지안아 인천으로서는 오즉 하나밖에 없는 부랑아의 교화기관인데 이는 부내 松林町에 잇서 너무나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곳이라 수용상 많은 지장을 일으키고 있음으로 기지를 북인천항 細於島로 옮기고 사옥도 15,000원을 드리어 이상적 설비를 하기로 되어 지난 30일에 입찰까지 마쳐서 不日內에 기공키로 되었음으로 늦어도 今年 秋期에는 이사케 되리라한다……



『매일신보』 1941. 08. 02. 3면

2) 일도 관련 기사

『매일경제』 1990. 02. 13. 1면

일도화전 주기계 미GE사에 낙찰

韓國電力公社는 12일 仁川市 一島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기계부문 국제입찰에서 美國의 GE(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一島火電 주기계
美GE社에 낙찰
韓國電力公社는 12일 仁川市 一島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기계부문 국제입찰에서 美國의 GE(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입찰에는 美國의 GE, WH(웨스팅하우스), 스위스의 ABB, 서독의 KWU社 등 4개社가 참가했다. 一島복합화력발전소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며 총공사비 3천9백10억원을 들여 9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1990. 02. 13. 1면

입찰에는 美國의 GE, WH(웨스팅하우스), 스위스의 ABB, 서독의 KWU社 등 4개社가 참가했다. 一島복합화력발전소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며 총 공사비 3천9백10억원을 들여 92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1990. 03. 13. 14면

11개 西海岸사업 4조원 투입기로

정부가 추진할 서해안개발사업 가운데 인천지역사업은 南洞공단 조성 등 11개이며 이들 사업에는 오는 2천1년까지 모두 4조5천6백54억원이 투자된다.

仁川市の 서해안관련 개발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一島발전소 건설에 98년까지 6천7백10억원이 투입된다.

仁川시의 서해안면 개
발사업을 내물들도 보면 △
남동면의 경우 2천3백
91억원이 투입돼 오는 91
년까지 9백33만7천평을
조성하며 △서해안 고속도
로 건설을 위해 2조1천4
백17억원을 들여 오는 97
년까지 2~4차선, 총연
장 4백83km의 도로를 건
설한다"고 것이다.

또 제2차(仁川고속도로 6
차선·연장14·3km) 건설
에 1천60억원을 들여 오
는 94년까지 완공하고 △92
년까지 仁川고속도로 확장
에 5백65억원을 투입하며
△97년까지 2천9백60억
원을 들여 九老~仁川간
화한다.

이밖에 △오는 2천1년
까지 공항을 잇는 고속전
철 48km가 건설되고 仁川
港의 처리능력을 2천3백
만톤에서 3천2백만톤으
로 늘리며 △仁川 佳佐하수
처리장(1일 19만톤처리)
건설에 올해말까지 5백67
억원(仁川 습기하수처리
장 1일 27만톤처리) 건설
에 93년까지 6백25억원
△一島발전소 건설에 98년
까지 6천7백10억원이 투
입된다.

11개 西海岸사업
4조원 투입키로
전부가 추진할 서해안개
발사업 가운데 仁川지역사
업은 南洞공단 조성용 11
개이며 이들 사업에는 오
는 2천1년까지 모두 4
조5천6백54억원의 투자

『매일경제』 1990. 03. 13. 14면

『매일경제』 1990. 03. 20. 6면

4조6천억 상당 發電설비 韓電 韓重에 발주

경영정상화 일환...5년에 걸쳐

韓電은 19일 韓國重工業의 경영정상
화를 위해 오는 94년까지 5년간 신규발
전소건설 규모의 대부분인 4조6천억원
상당의 물량을 韓重에 발주키로 했다.
다만 올해 발주할 5기의 발전소물량 중
一島LNG복합화력 月城原電 2호기 분
당·평촌 熱병합발전 등 4기는 제외, 국
제경쟁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이들은
韓重의 제작능력을 상회하거나 工期가
임박한 것들이다.....

『매일경제』 1990. 03. 20. 6면

4조6천억 상당 發電설비
韓電 韓重에 발주

경영정상화 일환...5년에 걸쳐

韓電은 19일 韓國重工業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94년까지 5년간 신규발전소건설 규모의 대부분인 4조6천억원 상당의 물량을 韓重에 발주키로 했다. 다만 올해 발주할 5기의 발전소물량 중 一島LNG복합화력 月城原電 2호기 분당·평촌 熱병합발전 등 4기는 제외, 국제경쟁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이들은 韓重의 제작능력을 상회하거나 工期가 임박한 것들이다.

정부는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같은 韓電
발전소물량중 一島LNG
의 신규발전소 발주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韓電은 이와 함께 韓重과
의 계약에는 기존 보유금
에 차감되는 금액을
제상금으로 점검시켜 주
기로 했다.

振興는 다기능 자동차엔
진으로(원료)인 시리
조(사산) 판매에 나섰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매일경제』 1990. 04. 13. 1면

電力料 계절별 차등세 韓電 내년부터 업무용

한전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계절별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92년 이후로 예정된 一島 LNG(천연가스) 2基, 화력발전소건설을 1基와 함께 올해 착공, 92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電力料 계절별 차등세
韓電 내년부터 업무용
韓電은 늘어나는 전력수
요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계절별차등요금제를 도입
하는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
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92년이
후로 예정된 一島 LNG
G(천연가스) 2基 화력발
전소건설을 1基와 함께
올해 착공, 92년까지 준공
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1990. 04. 13. 1면

『동아일보』 1990. 05. 03. 7면

LNG 物量 확보 非常

신도시 發電用 가정연료등 수요급증
中長期 도입계약 비축기지 건설 시급

분당, 일산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과 가정용 연료의 가스전환가속화 등으로 LNG(액화天然가스)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LNG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발전용LNG는 仁川 一島복합화력 1호기가 내년 말부터 年65만t △盆唐, 一山, 坪村신도시발전용이 92년부터 각각 연15만t씩 45만t이 소요돼 오는 92년부터는 발전용만 1백만t이상의 LNG가 추가로 필요하다.



『동아일보』 1990. 05. 03. 7면

여기에 가정용 LNG는 올해 54만t에서 92년엔 74만t △93년 86만t △94년엔 1백만t으로 늘어나게 돼 국내 LNG수요는 폭발적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매일경제』 1990. 05. 17. 6면

一島 종합火力 건설 韓重・美GE와 계약 韓電 2천억규모

韓國電力은 16일 하오 서울 본사에서 2천억원 상당의 一島복합화력발전소건설 美GE(제너럴일렉트트로닉)社 및 韓國重工業과 체결했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이날 계약에서 GE사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부문을, 韓重이 보일러설비를 각각 맡게 되었는데 계약금은 GE사가 2억달러(1천4백억원), 한중이 6백억원이다.

仁川市 서구 경서동에 건설될 一島복합 화력발전소는 94만kW급의 시설용량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한다.

韓電 2천억 규모
韓國電力은 16일 하오 서울 본사에서 2천억 원 상당의 一島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美 GE(제너럴 일렉트릭)社 및 韓國重工業社와 맺었다.
이날 계약에서 GE社는 가스터빈과 증기터빈부문을, 韓重이 보일러설비를 각각 맡게 되었는데 계약금은 GE社가 2억 달러(1천4백억원), 韓重이 6백억원이다.
仁川市 서구 경서동에 건설될 一島복합 화력발전소는 94만kW급의 시설용량으로 LNG(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한다.

『매일경제』 1990. 05. 17. 6면

『매일경제』 1990. 05. 30. 3면

에너지도 過消費...수급 黃色경보

長期계획 근본적修正 불가피

산업용 주춤 가정·서비스 부문 크게 늘어

「한燈끄기」옛말...증가율 경제성장 웃돌아

에너지수급에 黃色경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계속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에너지부문에서까지 過消費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급전망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92, 93년의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一島화력발전소 2호기를 앞당겨 준공기로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만 해도 4천억원에 달한다.

93년까지 발전소 및 발전용량은 △남제
주 내열 1, 2호기 20만kW, 3, 4호기 2만kW,
5, 6호기 2만kW △강릉, 주암, 임하, 남강의
4개 수력발전소 1백62만kW △一島복합화력
1, 2호기 1백88만kW ……

93년까지

중단했던 油類발전소도 재가동

부정상품 판매 부정산과회의
를 열고 이산(內)내역의 전적
발견을 위하여 廣州 內藏

安養 盆唐 열병합 保寧 화력 江陵 수력 등
93년까지 완공될 발전소

[illegible]

KW 5.6개지 2단KW △한려
住居 蘆河江口의 4개全洞
을包진全一洞 62단KW
△安養留置場 1.2호지 1棟 88단KW
△安養留置場 1호지 30단KW,
2호지 15단KW △徐福留置場 1
호지 40단KW, 2호지 20단KW
△保寧留置場 3.4호지 1棟 1단KW
△三斗浦留置場 56단KW △山
留置場 60단KW △富川中洞留
置場 45단KW等이다.

『동아일보』 1990. 06. 12. 7면

『동아일보』 1991. 01. 14. 7면

安定-成長기반확충대책 내용

..... 에너지

△빠르면 4월부터 휘발유 등유가격 자유화 등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자유화추진
△전기요금체계를 조정, 요금의 누진율 확대, 하계휴가 요금제 도입 △중장기 전력
수급안정위해 93년까지 일도 2호기 등 발전소12기(3백8만6천kW)를 추가건설

물기안정 △지방의회 선거시새로운 지역개발공사업이 부흥 산후기산리를 자극하지않도록 민자개발과 민자개발조 대용△6대도시민자개발조의 주택자료電算化를 3월말까지완료△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극세청및대검청의 부흥산후기산리를대폭간편

原州、水原、南 등 5개고속도로구간확장 ⑨제2京仁고속도로板橋、安養、仁川、安山、龜浦、樂山 등 4개고속도로구간건설 ⑩幸

養市等 12개대도시 관공도올해 완공△釜山전역이노부두 배후수출입화물

단자사업추진등을 금융산 업구조개편 △실비자립화 대용금||제정입법 19년 16조원확대, 총인조원의 40%를 자립화 △외소보단제노

安定-成長기반확충대책 내용

州、陵谷 등 9개구간구간 확장및포장 91년완공 ④牛月、車浦 등 53개구간구간 확장및 포장 92~93년완공 ⑤1번국도와 연결되는安

「12월말잔 분기발판인도 변경」과연된다 17~19%의 이윤△스택의점진적자유화추진, 국민구조를「단기低利 장기高利」화한다△

를 개편, 제조업자외확대 △제정입법 1월 중 주요업종별 경쟁력향상에로 유인 해소를 위한 세부방

안을 확정 시행 △자율화 정도화사업의 전산입화산 을유인하여유해 6천5백여원기타 신규조성 △재벌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업종 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동 세제상 혜택및 규제를통 해 업종전문화를 추진 △정

기관인 年俸制 도입을 임금 제도개선추진△입법전도기 업중점지도△소비성서비스 업 소득표준화 산화조정 △유류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여자연소자의 약감도로 제한 △十高生현장체험인 문도차용현장체험 등 산화

△배려민 4 등유가격 자유화등 예노지 가격의 단계적 자유화추진 △전기요금체계를 조정요 구 19년 부진화현상 대, 하계휴가 유제도와△유류가 수급안정유해 93년까지 1 8백2천가등 발전소12기3 백8만6천KW를 추가건설

仁川 一島・平澤발전소 내년7월 앞당겨 완공

정부는 내년 여름전력사정이 올해처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2년 말~93년 중 완공예정인 발전소가운데 2기를 내년 7월까지 앞당겨 완공, 공급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17일 동자부에 따르면 92~93년 준공예정인 발전소는 모두 14기(용량 6백85만 kW)로 이 가운데 3기는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나머지 11기 중 인천 一島스팀터빈 발전소(16만kW)와 평택가스터빈발전소(30만kW)는 준공시기를 5~12개월 앞당겨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발전소 2기가 조기완공 될 경우 내년도 연평균 예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6.9%에서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仁川 一島・平澤발전소
내년 7월 앞당겨 완공
정부는 내년 여름전력사
정이 올해처럼 어려울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2년
말~93년 중 완공예정인 발
전소가운데 2기를 내년 7
월까지 앞당겨 완공, 공급
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17일 동자부에 따르면 92
~93년 준공예정인 발전소
는 모두 14기(용량 6백85
만 kW)로 이 가운데 3기는
내년 6월까지 완공하고 나
머지 11기 중 인천 一島스
팀터빈발전소(16만 kW)와
平澤가스터빈발전소(30만
kW)는 준공시기를 5~12
개월 앞당겨 내년 7월까
지 완공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발전소 2기가
조기완공될 경우 내년도 연
평균 예비율이 당초 예상
했던 6.9%에서 .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 1991. 01. 14. 7면

평택-서인천火電 早期완공

올 제한送電 대비

정부는 올 여름철 제한송전 등 전력비상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택화력, 서인천(一島)화력발전소 건설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한편 전기 多소비업체 및 초대

형건물에 대한 수요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일산열병합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여름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전력수급은 별도대책이 없을 경우 공급능력 2천1백857천kW, 최대수요는 2천1백33만4천kW로 예비전력이 52만3천kW, 예비율은 사상최저인 2.5%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공급능력 확충 및 수요억제로 예비율을 9%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택화력(발전용량 35만kW) 준공시기를 내년 6월에서 올 6월로 △서인천화력(一島, 16만kW)은 금년 말에서 오는 7월로 각각 앞당겨 전력성수기 이전에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발전소 보수주기와 기간을 조정, 기존발전소의 전력생산 감소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1만kW 이상의 2백66개 전기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매일 수요관리를 실시하고 초대형건물에 대해선 여름철 전기수요 특별 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올해 전력수급은 별도대책이 없을 경우 공급능력 2천1백857천kW, 최대수요는 2천1백33만4천kW로 예비전력이 52만3천kW, 예비율은 사상최저인 2.5%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공급능력 확충 및 수요억제로 예비율을 9%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시했다.

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전력수급은 별도대책이 없을 경우 공급능력 2천1백857천kW, 최대수요는 2천1백33만4천kW로 예비전력이 52만3천kW, 예비율은 사상최저인 2.5%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공급능력 확충 및 수요억제로 예비율을 9%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평택화력(발전용량 35만kW) 준공시기를 내년 6월에서 올 6월로 △서인천화력(一島, 16만kW)은 금년 말에서 오는 7월로 각각 앞당겨 전력성수기 이전에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발전소 보수주기와 기간을 조정, 기존발전소의 전력생산 감소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1만kW 이상의 2백66개 전기 다소비업체에 대해서는 매일 수요관리를 실시하고 초대형건물에 대해선 여름철 전기수요 특별 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일산열병합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여름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일산열병합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여름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일산열병합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여름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오전 일산열병합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여름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동아일보』 1992. 05. 20. 7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3) 울도(栗島) · 청라도(靑羅島)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23. 10. 03. 3면

밀가루運搬中

칠십여부대를
흙친자는잡혀

부천군 서곶면 고잔리
십일번지 뱃사공 김영조
(40), 박성근(42), 김순굴
(33), 리성복(21) 네 명은
지난날 십삼일 인천부 궁
덤시상상덤의 밀가루 팔백부대를 운반한다 하면서 여러 번에 나누어 칠십여부대
(시가삼백여원)를 흙치어 청라도(靑羅島)에 빼어놓고 다른부대의 것을 빌려 담은
사실이 발각되야 방금 인천조사중 이라더라(인천)

밀가루運搬中
칠십여부대를
흙친자는잡혀
부천군 서곶면고잔리 십일번지
(富川郡西串面高棧里) 뱃사공
영조(金永兆)(40) 박성근(朴聖
根)(42) 김순굴(金順窟)(33) 리
성복(李成福)(21) 네명은 지난날
십삼일 인천부 궁덤시상상덤(仁
川宮町矢上商店)의 밀가루팔백
부대(袋)를 운반한다 하면서 여러
번에 나누어 칠십여부대(시가삼
백여원)를 흙치어 청라도(靑羅
島)에 빼어놓고 다른부대의 것을
빌려 담은 사실이 발각되야 방금
인천조사중 이라더라(인천)

『동아일보』 1923. 10. 03. 3면

『동아일보』 1934. 12. 08. 3면

火藥庫 섬에 發火로 騷動

【인천】인천서(仁川署)에서는 지난六일 오후九시경 인천 근해에 있는 부천군 서
권면 밤섬(栗島)에 불이 낫다는 보고를 받고 동섬에 화약고가 있는만치 대경실색하
야 소방수 3명을 대동하고 묘전(墓田)보안주임이 경비선으로 급행하였는바 전기
밤섬의 맞은편굴섬(礪島)에 있는 인천부중정(仁川府仲町) 송전덕차랑(松田德次郎)
의 소유화약고 고지기 김장운(31)의 집에 동일오후 8시 20북경 발화하여 동11시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20분경에 동초가 1동을 전소하여 버리었다는데 손해는 1백여원이라는바 전기 김장윤은 이인적이면 섬에서 홀로 이 화약고를 보아주고 근근히 생명을 이워가든 것이라 한다.

**火藥庫 섬에
發火로騷動**

〔인정〕 김장윤(金長允)의 집에
지난달 일 오후 9시경 인천군해에
있는 부천군서면(富川郡西車
面)발섬(髮島)에 불이났다는보고
를 받고 동섬에 화약고가 잇는
치대정(池臺)에서 소방수 3명을 데
리고 모전(幕田)보안중대에 경
비선으로 급행하였으나 전기발섬
의 마진(馬津)섬(獨島)에 잇는 인
천부중정(仁川府仲町)송전탑차량
(松田德次郎)의 소용화약고 고
지기 김장윤(金長允)의 집에
동일오후 8시 20분경 발화하여
동초 1시 20분경에 동초가 1동
을 전소하여 버리었다는데 손해
는 1백여원이라는바 전기 김장
윤은 이인적이면 섬에서 홀로 이
화약고를 보아주고 근근히 생
명을 이워가든 것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4. 12. 08. 3면

『경향신문』 1949. 07. 26. 2면

등대를 신설

전남 무안군 흑산면 소흑산도(全南務安
郡黑山面小黑山島) 소재인 흑산도 등대와
전남 맹골군도(全南孟骨群島) 소재인 죽도
등대(竹島燈臺)급, 황해도 대청군도(黃海
道 大靑群島) 소재인 소청도 등대(小靑島
燈臺)는 각각 지난 6월부터 점등되었고 경
기도 부천군 울도(京畿道富川軍栗島) 소재
인 울도등대(栗島燈臺)는 지난 6월에 또한
동군 령흥도(靈興島) 소재인 영흥도등대(靈興島燈臺) A오급 B삼오는 지난 5월에
동군「우치섬」등대는 지난 7월에 각각 신설되었다 한다.

燈臺를新設

전남 무안군 흑산면 소

흑산도(全南務安郡黑山面小黑山島) 소재인 흑산도 등대(竹島燈臺)급, 황해도 대청군도(黃海道大靑群島) 소재인 소청도 등대(小靑島燈臺)는 각각 지난 6월부터 점등되었고 경기도 부천군 울도(京畿道富川軍栗島) 소재인 울도등대(栗島燈臺)는 지난 6월에 또한 동군 령흥도(靈興島) 소재인 영흥도등대(靈興島燈臺) A오급 B삼오는 지난 5월에 동군「우치섬」등대는 지난 7월에 각각 신설되었다 한다.

『경향신문』 1949. 07. 26. 2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경인종합개발기본조사앞서 “밤섬”을현지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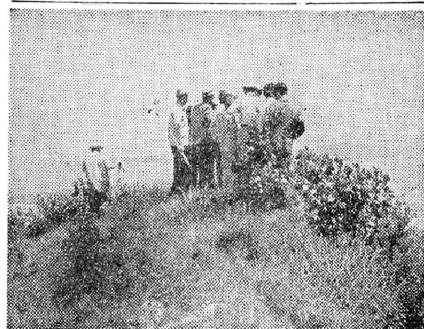
埋沒工事의 立地の條件打診

경인지역종합개발기본조사를 건설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건설기술단」은 27일 기본조사에앞서 밤섬(栗島=仁川 月尾島와 芍藥島 맞은 편에 있는 두 섬)의 현지조사를하였다.

경인지역종합개발계획설계 도안자(圖案者)인 이희준씨(한국건설고문)를 비롯하여 황정철사장과 토목 및 건축업 항만측량기사, 도로 및 수리관계 전문인사 등 11명은 중앙국토건설국 인천항만소장의 안내로 「밤섬」 일대를 두루 살폈는데 이날 이희준씨는 밤섬과 서인천사이의 바다 400만평을 매몰하는데 있어 입지적 조건의 장애는 전혀없다고 말하고 매몰공사비로 평당 5백원이 소요된다고 말하면서 「미아리」 대지(垓地)가 평당 3천원을 호가하고있음에 비추어 비교가 안 되는 파격적인

京仁地域綜合開發基本調査
奉命 建設部로부터 委任
한 韓國建設技術團은
27日 基本調査에 앞서 밤
섬(栗島=仁川 月尾島와 芍
藥島 맞은 편에 있는 두 섬)
의 現地踏査를 하였다
京仁地域綜合開發計劃設
計 團長 李國峻氏(韓
國建設顧問)를 비롯하여
黃正哲社長과 土木 및 建築
業 專門 技術者 道路 및 水
利 專門 技術者 11名은
中央國土建設局仁川港灣所
의 案内로 「밤섬」 일대
를 踏査한데 이 李國峻氏
는 밤섬과 西仁川사이의
바다 400萬坪을 埋沒하
는데 있어 立地의 條件의 障
碍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埋沒工事費도 平당 5백원
이 소요된다고 말하면서 「미
아리」 垓地가 平당 3千원
을 호가하고있음에 비추어
比較가 안 되는 破格的인 價
格의 工事費라고 主張한다
備와 踏査結果를 踏査地
의 踏査報告書에 添付

「밤섬」을 현지답사 埋沒工事의 立地の條件打診



<「밤섬」을 踏査하는 技術員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염가의 공사비라고 주장한 다음, 수륙을 통한 교통의 완비와 적격성을 갖춘 대지수
도시설 등의 완비로 훌륭한 공업지대를 이룩할 수가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월미도(月尾島)와 영종도(永宗島)를 연결하려는 「스미스」안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하였는데 건설부 당국은 전기(前記)
이희준안과 「스미스」안을 검토 중에 있다.

『경향신문』 1962. 10. 16. 6면

無醫島 순회診療

【仁川】인천시 보건당국에서는 18일 진료반을 파견하여 울
도(栗島), 세어도(細魚島), 청라도(淸羅島) 등 무의도서를 순
회하며 진료를 실시하리라 한다.

그런데 이 3개 도(島)에는 약 6백여 명의 진료대상자가 있
으며 인천시 당국 주관으로 인천보건소, 부평보건소, 경기도
인천도립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원으로 진료반을 구성
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할 것이라 한다.

『경향신문』 1962. 10. 16. 6면

【仁川】인천시 보건당국		無醫島 순회診療
약 6백여명의 진료대상	그런데 이 3개 도에는	이 3개 도에는
실시할 것이라 한다.	실시할 것이라 한다.	실시할 것이라 한다.
울 구성하여 순회진료를	울 구성하여 순회진료를	울 구성하여 순회진료를
사과 간호원으로 소속된 의	사과 간호원으로 소속된 의	사과 간호원으로 소속된 의
도립병원 등에 소속된 의	도립병원 등에 소속된 의	도립병원 등에 소속된 의
부평보건소, 경기도 인천	부평보건소, 경기도 인천	부평보건소, 경기도 인천
주관으로 인천보건소,	주관으로 인천보건소,	주관으로 인천보건소,
자가 있으며 인천시당국	자가 있으며 인천시당국	자가 있으며 인천시당국
세	세	세
栗島(栗島) 청라도(淸羅島)	栗島(栗島) 청라도(淸羅島)	栗島(栗島) 청라도(淸羅島)
울도(細魚島) 등 무의도서를	울도(細魚島) 등 무의도서를	울도(細魚島) 등 무의도서를
순회하며 진료를 실시하리라	순회하며 진료를 실시하리라	순회하며 진료를 실시하리라
한다.	한다.	한다.
외하더	외하더	외하더
라 한다.	라 한다.	라 한다.
어도(栗島)	어도(栗島)	어도(栗島)
전하여	전하여	전하여
18일 진료반을 파	18일 진료반을 파	18일 진료반을 파
는	는	는

『경향신문』 1963. 04. 26. 6면

絶糧危機 救援호소

凶漁에 몸부림치는落島

【仁川】25일 서곶출장소로부터 인천시 당국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인천시 행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정구역으로 되어있는 인천의 細魚島, 울
島, 靑羅島 등 3개 낙도 영세어민들은 요
즘 절량위기에 빠지고 있어 시당국의 긴급
구호를 바라고 있다 한다.

이들 3개도에서는 6백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어로작업으로 생활을 지탱해
오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해수의 저온으
로 어획이 전무한가 하면 울島의 명물인
「주꾸미」와 「세어도」의 「새우」잡이 마저
부진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런데 이 섬들은 교통이 불편하여 사방사업으로 구호혜택을 받기란 곤란한 실정으
로 이 점을 참작하여 인천시 당국에서는 구호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3개 도
서의 영세어민 수는 울島 38가구 2백70명, 靑羅島 46가구1백76명, 細魚島 30가구
1백93명이다.



『경향신문』 1963. 04. 26. 6면

『경향신문』 1966. 09. 01. 4면

總事業費 7百94億計上

서울-仁川特定지역 建設종합計劃마련

運河・多目的댐등

高速道路와 9個衛星都市도

19個年계획, 年内엔 公告

국토계획심의회는 31일 하오 서울~인천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제1차분)과 제주
도특정지역지정안을 심의, 건설부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인특정지
역계획은 제1차로 5개부문(항공 철도 등은 제2차로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용지 교통 운수시설 수자원 개발 등 3개 계획의 총사업비로 도합 7백94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경인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이 계획은 1개의 운하, 7개의 고속도로 2개의 다목적「댐」건설과 서울의 재정비, 9개의 위성도시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67년부터 85년까지 19개년 동안을 실시기간으로 이 계획은 곧 대통령이 계획공고를 하게 되는데 늦어도 금년 내에는 공고하리라한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사업비)

◇용지계획(1백80억원)

▲중공업지(20km²)=인천시의 佳佐동~元倉동~栗島~景西동一島~景西洞 獐島~景西洞 高械리를 연결하는 서해안지구

▲경공업지(10km²)=仁川市 富平지구(曉星동 葛山洞 三山洞 桂山洞 瑞雲동)

▲농지조성(61km²)=仁川市 景西동 律島~金浦군 金단면 巨簷島~金浦군 大串면 浦內嶼를 연결하는 金浦군서해안지구

總事業費 7百94億計上

서울-仁川特定지역 建設종합計劃마련

19個年 계획, 年內公告

▲용지계획(1백80억원)
○용지계획(1백80억원)
○중공업지(20km²) 인천시 佳佐동~元倉동~栗島~景西동一島~景西洞 獐島~景西洞 高械리를 연결하는 서해안지구
○경공업지(10km²) 인천시 富平지구(曉星동 葛山洞 三山洞 桂山洞 瑞雲동)
○농지조성(61km²) 인천시 景西동 律島~金浦군 金단면 巨簷島~金浦군 大串면 浦內嶼를 연결하는 金浦군서해안지구

運河多目的의댐등

高速道路와 9個衛星都市도

▲운하구축 4개구간(1. 仁川市 佳佐동~元倉동, 2. 元倉동~栗島, 3. 栗島~景西동, 4. 景西동~巨簷島)의 運河구축을 위한 運河구축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계상한다. 이 運河구축사업은 1967년부터 1985년까지 19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한다.

▲고속도로 7개구간(1. 仁川市 富平지구, 2. 富平지구~巨簷島, 3. 巨簷島~金浦군 大串면, 4. 金浦군 大串면~巨簷島, 5. 巨簷島~金浦군 大串면, 6. 金浦군 大串면~巨簷島, 7. 巨簷島~金浦군 大串면)의 고속도로구축을 위한 고속도로구축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계상한다. 이 고속도로구축사업은 1967년부터 1985년까지 19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한다.

▲9개 위성도시(1. 仁川市 佳佐동, 2. 元倉동, 3. 栗島, 4. 景西동, 5. 巨簷島, 6. 金浦군 大串면, 7. 巨簷島, 8. 金浦군 大串면, 9. 巨簷島)의 위성도시구축을 위한 위성도시구축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계상한다. 이 위성도시구축사업은 1967년부터 1985년까지 19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한다.

『경향신문』 1966. 09 .01. 4면

『동아일보』 1967. 01. 04. 7면

오늘은 陽地 (2) 丁未에 펼쳐본 알찬 새보람

落島근무10年の李敏濟교사

菁蘿島에사랑의鐘

어둠속의童心들에등불

굴養殖場만들어새살길

문명의 외곽지대 西海의 낙도-, 거기 젊음을 던져 어둠을 깨는 햇불을 들고 10년의 세월을거센 파도와 갯벌에 묻어온 스승이었다. 仁川昌榮국민교 菁蘿분교의 이민제(38)교사. 그는 올해로 낙도근무 10년을 맞았다. 가난과 무지에 울던 이 슬픈 낙도는 그의 끈덕진 노력으로 이제 활기에 찬 낙원으로 바뀌었다.

1954년 仁川師範(2회)을 나온 이교사는 平澤中央국민교를 거쳐 1958년에는 仁川松月국민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해 5월 仁川교육청은 서해의 외딴섬 栗島와 菁蘿島에 갈 교사를 찾고 있었으나 선뜻 뛰어드는 이도 없었고 억지발령을 내보았지만 발령받은 교사들은 하나같이 사표를 던졌다.

버림받은 낙도에 뛰어들어 어둠을 깨쳐보겠다고 마음을 다져먹은 이교사는 부인 김은하(34)여사와 두 딸을 데리고 栗島로 들어갔다.

여기서 섬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2년. 그러나 이따금 바람결에 들려오는 이웃 섬 菁蘿島의 사정은 더욱 애처로웠다. 열흘 먹을 양식을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없을 만큼 가난의 멍애를 진 이 섬엔 30여명의 취학아동이 있지만 교사가 없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60년 초겨울 그는 다시 자원해서 이 낙도에 찾아들었다. 들어가 보니 50가구, 3백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의 생활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섬을 통틀어 논밭이라곤 모두 8정보, 그나마 섬의 부호인 4명의 지주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교사는 우선 비가 새는 다 찌그러진 교사에 30여명의 섬 어린이들을 모으고 박봉으로 연필·노트 등을 사줘가며 어둠에 싸인 어린동심에 등불을 밝히려고 애를 태웠다. 그는 교장·교

감·교사·사환의 1인4역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교실 안 환경정리며 청소
소에 연탄공급까지 도맡았고 이발
기구를 사들여 사랑의 이발사 노릇
도 했으며 의료도구와 약품을 구입,
의사노릇까지 했다.

그러나 끼니를 굶고 핏기 없는 얼
굴로 들어서는 꼬마들을 볼 때마다
그는 근본적으로 섬의 생활을 개선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골똘히 생각하
기 시작했다. 독실한 「가톨릭」신자
인 이교사는 생각 끝에 평소 존경하
던 「테·노마노」신부(富平2동성당
의 美新교사)를 찾아가 재정적 지원
을 부탁, 섬 앞 넓은 갯벌에 인공 굴
양식장을 만들어 섬사람들에게 나누
어 주기로 했다.

64년 가을 그는 「노마노」신부에게서 얻은 자금으로 섬사람들을 이끌고 8만평 갯
벌에 톼툼이 굴 양식을 시작, 40가구에 매가구당 2천 평씩의 양식장을 골고루 분배
해주는 한편 그들에게 굴 양식법을 열심히 가르쳐주었다.

살 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섬사람들은 이제 올 가을(굴은 양식
한지 3년 만에 채취)이면 처음으로 꾸집한 굴을 따게 되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있다. 학교도李교사가 뻔질나게 쫓아다니던 보람 있어 산뜻한 벽돌 건물로 바뀌
었고 분교로 승격되었으며 어린이도 51명(남24명·여27명)으로 늘어났다.

교장·교감·교사·사환에서 의사·이발사·島長의 역할까지 도맡아 10년의 젊
음을 파도에 실려 보내고 어느덧 40의 장년을 바라보는 이 「낙도의 페스티벌로찌」는
그의 청춘을 바친 菁蘿島에서 오늘도 사랑의종을 울리며 섬의 밝은 내일을 위해 삶을
불태우고 있다. (글 황선필 기자 사진 송호창 기자)



菁蘿島에 사랑의鐘

어둠속의 童心에 등불
군養殖場 만들어 새 삶길

1964년 가을, 낙도(落島)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곳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菁蘿島'였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 해 가을,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사랑의 종'을 울리는 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종을 울린 사람은 그곳의 교사이자, 의사, 이발사, 그리고 마을장까지 맡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곳의 사람들을 이끌고 8만평의 갯벌에 굴 양식장을 만들었다. 그 결과, 그곳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굴을 따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도 새로 지어졌고, 분교로 승격되었으며, 어린이들도 늘어났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의 종'에서 비롯되었다.

낙도(落島)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곳에는 40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菁蘿島'였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 해 가을,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사랑의 종'을 울리는 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종을 울린 사람은 그곳의 교사이자, 의사, 이발사, 그리고 마을장까지 맡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곳의 사람들을 이끌고 8만평의 갯벌에 굴 양식장을 만들었다. 그 결과, 그곳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굴을 따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도 새로 지어졌고, 분교로 승격되었으며, 어린이들도 늘어났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의 종'에서 비롯되었다.

『동아일보』 1967. 01. 04. 7면

仁川앞바다에 매머드 水産養殖場

올해에 38萬平方미터 施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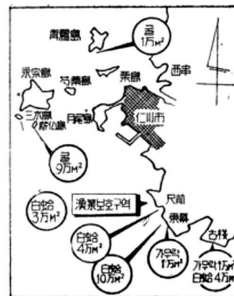
3年계획輪探式양식장도

薪佛島 · 靑蘿島 · 三木島 · 尺前 · 東幕 · 古棧에-

【仁川】인천시는 수산증식사업으로 금년도에 총7백84만원(시비 1백76만원, 경제개발특별회계 70만원, 청구권 자금 2백8만원, 기타 자금 3백30만원)을 투입, 인천시앞바다에 굴 양식장 10만평방m, 백합 양식장 21만평방m, 기타 패류2만평방m, 새우 양식장 5만평방m를 시설한다.

인천시는 수산증식사업으로 靑蘿도에 1만평방m의 굴 양식장과 三木도에 3만평방m, 尺前に 4만평방m, 東幕에 10만평방m, 古棧에 4만평방m의 백합(白蛤) 양식장을 시설하며 東幕과 古棧에는 각각 1만평방m의 가무락 양식장

仁川 앞 바다에 매머드 水産養殖場



새로 설치될 水産養殖場위치도

【仁川】인천시는 수산증식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7백84만원(시비 1백76만원, 경제개발특별회계 70만원, 청구권 자금 2백8만원, 기타 자금 3백30만원)을 투입, 인천시 앞바다에 굴 양식장 10만평방m, 백합 양식장 21만평방m, 기타 패류 2만평방m, 새우 양식장 5만평방m를 시설한다.

薪佛島 · 靑蘿島 · 三木島 · 尺前 · 東幕 · 古棧에
올해에 38萬平方미터 施設
3年계획輪探式양식장도

하에 1천2백만개의 어민을
유증대를 피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금년부터 3
개년계획으로 30만평방m의
채식(輪探式) 양식장을 건설
할 예정이다. 연간 60만평방
7백80만평방의 수산물출
하고 있다. 소요자금으로 6
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1차년도인 금년에 2백
만원부터 하여 10만평방m의
시설을 증식할 계획을 마련
한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굴
58만평방m, 백합 30만평
방m, 기타 30만7천평방m의
양식장이 있으며 연간 2천9
백61만6천원의 생산의 위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금년도
수산증식사업 계획은 연식
설에 굴 25%, 백합 25%의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4백50톤의 패류를 증산하여 1천2백만원의 어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30만평방m의 윤채식(輪採植) 시범양식장을 건설하여 연간60만톤을 생산 7백80만원의 수익증대를 꾀하고 있다. 소요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제 1차 연도인 금년에 2백만원을 투자하여 10만평방m의 시범 윤채식 증식장을 마련한다.

현재 인천시관내에는 굴 58만립방m, 백합 30만7천평방m, 기타 30만7천평방m의 양식장이 있으며 연간 2천9백61만6천원 상당의 위판 실적을 올리고 있다. 금년도 수산증식사업 계획은 현 시설에 굴 25%, 백합 82%의 증산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1967. 08. 01. 2면

內港전체「도크」로

仁川第2計劃 修正검토

건설부는 현재 시공중인 인천항 제 2도크(船渠)시설을 확대 月尾島 및 小月尾島 안쪽의 내항 月尾島와 栗島(밤섬)사이 전체를 하나의 큰도크로 만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밝혀진 이 계획안은 현재의 船舶出入口인 제 2도크 쪽 매립해안과 小月尾島 사이 月尾島와 栗島사이를 막고 수문을 만들며 경인운하도 이 내항과 연결해 운하와 내항전체를 하나의 도크로 만들자는 것이다.

建設部는 현재施工中인仁川港第2道크(船渠)시설을 확대 月尾島 및 小月尾島 안쪽의内港 月尾島와 栗島(밤섬)사이 전체를 하나의 큰도크로만들계획을검토하고있다

1일 밝혀진 이 계획안은 현재의 船舶出入口인 제2도크쪽埋立海岸과 小月尾島 사이 月尾島와 栗島사이를 막고 水門을만들며 京仁運河도 이内港과 연결해 運河와 内港전체를 하나의도크로만들자는것이다

內港전체「도크」로
仁川第2計劃 修正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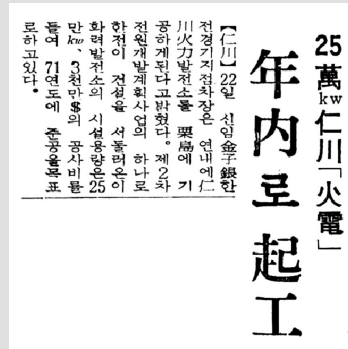
『경향신문』 1967. 08. 01. 2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매일경제』 1967. 09. 22. 2면

25萬kW仁川「火電」 年內로起工

【仁川】22일 신임 김자은 한전경기지점 차장은 연내에 仁川火力발전소를 栗島에 기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 2차 전원개발계획사업의 하나로 한전이 건설을 서둘러온 이 화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은 25만kW, 2천만\$의 공사비를 들여 71연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일경제』 1967. 09. 22. 2면

『경향신문』 1968. 07. 15. 2면

第3精油販路 경쟁 韓國化成, 韓電에 맞서 地買占

韓國化成(대표=김중희)계통의 京仁火電이 韓電의 仁川火電건설지인 인천 북방 앞바다 栗島를 매입한것은 제 3정유의 판로확보책으로 해석되는 등 이를 둘러싸고 油公, 韓國化成, 韓電과의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빚고 있다.

1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 3정유에 해당하는 간이 정유시설(1일5만배럴 처리)과 京仁火電(65만kW)을 건설할 韓國化成이 갑자기 栗島(총16만3천평)의 절반에 가까운 7만2천여 평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원래 栗島엔 韓電이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다음 주민들로부터는 기공승락을받고 仁川火電(1, 2호기 합 50만kW)을 건설 중이다.

韓電은 이를 위해 평당 평균4백90원의 은행 감정가격아래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교섭 중 韓國化成측이 박모, 김모씨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평당 1천원 정도의

第3 精油販路 경쟁

韓國化成、韓電에 맞서 釜地 賣占

韓國化成(대표 金鍾烈)은 있다.
 仁川火電이 韓電의 仁川火電 전설지인 仁川北方 앞바다 栗島를 買入한 것은 제3精油의 販路 확보로 해석되는 등 이를 둘러싸고 油公 韓國化成 韓電과의 사이에 미묘한 관계를 빚고 있다.
 15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3精油에 해당하는 簡易精油시설(1일5만배럴처리)과 京仁火電(65만배럴)을 건설한 韓國化成이 갑자기 栗島(총16만3천평)의 절반에 가까운 7만2천여평을 사

들었다는 것이다.
 栗島엔 韓電이建設部로부터 公有水面埋立허가를 받은 다음 住民들로부터는 起工송박서를 받고 仁川火電(1,2호기, 총50만배럴)을 건설중이다.
 韓電은 이를 위해 坪당 평균 4백90원의 銀行貸借가격 아래 土地 소유주로부터 買入요청중 韓國化成측이 朴某, 金某씨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坪당1천원정도의 높은 값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초 仁川火電에 필요한 도로, 항만등 부대시설을 해준다는 조건아래 油類공급권을 油公에 주기로 하는 油公과 韓電사이의 油類長期공급계약은 草案에 합의되고 계약체결단계에서 파기되었다.
 韓國化成이 買入한 땅의 일부는 韓電에 양보할 것인지 또한 栗島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소식통은 韓國化成이 栗島에 자기들의 火電을 짓고 유류저장시설을 갖추어 장차 仁川火電에까지 油類를 공급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경향신문』 1968. 07. 15. 2면

높은 값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당초 仁川火電에 필요한 도로, 항만 등 부대시설을 해준다는 조건아래 유류 공급원을 油公에 주기로 하는 油公과 韓電사이의 유류장기공급계약은 초안에 합의를 보고 계약체결단계에서 파기되었다.

韓國化成이 매입한 땅의 일부를 韓電에 양보할 것인지 또한 栗島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소식통은 韓國化成이 栗島에 자기들의 火電을 짓고 유류저장시설을 갖추어 장차 仁川火電에까지 油類를 공급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韓國에上陸한 外國財閥 그市場戰略과實態를 본다. (10)

石油財閥 經營에 깊숙이干與 合作投資 形成으로 實權장악 3大社 決戰은 京仁地方에서

세계적인 3개석유회사가 한국에 진입, 본격적 경쟁을 앞에 두고 있다. 大韓石油公社와 손잡은 「걸프」가 제일먼저(63년10월) 한국에 왔고 다음은 湖南精油와 제휴한 「칼텍스」. 제3의 주자는 京仁火電에 투자한 「유니온」이다……

「유니온」은 지난해 賣上高 14억 달러로 미국 내 제 51위의 대기업이다. 미국석유업계의 랭킹은 조금 떨어져 제 10위이다. 해외진출은 그렇게 많지 않고 미국 내 판매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 미국 밖으로도 부쩍 눈을 돌리고 있다.

3개 석유회사의 한국진출특징은 모두 한국기업과 합작투자형식으로 경영에 깊숙이 간여한다는 사실이다. 사장은 한국인으로 하고 있지만 생산·판매 등 모든 부문에서 그들이 실권을 잡고 있다.

구분	단위	수량	비고
원유	천 배럴	100	한국석유공사
중유	천 배럴	50	한국석유공사
경유	천 배럴	30	한국석유공사
등유	천 배럴	20	한국석유공사
가솔린	천 배럴	10	한국석유공사
항공유	천 배럴	5	한국석유공사
합계	천 배럴	215	

이런 점에서 한국 내의 석유회사경쟁은 油公 湖南-京仁의 경쟁이 아니라 바로 「걸프-칼텍스-유니온」의 결전으로 보고 있다……

「유니온」은 뒤늦게 진출했으나 仁川이라는 가장 좋은 입지를 차지해 다른 선두 주자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경인화력발전소의 자체소비용 정유시설(5만배럴)로 허가받았지만 오는 70년 완공되면 곧 제 3정유로서 판매가도에 뛰어들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벌써 韓電의 仁川火電이 세워질 栗島를 기습적인 작전으로 사들이면서 對仁川火電 정유공급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3개사의 최대결전은 아마도 京仁지방에서 불붙을 것 같다. 京仁이 그곳에 입지를 확정하기 전부터 油公이나 湖南이 대규모의 저유(貯油)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걸프」는 仁川지방 저유(貯油)시설을 위해 2백5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湖油도 仁川을 중심으로 木浦, 釜山 등 항구도시에 저유(貯油)시설을 갖추고 있다.

「걸프」의 對韓 차관액 확정은 油公과 興國商社에 대해 2천4백만달러, 직접투자액은 油公 鎭海化學(4肥), 亞進化學, 興國商社와 합작으로 모두 1천6백만달러이다. 다시 석유화학의 중심인 남사분해공장에 2천5백만달러를 차관해줄 예정이다.

「칼텍스」는 湖南精油에 대해 2백75만달러의 합작투자와 5천만달러의 차관을 주고 있다. 「유니온」은 우선 京仁火電에 5백만달러를 투자했다.

『경향신문』 1969. 02. 07.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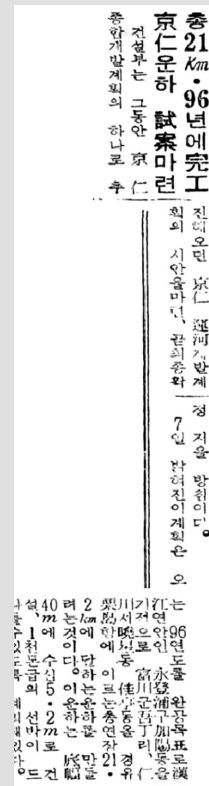
총21km · 96년에 完工 京仁운하 試案마련

건설부는 그동안 京仁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해오던 경인운하개발계획의 시안을 마련, 곧 최종확정 지을 방침이다.

7일 밝혀진 이 계획은 오는 96연도를 완공목표로 한강연안인 永登浦구 加陽동을 기점으로 富川군 품丁리, 仁川시 曉星동, 佳亨동을 경유 栗島항에 이르는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총연장 21.2km에 달하는 운하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 운하는 저폭 40m에 수심 5.2m로 건설, 1천톤급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계획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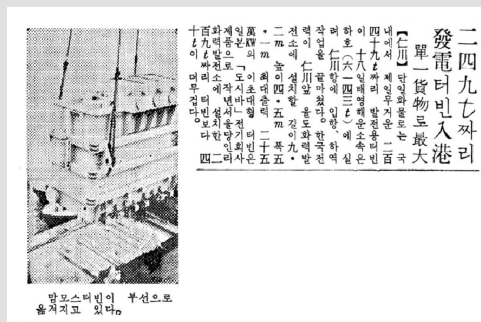


『경향신문』 1969. 02. 07. 2면

『동아일보』 1969. 06. 19. 7면

249t짜리 發電터빈入港 單一貨物로 最大

【仁川】단일화물로는 국내에서 제일 무거운 249t짜리 발전용 터빈이 18일 태영해운소속 은하호(6143t)에 실려 仁川항에 입항, 하



『동아일보』 1969. 06. 19. 7면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역작업을 끝마쳤다. 한국전력이 仁川앞 울도화력발전소에 설치할 길이 9.2m, 높이 4.5m 폭 5.1m, 최대출력 25만kW의 이 초대형 터빈은 일본 「도시바」 전기회사 제품으로 작년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설치한 209t짜리 터빈보다 40t이 더 무겁다.

『매일경제』 1969. 06. 27. 2면

무거운 仁川火電터빈 揚陸 지지 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화물로 꼽히는 2백49톤의 발전용「터빈」이 仁川火力발전소가 세워지고 있는 울도에 접안한지 10여일이 지난 26일 현재 어려운 양륙작업에 부딪쳐 현장 도착은 앞으로 2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화력건설사무소에 의하면 길이 92m, 높이 4.5m, 폭4.1

에 총 중량 2백49톤에 이르는 이 「터빈」양륙작업은 1백톤짜리 「자키」 8대를 동원, 부선(艇船)에서 겨우 40cm를 들어 올려놓았다.

이 양륙작업은 「자키」로 들어올린 「터빈」을 박달나무로 깎아 만든 굴레 바퀴 위로 굴러가는 작업인데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鮮光公社측 책임자는 하루 30m정도의 굴벙이걸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현장 도착은 앞으로도 10여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터빈」은 일본 「도시바」에서 제작한 출력 25만kW의 거구로서 지난해 제2한강교에서의 대수송작전을 벌였던 당인리 5호기 「터빈」보다 40톤이나 더 무거운 반동식 및 재열식으로 회전수는 매 분당 3천6백회에 연소비율은 매kW/H당 1천9백 Kcal에 이른다.



『매일경제』 1969. 06. 27. 2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매일경제』 1969. 10. 09. 5면

외롭던栗島에 국내最大「電源基地」

年末이면試運轉

총1백70만kW규모

工業立國에또하나의里程標

明3월에發電

인천 앞바다 위에 외로이 떠있는 섬 栗島가 우리나라 최대의 電源基地로 변한다. 가난한 島民 몇 사람들이 만고의 역사를 다듬어 왔다는 이 외딴섬이 무려 1백70만 kW의 電源을 간직할 우리나라 최대의 기지가 된다는 것은 우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인천 만석동부두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20여분을 달리면 하늘높이 솟은 重油專燒式 반옥외형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약 15만평의 자그마한 이 섬은 현재 5만4천여평이 깨끗하게 整地되고 그 위에 시설용량 25만kW의 仁川火力 제1호기 건설이 한창이다.

인천화력 1호기에 이어 곧장 2호기가 세워지고 시설용량 30만kW의 제 3호기와 4호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와 함께 7만평의 부지를 매수한 민간전력회사(京仁火電)에서 역시 시설용량30만kW의 제 5호기와 6호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쓸모없는 섬으로만 불리던 栗島는 도합 1백70만kW의 電源을 보유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동력기지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백70만kW라는 설비는 현 국내 총 보유시설을 초과하는 엄청난 용량으로서 명실공히 栗島야말로 공업입국의 상징이 될 것이 분명한 셈이다.

◇추진경위

지금까지 경인지구에의 늘어나는 전력공급은 한강계 수력발전과 서울火電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오는 70년대 이후의 새로운 신에너지공급원으로서 栗島가 전원 기지로 발탁되었다고 한다.

특히 栗島는 중량물의 운반과 연료수송 및 냉각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입지조

진을 갖추고 있어 완벽한 기술검토 끝에 확정을 본 것이라 한다.

최근 건설공사에 열을 가하고 있는 건설사무소측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설비작업은 1·2호기 공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1호기공사는 이미 3분의2를 끝마친 셈이라고 한다.

서울화력 제 5호기(구당인리 5호기)와 같은 25만kW의 대용량인 仁川火力 1호기는 내자 29억원과 외자 2천4백28만\$(일본三井상업차관), 도합 95억원, 그리고2호기는 1백1억원을 각각 들여 건설 중이다.

이들 발전소는 다 같이 증유전소식 순환식「보일러」에 再熱式「탈담·콤파운드」4류「탐빈」과 표면냉각식 복수기 전폐형 수소냉각형 발전기로 구성된다.

이중「터빈」발전기는 일본 東芝제품이며「보일러」는 石川島播磨重工業社제품이다.

당초 1호기는 71년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해왔으나 늦게 시작한 2호기공사가 앞질러 내년3월 준공으로 공정이바뀌자 2호기를 1호기로 대체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크게 진척되고 있는 1호기는 68년 6월 제 2호기로서 정부의 사업허가를 얻고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었다.

또한 현재 2호기도 불리고 있는 당초 1호기는 67년 11월 외자도입심위를 거쳐 68년 1월 인천건설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착수되었다.

◇공사현황

栗島는 원래 자그마한 두 개의 섬으로 갈라져 있어 이번 부지정지공사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선행되었다.

지반의 높이를 7.3m로 고르기 위해 무려 27만m²의 흙을 깎고 29만m²의 바다를 메웠다.

한동안 우렁찬「해머」소리를 내던 공사장에는 강인해 보이는 본관건물이 들어서고 취수구축조공사가 끝나 외면으로 발전소의 모습을 완비했다.

증기발생설비공사는 일본기술자의 협조아래 진행되었고 단위공사로는 가장 큰 비중(전 공정의 13.4%)을 차지하는「터빈」및 발전기공사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 공사장을 둘러보면서 3백톤급의 물량을 거뜬히 끌어 올린다는 물량장을 거쳐나간 2백49톤짜리「스테이타」가 눈에 띈다.

이「스테이타」는 한 때 제 2한강교 도강문제로 화두를 모았던 서울화력 5호기보

이 엄청난 공사가 어려운 공정을 거쳐 이제 연말게 시운전을 바라보는 호황을 보
이고 이 전원기지를 지킬 완벽한 요새공사마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락島에

[illegible]

자리 잡은 우리나라 최대 동력기지의 내일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는 것 같다.

◇여유있는전력

韓電은 仁川火力 건설을 위해 멀리 부산에 있던 이민환씨를 뽑아 건설사무장으로 앉혔다.

이씨는 부산 화력건설에 공이 많았다 해서 박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명년 3월말 가동을 자신 있게 다짐하고 있다. 결국 내년 3월이면 울도기지는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현 발전설비 1백63만kW는 수요에 비해 예비전력을 포함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대용량발전소 하나만 「스톱」되어도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판이다.

이처럼 불안한 요소도 내년3월부터는 완전히 씻어버리게 되었다.

울도의 전원기지가 가동하는 한 다시는 전력이 모자란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믿어도 좋을 것 같다.

『매일경제』 1970. 01. 24. 2면

韓 · 美차관협정체결

栗島에火電 美銀서8천만弗제공

【뉴욕 23일 AP=同和】한국 서해 울도에 외자 8천만\$를 들여 화력발전소를 건설키 위한 한미차관협정이 23일 이곳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 차관협정은 미국재개발처(AID)의 보증으로 「뱅크 · 오브 · 아메리카」(美國銀行)를 비롯한 수 개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5천2백만\$를 제공하며 나머지2천8백만\$는 미국수출입은행과

韓 · 美차관협정체결

栗島에火電 美銀서8천만弗제공

【뉴욕 23일 AP=同和】한국 서해 울도에 외자 8천만\$를 들여 화력발전소를 건설키 위한 한미차관협정이 23일 이곳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 차관협정은 미국재개발처(AID)의 보증으로 「뱅크 · 오브 · 아메리카」(美國銀行)를 비롯한 수 개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5천2백만\$를 제공하며 나머지2천8백만\$는 미국수출입은행과 「웨스턴 · 아메리칸 · 뱅크」(美國西部銀行)가 공동제공을 규정하고있다.

경인 화력발전소에 의해 운영될 이 발전소는 경인 화력발전소와 미국 「유니온」 전우회사와 미국 「유니온」 전우회사의 합작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우회사의 합작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1970. 01. 24. 2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웨스턴·아메리칸·뱅크」(美國西部銀行)가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인화전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될 이 발전소는 경인화전주식회사와 미국「유니온」석유회사의 자사인 UNOCO회사의 공동소유로서 오는 1971년 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1970. 04. 30.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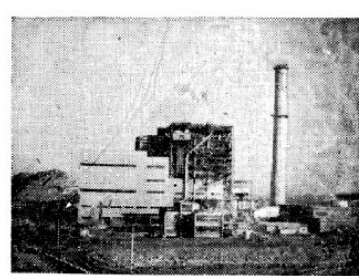
仁川火電 5월말竣工

1백억원들여 25만kW규모

시설용량 25만kW의 仁川火力 제1호기가 시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내달 말께 준공식을 갖고 경인공업지구 동력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30일 韓電에 의하면 68년 초에 착공된 이 仁川火電 1호기는 外資 2천5백87만달러(日本商業借款), 內資 30억원, 도합 1백1억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계통발전에 들어가 최근 용량대로 「풀」가동 중에 있다한다.

인천앞바다 울도에 자리잡은 이 火電은 서울火電 제 4호기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이 火電의 가동으로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모두 1백88만9천kW에 달하게 된다.



○5월말 준공을 서두르고있는 仁川火電 제1호기.

시설용량 25만kW의 仁川火力 제1호기가 시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내달 말께 준공식을 갖고 경인공업지구 동력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30일 韓電에 의하면 68년 초에 착공된 이 仁川火電 1호기는 外資 2천5백87만달러(日本商業借款), 內資 30억원, 도합 1백1억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계통발전에 들어가 최근 용량대로 「풀」가동 중에 있다한다. 仁川앞바다 울도에 자리잡은 이 火電은 서울火電 제 4호기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이 火電의 가동으로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모두 1백88만9천kW에 달하게 된다.

仁川火電 5월말竣工

1백억원들여 25만kW규모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매일경제』 1970. 04. 30. 2면

仁川火電1號機준공

容量25kW 규모

30개월만에 工事費1백26억들여

경인공업지구의 주요 동력원이 될 시설용량 25만kW의 인천 제 1호기 준공식이 29일 하오 인천시 栗島에 자리 잡은 메머드 전원기지에서 박정희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일본 三井物産 상업차관 2천4백87만달러와 內資 49억1천3백만원 등 도합1백26억7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난 87년 10월에 착공, 30개월 만에 준공된 이 발전소는 서울火力 제 5호기와 더불어 국내최대 단위용량으로서 우리나라 전원개발 사업이 대단위화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仁川火力 제 1호기가 자리 잡은 栗島에는 앞으로25만kW의 제 2호기와 31만3천kW의 제 3호기가 각각 작동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京仁火電이 추진하는 31만6천kW의 火電도 이 지역에 세워지고 있어 종래 무명의 낙도였던 밤섬은 도합 1백13만kW의 발전설비를 갖는 우리나라최대의 전원기지가 된다.

한편 이날준공인 仁川火力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는 1백89만kW에 하게 된다.

仁川火電1號機준공

容量25만kW 규모

30개월만에 工事費1백26억들여

京仁火電이 추진하는 31만6천kW의 火電도 이 지역에 세워지고 있어 종래 무명의 낙도였던 밤섬은 도합 1백13만kW의 발전설비를 갖는 우리나라최대의 전원기지가 된다.

한편 이날준공인 仁川火力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는 1백89만kW에 하게 된다.

栗島 주변 干潟地매립 妥當性 조사착수

4백만坪·仁川港 종합개발

건설부는 인천항 종합 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전원기지가 될 栗島 주변 간척지를 정부가 직접 매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5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인천화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쫓아

착수한 이번 조사 작업은 栗島를 중심으로 한 3백~4백만평의 간척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埋立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또 건설부는 현재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70여건의 인천항 내 매립공사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

건설부는 이 조사에서 이미 예정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끝내지 못한 업체와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선 공유수면매립법 제 22조 또는 2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런데 건설부는 이 간척지를 매립할 경우 또 하나의 임해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栗島 주변 干潟地매립
妥當性 조사착수
4백만坪·仁川港 종합개발

건설부는 인천항 종합 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전원기지가 될 栗島 주변 간척지를 정부가 직접 매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5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인천화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쫓아 착수한 이번 조사 작업은 栗島를 중심으로 한 3백~4백만평의 간척지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埋立공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또 건설부는 현재 민간업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70여건의 인천항 내 매립공사에 대해서도 기한 내에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

건설부는 이 조사에서 이미 예정기간이 경과했는데도 공사를 끝내지 못한 업체와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선 공유수면매립법 제 22조 또는 25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 등 강경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런데 건설부는 이 간척지를 매립할 경우 또 하나의 임해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매일경제』 1970. 06. 05.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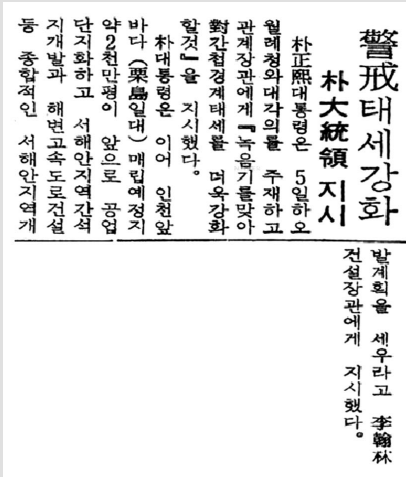
『매일경제』 1970. 06. 06. 1면

警戒태세강화

朴大統領 지시

박정희대통령은 5일 하오 월례청와대 각의를 주재하고 관계 장관에게 『녹음기를 맞아 對간첩경제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인천앞바다(栗島 일대) 매립예정지 약 2천만평이 앞으로 공업단지화하고 서해안지역 간척지 개발과 해변고속도로 건설 등 종합적인 서해안지역개발계획을 세우라고 이한림건설장관에게 지시했다.



『매일경제』 1970. 06. 06. 1면

『동아일보』 1970. 11. 09. 7면

武裝間諜한명生捕 강화島밤섬

한명射殺・豫備軍등 두명戰死

選舉期 社會혼란노려

豫備軍에 돈주며 유혹했으나失敗

대간첩대책본부는 9일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사회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인천 앞 울도에 침투한 북괴무장간첩 2명을 군경 및 예비군합동작전으로 교전 끝에 1명은 사살하고 1명은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무장간첩은 지난 7일 황해도 해주를 출발, 강화도 남쪽 해역을 지나 8일 새벽 0시 8분 울도에 상륙하려다 아군 경비초에 발각돼 군경예비군 합동작전 끝에 이날 새벽 0시 15분 1명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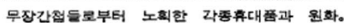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강화도밤섬

選舉期社會 혼란 노려



성포된 간첩(義求) (三九·본적) 慶南함안군가야면신촌里·김

[illegible][illegible][illegible]

살하고 1명은 인천 예비군 서곶중대 10여명의 대원들이 이날아침 7시 15분 격투 끝에 생포했다 한다.

생포된 간첩 강익구(39·본적 경남 함안군 가야면 신은리·김일성대학통신교육

3년 수료)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 2명의 북괴간첩은 북괴노동당 문화부소속으로 지하당조직을 통해 내년 선거기를 틈타 서울 및釜山 등지에서 방화, 요인살해, 민중 선동 등으로 사회혼란을 일으켜 72년도의 적화통일여건을 조성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한다.

대간첩대책본부에 의하면 북괴는 이들을 당초 9월 중순경 납파시키려다가 한국의 정세를 감안, 뒤늦게 납파시켰다고 하는데 이들은 북괴노동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다수의 무장간첩이 납파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생포된 간첩 강은 『예비군에게 돈 한 뭉치를 주면서 유혹도 해봤으나 실패했다.』고 털어놨다. 이들 2명의 무장간첩은 6·25동란 당시 포로로 입북한 자들로 이번 납파 시 11명의 저명인사 명단과 주소를 파악, 200여 만원의 공작금을 갖고 납파됐었다.

사살된 무장간첩은 남한출신인 최현철(40)로 밝혀졌는데 이번 교전에서 군인 1명과 예비군 1명 등 2명이 전사하고 군인 2명이 부상당했다.

이 교전에서 북괴제 권총 2정, 트랜지스터라디오 1대, 무전기 2대 경기도 일원지도 등 200여 점을 노획했다.

생포간첩과 일문일답

이날 생포된 무장간첩 강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문 = 한국의 첫 인상은.

답 =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놓고 부유층은 잘사는 줄로 교육받고 있었다. 그러나 궁핍에 허덕인다던 서민대중과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북한에서 교육받던 것과 달리 그렇게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을 발견했다.

문 = 생포당시의 상황은

답 = 8일 오전 7시 15분 생포될 때까지도 자폭할까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붙들어놓은 인천예비군 서곶중대 8소대 김기현씨에게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해서 싸우자고 돈 한 뭉치를 주면서 설득을 했으나 자수하라고 권고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그 뒤 다른 예비군들에게 생포됐다.

문 = 최근의 북한실정은

답 = 9년 동안의 공백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제 5차 노동당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군에서는 생산 공장 1개씩 김일성에게 바치는 운동을 벌여 최근 2개월 사이 700개의 공장을 세우느라고 노동자들은 퇴근않기운동을 벌이는 등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문 = 북한에 당 노선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가.

답 = 이번 노동당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김일성은 과거 지주와 부유층의 자제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경향신문』 1970. 11. 09. 7면

용감한 說得… “自首하라”

殊勳의 猶豫軍

拳銃위협에도 脫出… 신고

돈다발 내밀며 “달아나게 해달라” 哀願도

栗島 무장공비 生捕하기까지

【栗島=홍성만·문화임·신연성기자】『대한민국은 당신이 자수하면 따듯이 맞아 준다. 김신조도 결혼까지 해서 잘살고 있다.』 무장공비 강의구(39)를 사로잡기까지는 목숨을 건 두 예비군의 대담한 설득과 신고에서 이뤄진 경찰 예비군의 수훈이었다. 일요일을 노리고 인천 栗島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벌어지고 있던 8일 상오 6시 45분 울도○○ 현대건설공사장 직공인 예비군 김모씨(31·예비군 서곶중대 8소대)는 직장에 가다 집에서 2백m쯤 떨어진 언덕길의 웅덩이 속에 숨어있던 무장공비와 16m거리에서 눈이 마주쳤다.

회색 옷에 얼굴이 검게 탄 이 공비는 웅덩이를 더 깊이 파내고 있다가 주춤했고 금씨는 공비임을 직감하고 섬찟했으나 순간 손짓해 부르는 괴한에게 태연히 접근했다.

김씨가 다가서자 공비는 다짜고짜로 『나는 ××××당에서 미군과 싸우러 왔으니 도와 달라』며 5백원 짜리다발(15만원정도)을 속주머니에서 꺼내주었다.

百餘年計。同治間。當

돈다발 내밀며 "달아나게 해달라" 哀願도

[illegible][illegible]

共匪는 여기에 숨어
기리키는 작전부대원.

[illegible]

김씨는 담배를 한대 피워 물고 『돈은 필요 없으니 마을로 내려가 자수하자.』고 설득했다.

『대한민국은 당신보다 더한 김신조도 살려주고 그 사람은 지금 잘살고 있다.』며 자수를 계속권고하자 공비는 『자수하면 죽는다.』고 힘없이 말하며 도망가게 해달라고만 우겼다.

공비는 이날 상오 0시 8분 침투하다 예비군에 발견되어 밤새도록 쫓겨 기운이 거의 빠져있었다. 김씨가 공비를 만난 지 5분쯤 뒤에 김씨와 같은 직장서 일하는 같은 소대 예비군 이모씨(26)가 그 앞을 지나자 공비는 이씨마저 불러 주머니서 다시 돈을 꺼내 가지라고하면서 『도와 달라』고도 하고 『오늘도 2명이나 죽었다.』고 은근히 협박도 했다.

이씨는 들고 있던 점심밥을 김씨에게 주며 『신고하겠다.』는 눈짓을 하고 마을 쪽으로 7,8m쯤 뛰었을 때 공비는 양복안주머니서 권총을 꺼내들고 이씨를 겨누었으나 쏘지는 못했다. 뛰어간 이씨는 언덕을 오르다 부평경찰서타격대(조장 정인섭 경위)와 예비군을 만나 신고했다.

권용준 경사(44)의 지휘를 받은 예비군은 간첩을 포위하고 맨 앞에서 있던 권경사는 카르빈을 겨누며 『손들었』 소리를 질렀다.

간첩의 눈길이 경찰에 쏠리는 순간 그때까지 함께 있던 김씨는 다시 『손들고 자수하라』고 달랬고 긴장의 몇 초가 지난 뒤 경찰의 지휘를 받은 예비군 7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격투, 간첩의 저고리를 벗겨 무기를 빼앗고 뒤로 결박, 생포에 성공한 것이다.

수훈을 세운 이씨는 파월되어 월남에서 베트남과 싸운 용사로 월남에서 기른 담력이 『위험을 느끼면서도 재빨리 신고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70. 11. 10. 7면

栗島작전서 戰死한 예비군金씨 韓電葬 국립묘지安葬

【富平】 인천 앞 울도에 침입했던 무장공비와 교전 끝에 전사한 고 김성운씨(30·한전경비원)의 장례식이 10일 하오 1시 한전장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 인천화력발전소에서 엄수됐다. 유해는 서울동작동국립묘지에 안장됐다.

栗島작전서 戰死한
예비군金씨 韓電葬
국립묘지安葬
【富平】 인천 앞 울도에 침입
했던 무장공비와 교전 끝에
전사한 고金成雲씨(30·한전
경비원)의 장례식이 10일 하
오 1시 한전장으로 한국전
력주식회사 인천화력발전소에
서 엄수됐다. 유해는 서울동
작동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경향신문』 1970. 11. 10. 7면

『경향신문』 1971. 12. 21. 7면

波濤뚫은人間意志 바다를 沃土로 8년간 3百8萬평 둑 7300m 完工 눈앞에 政府선 臨海工團으로 이미 지정 工事中 17명 목숨 잃기도

仁川 앞바다의 섬과 섬 사이에 돌과 흙으로 둑을 쌓고 육지와 연결, 3백8만평의 황금 땅을 얻으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피나는 노력을 했던 이봉덕 여사(57·서울영등포구당산동250)의 꿈이 8년 만에 이루어져 막바지공사가 한창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봉영여중 설립자이기도한 이야사는 학교교육을 올바르게 하려면 사회 안정과 경제부강이 이룩되어야한다고 생각,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던 지난 63년 5월 인천 앞바다를 메우면 새 땅을 얻게 되고 이를 메우기 위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해 많은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 이 사업을 계획했다. 이여사는 너무나 거창한 사업이어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에 싸여 학교와 자매 결연을 한 미 76공병대장 「쿠퍼」대령에게 자문을 구했다.

여성교육자의 이어마어마한 계획을 들은 「쿠퍼」대령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무조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 측량을 맡아줬다.

「쿠퍼」대령의 호의로 측량을 끝낸 이여사는 용기를 얻어 64년 9월 9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증식사업허가를 받아 韓國淺海개발공사란 간판을 걸고 간척개간사업에 착수했다.

황해도 봉산군 초와면 덕암리가 고향인 이여사는 월남하여 서울 인천 등지에서 가난하게 살던 고향사람 1천여 명을 모아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생활비를 대주고 완공되면 가구당 2정보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이들이 거처할 곳을 인천시 북구 경서동에 마련, 썰물 때를 기다려 돌을 날려다 바다를 메우기 시작했다. 이 공사는 경서동~장도~일도~청라도~무점도~창금도~율도~원창동을 잇는 공사로 처음 몇 해는 암담했으나 경서동~장도간의 독이 쌓여졌을 때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나 장도~일도 사이의 공사에서 하루 종일 10여m의 독을 쌓고 밤을 지나 다음날아침 공사장에 나가보면 조류 때문에 독이 반 이상 바닷물에 씻겨 떠내려가 없어지곤 했다. 이러한 동안 공사장 인부들은 절망, 뿔뿔이 헤어지기도 했고, 이여사도 공사를 포기할까 여러 번 생각하기도 했다.

이여사와 바다조류와의 싸움이 널리 알려지자 인천시는 65년부터 3년간 1년에 7백톤의 구호양곡(밀가루)을 방출해줬으며 67년에는 미공법480호(Ⅱ)에 의한 양곡 4백톤도 주었고 경기도는 수문제작비로 1백만원을 보조해줬다.

「쿠퍼」대령의 노력으로 미 인천항만사령부는 67년 8월부터 LCU(상륙정)를 동원, 매달 4,5회씩(1회20트럭분) 돌을 실어다 주었으며 68년 10월에는 한미재단에서 이 사업을 인정 AID중장비인 불도저 3대, 트럭 5대, 크레인 2대를 대여해줘 이때부터 사업이 급진전, 하루 5천 루베에서 7천 루베의 흙을 날라다 독을 쌓았다.

이러는 동안 이여사는 사재와 사채 등을 얻어 8억여원을 이사업에 투자했으며 7

바다를沃土로

- | | | | |
|--|---|------------------|--|
| | 仁 | 알바다의 철학과 신앙의 꽃 | |
| | 과 | 공으로 꽃을 피운 옥자와 연 | |
| | 필 | 자 380만권의 황금빛 열매 | |
| | 로 | 는 완미한 제의용서원 피나 | |
| | 노 | 니를 찬양한 李爾德이사 57세 | |
| | 동 | 교구장(신부)의 의문 8년 | |
| | 간 | 후 이우제 박마지로서가 한 | |
| | 주 | 고 | |

사윤영은 조구영을 풍동에서 안청과 경계루까지 이르는 鳳永에서 설립하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 설립하기 위한 학료로 자가 재속 하여나면 지출을 줄바쁘게하면 사회 63년 5월 日 앞마다



검은부분이 간척지。

가천개간사업에 착수했다.
黃海道 蘆山군 楚慰면 楚慰
리가요향인 李氏는 蘆
남하여 서울 仁川府지에
서 가난하게 살면 고향
사람 1천여명을 도와 사
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생
활비를 대주고 환급하면
가구당 2정보의 쌀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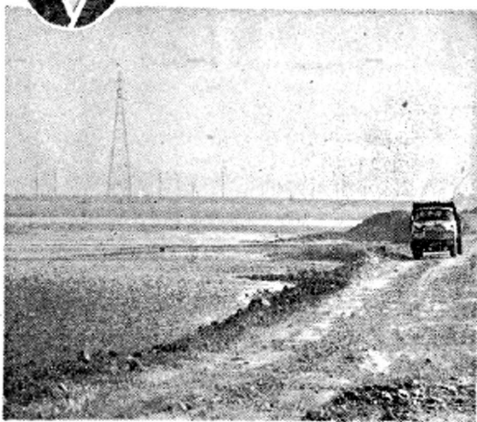
[illegible]

○ 조호미의관 양곡 4 권도수있고 경지로는 수 문계유비로 1 배만은하루 조려치니 1 부근의현의 노략으로 피(川)양산에서 67 년간살아나온(山)산부 인을향후, 미혼 4 5	을 할다. 이라는 불한 서여사는 사재와 사재충돌이 8 여어원한 이사일에 부가 했으며 7월 3일의 중대 사건가 완결중 이다. 끝나는 참정조 용(사)자 3 때까진 아
---	---

주여사의 꿈이 실현되
과 피를 같이하여 정부
에서는 이것을 임태현은
당지로 지정했으며, 앞으
로 많은 수를 입체함이 이
곳에 등장할것고 국가발
견의 임무를 맡게 된다.

〔仁川李寧藏기자〕

8년 3백 8만평



성과 심사 이외에 비디오테이프 3백 8만점의 검사를 얻게 되었다(원내는 후쿠쿠어사)

독 7300m 完工 눈앞에

政府선 臨海工團으로 이미 지정

工事中 17명 목숨 잃기도

2011년 5월 29일(토) 18:00 ~ 19:00
 1. 18:00 ~ 18:10
 2. 18:10 ~ 18:20
 3. 18:20 ~ 18:30
 4. 18:30 ~ 18:40
 5. 18:40 ~ 18:50
 6. 18:50 ~ 19:00

출해안의 완전된다.
이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계속 풍사김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39)는 풍사가 가장 중추적 (60)가 64년 11월 석산읍파작업 때 에잇아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 安長 (40)가 64년 12월 협동농장에 파견되

숨은없는중 17명이나
함하게 복수를 입었다
말하고있다.

李씨는 장사준장을 보
지 못하고 복수를 입은
은 비의 명복을 빌면서
살아서 결실을 맺게
된 명마나 복이겠지나
했다.

『경향신문』 1971. 12. 21. 7면

천3백m의 독 중 7천m가 완공됐다.

이제 공사는 창금도~울도사이 3백m만 남아 올해 안에 완공된다.

이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계속 공사감독을 해온 이배식씨(39)는 공사기간 중 이원세씨(60)가 64년 11월 석산폭파작업 때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을 비롯 안장근씨(40)가 64년 12월 썰물에 떠내려가는 작업선을 건지려다 목숨을 잃는 등 17명이나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씨는 공사 준공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많은 녀의 명복을 빌면서 살아서 결실을 함께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했다.

이 공사를 계획, 끝까지 이끌어간李여사도 65년에 공사장 독이 썰물에 떠내려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다리에서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는가 하면 67년 여름 인천항에 태풍경보가 내린 것도 모르고 자그마한 배를 전세 내어 청라도로 가다가 풍랑에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기도 했다.

이여사의 꿈이 실현됨과 때를 같이하여 정부에서는 이곳을 임해공업단지로 지정했으며 앞으로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곳에 공장을 짓고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仁川=이재호기자】

『경향신문』 1972. 04. 17. 3면

京仁에너지 竣工

8년간 전력 32만kW, 精油 5만배럴 생산

京仁에너지의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준공식이 17일 하오 3시 박정희대통령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인천 울도에서 있었다.

이날 준공된 정유공장은 日産 5만배럴 규모로 총공사비가 3천5백만달러가 들었으며 오는10월 2천4백만달러를 들여 6만배럴로 1만배럴의 시설을 확장하게 된다. 한편 京仁火電은 시설용량 32만4천8백만kW로 6천1백만달러의 총공사비가 들었다.

京仁에너지는 현재 방카C유 (60%) 납사(20%) 디젤배럴을 생산 하여 이중 2만5천배럴은 화전용으로 자가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1만배럴만을 시판에 돌리고 있는데 국내 3대 정유업자의 시장점유비율은 油公65%, 湖油30%, 京仁5%로 되어있다.

京仁 에너지 竣工

전력 32만Kw, 精油 5만배럴 생산

京仁에너지는 현재 방카C유 (60%) 납사(20%) 디젤배럴을 생산 하여 이중 2만5천배럴은 화전용으로 자가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 1만배럴만을 시판에 돌리고 있는데 국내 3대 정유업자의 시장점유비율은 油公65%, 湖油30%, 京仁5%로 되어있다.

『경향신문』 1972. 04. 17. 3면

『매일경제』 1972. 04. 18. 5면

深化된電力過剩

京仁火電의 竣工과問題點

單價비싼 「國內最大」

受電계약등 他社보다有利

인천 앞바다 조그마한 孤島 밤섬(栗島)에 말끔히 차린 대단위 발전소가 17일 준공되었다. 민전 제 2주자인 京仁火力이 국내 전력이 모자라던 60년대 후반기에 착공(69년)했다가 전력이 남아돌 때 준공을 본 것이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京仁火電은 시설용량 32만4천8백kW, 16만2천4백kW짜리 중유전소식 터빈 2기가 설치된 국내 최대단위의 발전소다.

값진 발전소

한미합작의 京仁에너지가 계획하고 있는 총67만4천8백kW의 전원개발사업 중 제 1발전소에 해당된다.

정식 준공에 앞서 지난 연말부터 京仁火電은 시운전을 거쳐 韓電의 송전 계통에 들어갔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최근의 발전실적으로는 용량을 초과하는 33만kW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는 성능 좋은 시설이다.

그러나 京仁火電은 국내에서 제일 값비싼 發電所로 건설되었다.

栗島개발 사업과 함께 발전소건설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무려 6천8백만달러, 2백60억원의 엄청난 액수다.

이들 재원은 太平物産관과 韓國化成을 투자자로 하는 자기 자본 1천만달러 외에 나머지 5천8백만달러를 상업차관으로 건설된 전형적인 차관사업.

차관은 美國은행 1천2백25만달러, 美輸出入은행 1천5백만달러, 美保險회사 3천75만달러씩 각각 조달했다.

이 같은 투자규모는 국내에서 건설된 발전설비 중 가장 높은 많은 공사비에 해당한다.

韓電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嶺南火力 1, 2호기(40만kW)의 경우 kW당 건설비는 1백39달러58센트, 제 1의 민전인 東海火電은 1백49달러51센트, 그리고 제 3의 민전인 湖南電力은 1백29달러67센트인데 비해 이번에 준공된 京仁火電은 2백9달러 17센트로 나타나있다.

이를 기준하면 京仁火電은 韓電이건설한 嶺南火力보다는 kW당 61달러, 東海보다는 50달러, 湖南보다는 무려 80달러나 비싼 원가를 들었다.

韓電이 건설한 발전소나 이에 앞선 민간전력이나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발전소등 어느 경우보다도 비싼 설비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다.

과잉심화

원가가 비싸다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전원시설이 남아도는 때에 대단위발전소가 늘어났다는 것도 문제다.

처음 京仁에너지가 민전을 계획하고 합작투자를 추진했던 68년만 해도 과잉설비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京仁火電이 준공함으로써 국내전원시설은 총3백만kW선에 육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遊休設備은 1백만kW가 넘는다는 계산이다.

즉 韓電에 의하면 최근의 전력수요 피크는 1백70만kW수준에 머물러있고 신규수요개발은 거의 한계에 닿은 느낌이다.

말하자면 京仁火電은 준공시기가 잘못 선택되어 그가 지닌 명예로운 시설능력을 평가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모른다. 한편 京仁火電측으로서는 공사비가 비싸다든가 국내 전력시설의 과잉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韓電과의 受電계약에서 東海電力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을 획득해 놓았다.

유리한 조건

京仁과 韓電과의 受電계약에의하면 계약기간 30년에 受電이용률은 「韓電의 유사한 유류발전소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東海電力은 막연히 韓電이 제시한 受電계획서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전기요금 산정에 있어서도 東海는 매 2년마다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京仁은 1년마다 한번 씩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요금조정 사유에 있어서도 京仁은 월등히 유리한 고지에 놓여있다. 東海의 경우 요금조정은 「환율과 연료비가 10%이상 변동 시」로 제한하고 있으나 京仁은 환율변동, 고정자산의재평가, 세율과 보험료 변동, 연료비 변동 및 운전유지비와 일반관리비의 변동 등의 경우를 망라했다.

다만 투자보수율에 있어서는 두 회사가 똑같이 11.5%를 확보토록 했다.

이 같은 受電계약서에 따라 韓電이 구입하는 전력단가는 동해전력이 kWh당 3원 8전, 경인이 4원52전. 京仁으로서는 원가 높은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또한 발전용 연료는 같은 계열인 京仁精油로부터 전량을 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도 누리고 있다. 한편 京仁에너지의 제1발전소가 준공된 인천 栗島는 韓電의 인천화력 25kW가 기동중에 있고 제 2, 제 3 仁川火電과 京仁의 제 2발전소 35만 kW가 계속 공사중에 있어 오는 76년이면 총 1백50만kW의 매머드 전원기지가 된다.

『매일경제』 1972. 07. 03. 7면

靑羅島民 교통끊겨

定期船 운항중止

【仁川】인천 앞바다 靑羅島에 살고 있는 53세대 2백63명의 섬사람들은 지난 6월

28일부터 해상교통 및 육로교통이 막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곳 섬사람들의 유일한 취업장인 간사지매립공사가 중단돼 일자리마저 잃고 있다고 말하고 3일 인천시와 인천해운국 등에 그 대책을 진정했다.

남정순씨 등 53세대 2백63명의 靑羅島 주민들은 어업, 행상, 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섬을 운항하던 해진호(18톤급, 선주 김병업)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을 않자 하나밖에 없는 배 길이 끊겨 섬사람들은 할 수없이 한국천해개발(株)이 해면매립을 위해 축조한 제방(길이2km)을 통해 육로통행을 시도하자 이 부근에 위치한 京仁에너지측이 중요시설물이있어 이 곳으로 일반인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통행을 제지함으로써 청라도 주민들은 완전히 발이 묶여 버렸다.

靑羅島民 交通 끊겨
定期船 운항中止
〔仁川〕인천 앞바다 靑羅島에 살고 있는 53세대 2백63명의 섬사람들은 지난 6월 28일부터 해상교통 및 육로교통이 막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곳 섬사람들의 유일한 취업장인 간사지매립공사가 중단돼 일자리 잃고 있다고 말하고 3일 인천시와 인천해운국 등에 그 대책을 진정했다.
南正淳씨 등 53세대 2백63명의 靑羅島 주민들은 어업, 행상, 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섬을 운항하던 해진호(18톤급, 선주 金炳業)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운항을 않자 하나밖에 없는 배 길이 끊겨 섬사람들은 할 수없이 한국천해개발(株)이 해면매립을 위해 축조한 제방(길이2km)을 통해 육로통행을 시도하자 이 부근에 위치한 京仁에너지측이 중요시설물이있어 이곳으로 일반인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통행을 제지함으로써 청라도 주민들은 완전히 발이 묶여 버렸다.

『매일경제』 1972. 07. 03. 7면

『매일경제』 1972. 07. 06. 7면

靑羅島에 旅客船 재취항

交通部 赤字운항비는 補償키로

〔仁川〕속보= 교통부는 인천에서 6마일 떨어진 靑羅島에 해진호(18톤급)를 여객선으로 운행(명령항로)토록 신규면허하고 적자운항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번조치는 지난 달 28일경부터 인천~靑羅島 간의 육상 및 해상교통이 끊겨 주민들의 발이 묶이게 된 것을 해소시키는 조치이다.

靑羅島에 旅客船 재취항
交通部 赤字운항비는 補償키로
〔仁川〕속보= 교통부는 인천에서 6마일 떨어진 靑羅島에 해진호(18톤급)를 여객선으로 운행(명령항로)토록 신규면허하고 적자운항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번조치는 지난 달 28일경부터 인천~靑羅島 간의 육상 및 해상교통이 끊겨 주민들의 발이 묶이게 된 것을 해소시키는 조치이다.

『매일경제』 1972. 07. 06. 7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京仁에너지 輸送費 절감 고심

이에 대해 건설부에서는 京仁에너지 공장이 있는 栗島와 八尾島사이의 20km를 해저조사(암석여부) 하는데만 4천여만원이라는 경비가 들며 실지준설을 할 경우 막대한비용과 2~3년의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힘겨울다고 회사자체에서 해저조사를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협조할 태세라는 것.

해 각종 경비철약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
에서도 最大의 節減대상
은 原油수송비라고.
現에 原油를 仁川港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 仁
川港의 水路가 좋지 못해
5만톤의 탱커만 入港
할수 있다고.
10만톤이상의 탱커가
入港하면 다른 선유메이
는 仁川港을 迂回해서
小港灣에서 停泊하
고 있는 同社가 仁川港
에서 卸貨하는 費用이
20% 정도 省省되는데
이것이 仁川港의 重要
한 問題라고 한다.

『매일경제』 1973. 01. 29. 5면

接岸능력 4배로
1백45억들여 港灣확장공사
栗島·인창洞間海底道路뚫려

특히 울도와 인창동 간에는 바다 밑으로 3.5km의 해저도로가 뚫렸다.

이 같은 인천의 급속한 발전은 항구의 확장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인천항 확장계획이 끝나면 경제적 이점은 막대하다.

우선 인천항 선거건설은 시설부족으로 인한 해상2중하역작업과 인천항에 입항해야할 화물을 부산항 경유, 철도수송 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연간 약25억원의 하역손실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인공업지대와 기간산업 및 임해산업유발을 도모하며 수도 및 중부권역의 수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가의 절감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매일경제』 1974. 06. 08. 5면

仁川火電2호機 완공

韓電, 内外資1백40억 투입

7월부터 本格稼動

着工6년 … 施設容量 25만kW

韓國電力은 지난 68년 6월에 착공했던 仁川火力發電所 제 2호기 설치공사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공, 7일 시운전에 들어갔다. 오는 7월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 仁川火力 제 2호기의 시설용량은 25만kW로서 제 1기와 같으며 공사비는 일본 미쓰이상사 차관 2천4백38만9천 달러와 내자 43억6천1백만원 등 도합 1백40억원을 투입했다.

仁川火電2호機 완공

韓電, 内外資1백40억 투입



7월부터 本格稼動
着工6년…施設容量 25만kW

○7월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간 仁川火電2호기.

『매일경제』 1974. 06. 08. 5면

또한 仁川火力 제 2호기는 1호기가 설치된 인천시 원창동(栗島)에 인접하여 7월부터 본격가동, 연간14억2천3백50만kW/H를 발전하게 되며 京仁에너지(시설용량32만4천8백kW)와 더불어 대전원기지를형성하게 되었다.

仁川火力 제 2호기의 본격가동이 이루어지면 국내 총 발전시설용량4백52만2천kW로 늘어나게 되며 이 가운데 水力 62만, 火力 3백90만2천kW를 각각 점유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1974. 12. 23. 7면

仁川北港海上 기름바다

接岸하던 유조선 衝突 사고로

【仁川】 22일 낮 12시10분경 인천 북항 쪽 울도화력발전소 앞에 설치된 경인에너지터미널에서 경인에너지에 급유를 하기 위해 접안하려던 3만4천t급 「리베리아」국적의 유조선 「윈스턴컨」호가 항해실수로 터미널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 오른쪽 부분에 금이 가면서 2백여드럼분의 원유가 바다로 새어나와 인천 북항 4마일 해상에 깔려 기름바다를 이뤘다. 사고 후 인천항의 청소업체인 인천동역회사는 청소원을 동원해서 원유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4일이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仁川北港海上 기름바다
接岸하던 유조선 衝突 사고로

【仁川】 22일 낮 12시10분경 울도화력발전소 앞에 설치된 경인에너지터미널에서 경인에너지에 급유를 하기 위해 접안하려던 3만4천t급 「리베리아」국적의 유조선 「윈스턴컨」호가 항해실수로 터미널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 오른쪽 부분에 금이 가면서 2백여드럼분의 원유가 바다로 새어나와 인천 북항 4마일 해상에 깔려 기름바다를 이뤘다. 사고 후 인천항의 청소업체인 인천동역회사는 청소원을 동원해서 원유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24일이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74. 12. 23. 7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매일경제』 1976. 07. 17. 7면

4천여평 埋立許可

인천 栗島火力發電 부지조성

經濟閣議決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12일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경기도 인천시 북구 원창동 울도 앞 화력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4천5백33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결했다.

한국전력은 경인지역의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천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부지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신청면적 4천5백33평 중 2천3백5평은 사전에 시공한바 있다.

이 공유수면매립에는 총 7천1백17만9천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면허일로부터 1년 5개월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 공중은 매립토량 5만3천2백7㎡, 호안 1백84m(捨石堤), 사석공 7천8백㎡등이다.

4천여평 埋立許可	
인천 栗島火力發電 부지조성	
經濟閣議決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12일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경기도 인천시 북구 원창동 울도 앞 화력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4천5백33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의결했다.	하려는것인데 신청면적 4천5백33평중 2천3백5평은 사전에 시공한바있다.
한국전력은 경인지역의 전력공급을 원활히하기위해 인천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부지를 마련	이공유수면매립에는 총 7천1백17만9천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면허일로부터 1년5개월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공중은 매립토량 5만3천2백7㎡, 호안 1백84㎡(捨石堤), 사석공 7천8백㎡등이다.

『매일경제』 1976. 07. 17. 7면

京仁에너지에 埋立免許의결

栗島貯水槽敷地

지난 26일 경제각의는 서울소재 경인에너지주식회사 공동대표 김종희 외 1인이 신청한 경기도 인천시 북구 원창동(울도 앞) 4천8백79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매일경제』 1976. 08. 31. 7면

京仁에너지에
埋立免許の結
栗島貯水槽敷地
지난 26일 경제각의는 서
울소재 경인에너지주식회사
공동대표 金鍾喜의 1인이 신
청한 경기도인천시북구원창
동(율도앞) 4천8백79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원안대
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인천화력발전소
에 소요되는 연료저장시설
을 확장, 저유조와 시설부
지를 조성하기위해 총사업
비 6천7백만원을 투입하
여 율도앞 4천8백79평을
매립하려는것인데 주공중은
▲매립토량 5만3천20㎡와
▲호안연장3백58m를 높이
6m로 축조하는일이다.
이 사업의 시공기간은 면
허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
어있다.

『매일경제』 1976. 08. 31. 7면

이 사업은 인천화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연료저장시설을 확장, 저유조와 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율도 앞 4천8백79평을 매립 하려는 것인데 주공중은

▲매립토량 5만3천20㎡와

▲호안연장3백58m를 높이6m로 축조하는 일이다.

이 사업의 시공기간은 면허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있다.

『매일경제』 1976. 09. 20. 6면

仁川 外人事務室 新築工 事4일入札

한국전력은 인천#3, 4외인사무실신축공사를 공개 발주, 오는 10월 4일 하오 3시 도급입찰을 집행키로 했다.

총 공사비 1천5백10만4천원(자재대포함)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철근콘크리트연속기초 3백45.6㎡규모의 사무실신축과 이에 따른 위생 및 급배수공사를 75일간의

仁川 外人事務室
新築工事 4일入札
한국전력은 인천#3, 4
외인사무실신축공사를 공
개 발주, 오는 10월 4일 하오 3
시 도급입찰을 집행키로 했다.
총공사비 1천5백10만4
천원(자재대포함)이 투입
되는 이공사는 철근콘크리
트연속기초 3백45.6㎡규
모의 사무실신축과 이에 따
른 위생 및 급배수공사를 75
일간의공기로 시공하는일로
공사현장은 인천시栗島이다.
이공사는 오는 30일 11시 30
분까지(당일한) 입찰신청을
받고 이날 16시 인천건설사
무소에서 현장설명이 안내
되는때 입찰자께서는 전설
법에 의한 건축업면허소지자
에게 의한 주고있다.

『매일경제』 1976. 09. 20. 6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공기로 시공하는 일로 공사현장은 인천시 栗島이다.

이공사는 오는 30일 11시 30분까지(당일한) 입찰신입을 받고 이날 16일 인천건설사무소에서 현장설명이 안내되는데 입찰자격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축업면허소지자에게 주고 있다.

『매일경제』 1976. 10. 08. 7면

토막소식

◇ 인천 관내 기관장 위문 = 김태호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유관 기관장은 6일 하오 관내 낙도인 세어도와 청라도 주민을 위문했다.

이날 인천기관장들은 소맥분을 비롯 구급약품, 라면 등 푸짐한 선물과 현금 10만원 등을 전달, 위로.

◇ 인천 관내 기관장 위문
 인천시장은 6일 하오
 관내 낙도인 세어도와
 청라도 주민을 위문했다.
 이날 인천기관장들은
 소맥분을 비롯 구급약품,
 라면 등 푸짐한 선물과
 현금 10만원 등을 전달,
 위로.

『매일경제』 1976. 10. 08. 7면

『매일경제』 1979. 08. 07. 1면

仁川에 新港건설

經濟閣議, 栗島엔 火力發電所

경제장관회의는 7일 90년대까지 인천항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현 연안부두 남단에 신항(新港)을 건설한다는 장기계획에 따라 인천항 내 공유수면 종합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또 栗島 서단부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1km²(30만2천5백평)를 전원개발 지역지로 묶고 조력발전계획지는 항계선 외에 있어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계 내에 도서군(島嶼群)을 자연경관보존 지역으로 설정하고 栗島 남

단의 5.3km²(1백60만3천평)는 항만관련시설 계획지(쓰레기처리장 포함)로 지정토록 돼 있다.

또 서남해안 대단위 간척사업계획에 따라 항계 내에 포함된 金浦지구 35km²(5백77만7천평)를 농경지조성 계획지로 묶고 이밖에

신항 계획지 남단 31km²(9백37만7천평)를 신항확장개발 유보지로 지정기로 했다.

인천항의 항만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남쪽 경계는 古棧 등 서단으로부터 大阜島・八尾島・新佛島를 연결한 선이 되며 북쪽 경계는 佳亭동 서단 突山중심부로부터 文沾동 靑羅島・雲廉島・永宗島를 차례로 연결된다.



『매일경제』 1979. 08. 07. 1면

『경향신문』 1979. 12. 22. 6면

西海落島 電化사업

甕津郡,

내년 26億여원들여 着工

【仁川】甕津군은 내년도에 서해 낙도인 永宗島를 비롯해 北島, 龍遊島, 靑羅島 등에 26억7천9백40만원을 들여 전기공사를 착공한다.

웅진군은 어촌전화사업계획에 따라 용자 22억1천3백87만원과 주민부담 2억6천7백44만원 한전부담 1억9천3백69만원으로 인천~영종도 간을 수중케이블공사로 전기를 가설, 영종도민 1천9백2가구를 비롯해 북도민 7백45가구, 용유도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따라서 웅진군 관내 9개면 가운데 자가발전으로 전기를 켜고 있는 白翎島, 延坪島, 德積島, 大靑島 등 4개 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섬에는 모두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illegible]

『경향신문』 1979. 12. 22. 6면

『동아일보』 1980. 05. 27. 6면

16年겉돈 京仁運河건설

陸路에밀러 投資價値되색
計劃圈 地主만 골탕

경인운하건설계획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 16년이 넘도록 계속 미루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운하 건설계획권내 묶여있는 농지와 임야 등 소유주들이 지주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서울 江西구 加陽동 앞 한강하류에서 인천 외항쪽 栗島사이를 잇는 길이 22km, 너비 40m, 수심 5.2m로 설계된 이 운하건설계획은 인천항의 입하물동량을 1천t 급 선박으로 서울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5년 1월 대통령공고 제 1호로 공포됐다. 이 운하가 건설되면 운하주변공장들의 공업용수와 농경지의 농업용수공급 등에도 크게 혜택을 입게 된다.

그러나 육로수송수단이 크게 발달된 현시점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 공사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계획이라는 인천시건설관계자와 시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이 운하가 건설될 경우 서울시내 일원에서 방류하는 오수와 공장폐수로 크게 오염된 한강물이 이 운하를 통해 초당 1백입방m씩 인천항으로 흘러들어 인천항의 오염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더욱이 이 운하건설계획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 5차 5개년계획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계획에만 그칠 공산이 크며 지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빚을 것 같다.

한편 이 운하건설계획권내에 들어있는 땅은 인천시 관내만도 무려 46만5천여평방m로 1백여 지주들은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이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되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16年 걸돈 京仁運河건설

陸路에 밀려 投資價值 퇴색 計劃圈 地主만 골탕

인천시 관내 46만5천여평방m에 달하는 운하건설계획권내에 들어있는 땅의 주인들은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이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되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천시 건설관계자는 "육로수송수단이 크게 발달된 현시점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이 공사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운하가 건설될 경우 서울시내 일원에서 방류하는 오수와 공장폐수로 크게 오염된 한강물이 이 운하를 통해 초당 1백입방m씩 인천항으로 흘러들어 인천항의 오염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더욱이 이 운하건설계획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 5차 5개년계획에도 포함돼있지 않아 계획에만 그칠 공산이 크며 지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빚을 것 같다.

한편 이 운하건설계획권내에 들어있는 땅은 인천시 관내만도 무려 46만5천여평방m로 1백여 지주들은 재산권의 행사를 위해 이 계획이 하루빨리 실현되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동아일보』 1980. 05. 27. 6면

『매일경제』 1980. 12. 17. 7면

永宗島등 4개落島 電化사업 完工

【水原】京畿도는 17일 서해낙도인 甕津군 永宗면과 北島면, 龍游면, 靑羅島(永宗지구) 등 4개 섬의 전화사업을 끝내고 기관장과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점등식을 가졌다.

永宗島등 4개落島
電化사업 完工
【水原】京畿도는 17일 서
해낙도인 甕津군 永宗면과 北
島면 龍游면 靑羅島(永宗
지구) 등 4개섬의 전화사
업을 끝내고 기관장과 주
민등 1천여명이 참석한가
운데 점등식을 가졌다.

『매일경제』 1980. 12. 17. 7면

『매일경제』 1982. 06. 12. 11면

두다리 祖國에 바친 상이용사가 못가진 성한 사람돕는다.

온갖 苦難 딛고 自立기반 닦아

다시 이웃봉사의 삶

盧寬亨씨 <50·藥師 현대약국>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용사가 못 가진 성한사람을 돕고 있다. 의족으로 생활하는 불구의 몸으로 자립한 것만도 주위의 박수를 받을 일인데 불우이웃을 돕는데 정열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여유가 없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람이 있다.

1급 상이용사 노관형씨(50·인천중구부평동 3백41의33).

그는 6·25전쟁 때 조국수호의 제단에 두 다리를 바친 후 불구의 몸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약국을 개업, 완전한 자립의 터전을 닦았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는 불구의 신념과 의지의 인물이다.



『매일경제』 1982. 06. 12. 11면

은 사람이나 지역사회활동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약국을 개업하면서 66년 약사회 부평분회를 창설,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병원선을 타고 청라도 세우도 등 인천 앞바다 낙도를 돌면서 의약품을 전달해주고 치료도 해줬다.

성한사람도 실천하기 어려운 불우이웃돕기에 지팡이에 의존해 걸어야하는 불구

..... 62년 대학을 졸업한 후 맨주먹으로 자립의 터전을 찾았다. 인천으로 내려와 약국을 개업했고 65년에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양국으로 이사해오면서 독립했다.

단독점포는 독립은 했지만 결혼한 직후로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다.

한 달에 3천원 내는 식월세 방에 신히살림을 차리고 꼭 축하 해주고 싶은 친구의 결혼 부조금 3백원이 없어 찢찢매면서 개업약사로서의 자활의 꿈을 키워나갔다.

이제 노씨는 17년 동안 손님에게 신용을 다한 8평짜리 약국과 부인, 3남1녀를 둔 행복한가장이다. 그는 자신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어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의 몸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낙도어린이, 양로원의 의지할 곳 없는 노인, 불우 청소년, 국군 장병 등.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원호대상자들에게는 소홀할리가 없다. 원호대상자들에게는 메이커에서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이윤을 붙이지 않고 판매하고 있어 부평지역의 3백 명 원호대상자들은 노씨를 단골로 찾아온다……

『많이 도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정상인과 똑같이 제일선에서 뛰겠다.』고 밝히는 노씨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원호대상자를 얼마만큼 도와줬을까? 하는 반성이 가슴을 누른다. 【정영수 기자】

『매일경제』 1985. 02. 08. 11면

中學의무教育지역확정

국무회의는 7일 중학교의무 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8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될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지역은 ▲
仁川직할시 북구 경서동 청라도 등 도서지역 ……

中學의무教育지역확정
국무회의는 7일 중학교의무 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85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될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지역은 ▲
仁川직할시 북구 경서동 청라도 등 도서지역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등 수북지역 ▲강원도 태백시 화전 2동 등 광산지역이며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은 6만 3천 1백 4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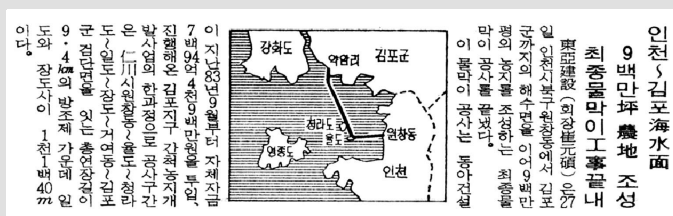
『매일경제』 1985. 02. 08. 11면

『매일경제』 1985. 05. 28. 11면

인천~김포海水面 9백만坪 農地 조성

최종물막이工事끝내

東亞建設(회장 최원석)은 27일 인천시 북구 원창동에서 김포군까지의 해수면을 이어 9백만평의 농지를 조성하는 최종물막이 공사를 끝냈다.



『매일경제』 1985. 05. 28. 11면

이 물막이 공사는 동아건설은 지난 83년 9월부터 자체자금 7백94억4천9백만원을 투입, 진행해온 김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의 한 과정으로 공사구간은 仁川시 원창동~울도~청라도~일도~장도~거여동~김포군 검단면을 잇는 총연장길이 9.4km의 방조제 가운데 일도와 장도사이 1천1백40m이다.

『경향신문』 1985. 08. 02. 2면

韓電 골치씩이는 京仁에너지

“電力판매값 百67億내라.에 “못주겠다.”攻防 3년

타협점 쉽게 못찾아

○...전력판매대금결제를 둘러싼 韓電과 京仁에너지간의 3년간의 싸움은 8월 중에 있을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심의를 계기로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유일의 민전회사인 京仁측은 지난 72~82년 사이에 판매한 전력요금 중 아직까지 韓電이 내지 않고 있는 1백67억원의 요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이고 韓電은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당초 계약이 불평등했던 만큼 京仁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전력요금분쟁은 지난 83년 京仁이 국제상사중재위에 韓電을 제소하고 韓電이 다시 맞제소함으로써 촉발됐으나 마찰의 소지는 京仁이 설립된 70년대 초 부터 안고 있었다.

韓國火藥그룹은 정부에서 전력부족을 타개키 위해 민간 발전소 설립을 추진하자 68년 4월 유니온 오일과 손잡고 외 자도입심의회의로부터 발전소 설립인가 티켓을 따내 인천 앞 栗島에 최신�유류발전소 설립 을 추진했다.

당시 韓電의 발전설비는 1백 40만kW에 불과, 30만4천kW의 발전능력을 갖춘 京仁이 전력 수급계약을 주도했고 여기에 경제외적인 영향력까지 가세 돼 韓電이 지적하고 있는 불평 등계약이 맺어졌다.

지금까지 분쟁의 핵심이 되 고 있는 것은 京仁이 공급하 는 전력의 요금정산방법. 계 약에는 「월별로 요금을 조정 하되 양사간 의견불일치가 있 을 때에는 우선 京仁이 청구 하는 요금을 韓電이 먼저 지 급하고 감액, 또는 증액청구 토록」돼 있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또 당시 9%이내로 책정해야한다는 韓電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투자보수율(지불이자+순이익)을 11.5%로 결정,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었다.

80년대로 넘어오면서 京仁의 전력공급규모가 전체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고 더욱이 합작사인 유니온 오일의 철수가 예고되면서 수세적이던 한전의 입장이 공세로 바뀌었다.

불평등계약에 의한 과도한 전력요금을 내줄 수 없다는 韓電의 반발이 표면화했고 83년 말로 잡힌 유니온오일의 철수에 다급해진 韓國火藥그룹의 京仁에너지는 국제상사중재위 제소라는 비상수단을 쓰기에 이른 것.

양측은 상사중재에 의한 결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제소를 취하하고 대화로 분쟁을 매듭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거대 公企業인 韓電과 韓國火藥그룹을 등에 업은 京仁이 함께 상처를 입지 않을 명예로운 타협점을 발견키 어렵다는데 양사의 고민이 있는듯하다.

『경향신문』 1985. 09. 28. 11면

섬 2년새 78개사라져

84년기준 간척·連陸사업 영향

간척·연륙(連陸)사업으로 우리나라 섬 가운데 최근 2년간 78개가 없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방개발자료로 삼기위해 84년을 기준해 조사, 집계한 「도서및낙도현황」 자료에서 28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섬은 3천2백17개, 무인도 2천6백84개로 나타났다. 또 83~84년 2년간 78개(유인도 27, 무인도 51)가 줄어들었다. 섬주민도 전체도서인구의 22%인 12만 2천명, 면적도 3백28km²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섬과 육지사이사이에 다리가 놓이거나 간척매축 등으로 섬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국토개발은 가속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조사결과 간척사업 등으로 육지와 이어진 섬은 전남 진도 돌산도, 부산 일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도, 을숙도, 충남 송도, 장고
도, 간월도 죽도, 경기황산도,
인천 청라도등 10개나 된
다.....

섬 2년새 78개 사라져

84년 기준 간척·連陸사업 영향

간척·連陸(連陸)사업으로
유리나라섬가운데 최근
2년간 78개가 없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부가 지방
개발자료로 삼기 위해 84년
기준해 조사, 집계한 도서 및
「국토계획」자료에서 28일 발
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
리나라 전체섬면적 3천2백1
개이고 이중유인도가 5백
17개, 무인도 2천6백84개

로 나타났다. 또 83~84년
간 78개(유인도27, 무인도
51)가 줄어들었다. 섬면
적 전체로서 인구의 22인
12만5천명, 면적도 3백28
해나 대륙쪽으로부터의
타향이다.

내부부는 「섬과 육지의
사이」에 따라 놓여지나 간척
매출등으로 섬의수가 줄어들
고있고 이같은 현상은 국
토

개발연과가 속속해오고있다
고 전망했다.
이 조사결과
로 유리와 이안섬의 전
진도, 독산도, 부산
간월도, 죽도, 청기화산도,
인천, 청라도등 10개나 된다.
또 유인도가 무인도로 변한
것은 14개, 무인도가 유인도
로 바뀐 것은 경기도 화천

들, 전라도의 소수우도등
이 고섬과섬의 이적정도
5개나 된다.

『경향신문』 1985. 09. 28. 11면

『매일경제』 1987. 02. 16. 10면

開發열기 가득찬 西海岸을 가다

수출품 生産地로도 最適의 여건갖춰

尖端기술업체 · 中企 공동연구소 설립

都心교통량 폭주로 외곽순환도로 서둘러 추진

인천의 공업화는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 남쪽에 수출산업 4공단이 착공
되면서 시작됐다. 그 후 70년 초반부터 도심지에 산재한 공장의 재배치를 위해 가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開發열기가 뜨겁다 西海岸을 가다

□10□

오래전, 1950년대 후반에 부산의 개발 열기가 뜨거웠던 것처럼, 1980년대 후반에 부산의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출품 生産地로도 最適의 여건 갖춰

都心교통량 卽주로 외곽순환도로 시설이 추진

尖端기술업체 中企 공동연구소 설립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개발 열기는 부산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부산'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仁川시정 주변인 九月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남아있는 仁川시정 주변의 九月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남아있는

仁川

仁川의 개발 열기는 仁川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仁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仁川의 개발 열기는 仁川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仁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仁川의 개발 열기는 仁川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仁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仁川의 개발 열기는 仁川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仁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仁川의 개발 열기는 仁川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仁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仁川의 개발 열기는 仁川의 개발 열기를 상징하는 '仁川'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좌인터체인지 주변에 조성된 인천지방공단, 인천기계공단, 인천목재공단, 수출 제 5·6공단 등이 연이어 준공돼 공업도시로 변모해가면서 「부두경기가 인천경기를 좌우한다.」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폐염전이나 간만의 차가 심한 개펄 등이 많은 인천 주변의 해안은 농경지의 침해 없이 값싸게 광활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간척사업의 적격지.

현재 울도지구에 원목야적장 및 저장시설로 1백60만평을 매립하고 있는 것을 비롯, 농경지로 조성되는 김포지구 6백35만평, 인천교부근 46만평, 유원지로 조성되는 송도지구 41만평, 고잔동 11만평 등 총 8백94만평에 대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오는 89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울도지구는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공장을 이전 배치하고 송도해양관광단지는 송도 앞 해변매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매립지가 내륙화될 경우 해양관광단지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므로 관광단지조성계획이 재검토된다.

이외에도 송도앞바다 1천4백68만평, 연안부두외곽 15만평, 소월미도안쪽 2만평, 청라도와 울도지구를 잇는 해면 58만평 등 총 1천7백28만평을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신규매립지는 항만시설개발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매일경제』 1988. 06. 20. 14면

仁川橋일대 · 울도지구 매립지 19만坪 準공업지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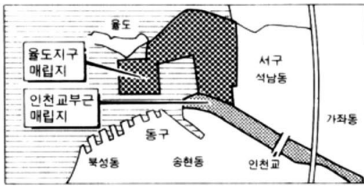
住居地공장 이전촉진

南洞공단 미입주업체 유치

인천시 건설부에 지정요청

【인천=김인완 기자】인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공업용지 확보와 주거 및 상업지역에 있는 용도지역위반공장의 이전 촉진을 위해 인천교부근매립부지 30만평과 울

仁川橋일대·율도지구 매립지 190만坪 準공업지구로



인천시 건설부에 지정요청

【仁川=韓기자】仁川市는 仁川港을 중심으로 하는 準공업지구를 확보와 주거및 산업지역에 의한 準공업지역을 190만坪(1천5백45km²)의 準공업지구를 매립지 30만坪과 準공업지구를 매립지 1백60만3천평(1천5백45km²)을 準공업지대로 지정할 것을 仁川市 市議會에 提議한 바 있다.

住居地공장 이전촉진 南洞공단 미입주업체 유치

수지를 제외한 30만평을 비롯 일부 매립이 완공된 율도지구 1백60만3천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20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仁川市는 準공업지구를 20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仁川市는 準공업지구를 20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仁川市는 準공업지구를 20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율도지구 매립지 1백60만3천평 등을 준공업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매립 중인 인천교매립지 46만7천평(1천5백45km²)중 녹지 유수지를 제외한 30만평을 비롯 일부 매립이 완공된 율도지구 1백60만3천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20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지난84년부터 인천제철을 비롯 덕수종합, 동국제강에서 매립공사를 시작한 인천교매립지는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채 현재 매립 중에 있는데 92년에 완공

『매일경제』 1988. 06. 20. 14면

도지구매립지 1백60만3천평 등을 준공업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매립 중인 인천교매립지 46만7천평(1천5백45km²)중 녹지 유수지를 제외한 30만평을 비롯 일부 매립이 완공된 율도지구 1백60만3천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20일 건설부에 승인 요청했다.

지난84년부터 인천제철을 비롯 덕수종합, 동국제강에서 매립공사를 시작한 인천교매립지는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채 현재 매립 중에 있는데 92년에 완공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될 예정이며 자연녹지로 지정되어있는 울도지구매립지는 1차지역의 매립이 이미 완공되어 내년에 모두 매립될 예정이다……

『한겨레』 1988. 08. 03. 6면

준설공사 사무실 물려가 어민, 생계대책 요구 농성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시 동구 화수, 만석동 일대 연안에서 어업을 해오던 3t미만 소형어선(70척) 어민 1백여 명은 2일 오전 11시께 서구 석남동에 있는 대한준설공사 현장사무실로 물려가 생계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서구 울도에서 만석동 연안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해온 이들은 “지난 85년 3월부터 대한준설공사가 이 일대 공유수면 93만9천평을 메우는 바람에 고기를 잡을 수 없어 생계가 막연해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준설공사 사무실 물려가 어민, 생계대책 요구 농성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시 동구 화수, 만석동 일대 연안에서 어업을 해오던 3t미만 소형어선(70척) 어민 1백여명은 2일 오전 11시께 서구 석남동에 있는 대한준설공사 현장사무실로 물려가 생계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서구 울도에서 만석동 연안에 이르는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해온 이들은 “지난 85년 3월부터 대한준설공사가 이 일대 공유수면 93만9천평을 메우는 바람에 고기를 잡을 수 없어 생계가 막연해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겨레』 1988. 08. 03. 6면

『한겨레』 1988. 11. 11. 9면

월미도등 군사구역 해제

【인천=김영환 기자】인천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1.3평방km 가운데 28.1평방km가 해제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월미도와 울도지구 22.3평방km를 비롯 남항 1.6평방km, 남동지역 0.7평방km 청라도 일부 3.5평방km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서곶지역 22.5평방km와 청라도 일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계속 묶여 건축행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월미도등 군사구역 해제

【인천=김영환 기자】인천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1.3평방km 가운데 28.1평방km가 해제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월미도와 울도지구 22.3평방km를 비롯 남항 1.6평방km, 남동지역 0.7평방km, 청라도 일부 3.5평방km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서곶지역 22.5평방km와 청라도 일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계속 묶여 건축행위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겨레』 1988. 11. 11. 9면

『한겨레』 1988. 11. 12. 11면

전두환씨 동서 홍순두씨 수사

매립지 소유권 강탈등 이권개입 혐의

항공화물회사 세금감면청탁 2억 사례비 챙겨

원전 9·10호기 건설 수주에도 압력행사

대검 중앙수사부 4과(이종찬 부장검사)는 11일 전두환씨의 손아래 동서인 홍순두(47·전 대한통운 국제운송 사장)씨가 매립지 소유권을 압력을 넣어 강제로 빼앗았다는 진정서를 접수, 조사한 결과 홍씨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본격적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전두환씨 동서 홍순두씨 수사

매립지 소유권 강탈등 이권개입 혐의 항공화물회사 세금감면청탁 2억 사례비 챙겨

원전 9·10호기 건설 수주에도 압력행사

대검 중앙수사부 4과(이종한 부장검사)는 11일 전두환씨의 손아래 동서인 홍순두(47·전 대한봉은 국제운송 사장)씨가 매립지 소유권을 압력을 넣어 강제로 빼앗았다는 진정서를 접수, 조사한 결과 홍씨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

다. 검찰은 또 홍씨가 항공화물회사들의 세금을 감면토록 해 준 뒤 2억원 정도의 사례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원전 9·10호기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어 동아건설에 수주토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여상 설립자인 이봉덕씨는 지난 64년부터 71년까지 해양수산대학 등을 세우기로 하고 인천 앞바다의 장도 등 크고 작은 5개 섬을 연결, 9.4km의 방조제를 쌓을 계획이었으나 자금 관계로 2.7km 만을 쌓은 뒤 중단했다는 것.

정부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자 71년 허가를 취소했다가 5·17 이후 이씨 쪽과 한마디 상의 없이 갑자기 홍씨가 영업이사로 일하기 시작한 동아그룹에 신규공사인 것처럼 매립을 허가했다

고 발표했으며 동아건설 쪽은 이씨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청라도까지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해 결국 이미 매립한 땅 2만평을 동아건설에 무상양도키로 각서를 교환, 타결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씨가 개입, 1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이 대규모 공사를 동아건설에 수주토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홍씨는 또 지난 84년 국제청이 국내 항공화물업계에 대한 일제세무조사에 나서 수입액원의 세금부과가 예상되자 당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화물협회 20여 개 회원사로부터 세금을 추정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2억원 원을 받아 생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또 현대건설과 한국중공업이 도맡아 오던 원전 건설사업 수주권을 동아건설이 따내도록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어 경복 육지에 설치된 원전 9·10호기 공사를 수주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이밖에 각종 이권에 개입, 댓가로 받은 10억여원의 돈을 신용금고에 분산 입금시켰다는 제보에 따라 홍씨의 개

인 통장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항공화물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금명간 홍씨를 소환, 변호사법 위반, 알선주재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항공화물업계의 '대부', 동아건설의 '해결사'로 알려진 홍씨는 '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10·26 사건' 직후인 79년 11월20일 동아그룹 부장으로 입사, 81년 2월말 동아그룹 계열회사인 (주)대한봉은 항공화물 부사장으로 올랐으며 2년 뒤인 83년 3월5일 이 회사 회장이 됐다.

『한겨레』 1988. 11. 12, 11면

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여상 설립자인 이봉덕씨는 지난 64년부터 71년까지 해양수산대학 등을 세우기로 하고 인천 앞바다의 장도 등 크고 작은 5개 섬을 연결, 9.4km의 방조제를 쌓을 계획이었으나 자금 관계로 2.7km 만을 쌓은 뒤 중단했다는 것.

정부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지되자 71년 허가를 취소했다가 5·17이후 이씨 쪽과 한마디 상의 없이 갑자기 홍씨가 영업이사로 일하기 시작한 동아그룹에 신규공사인 것처럼 매립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으며 동아건설 쪽은 이씨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청라도까지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해 결국 이미 매립한 땅 2만평을 동아건설에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200

무상 양도키로 각서를 교환, 타결 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씨가 개입, 1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이 대규모 공사를 동아건설에 수수
토록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항공화물업계의 ‘대부’. 동아건설의 ‘해결사’로 알려진 홍씨는 고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10·26사건’ 직후인 79년 11월20일 동아그룹 부장으로 입사, 81년 2월
말 동아그룹 계열회사인 (주)대한통운 항공화물 부사장으로 옮겼으며 2년 뒤인 83년
3월5일 이 회사 회장이 됐다.

『매일경제』 1988. 12. 01. 8면

埋立地 公團지정 건의

仁川中企 이전대상업체 敷地확보위해

栗島・仁川橋대상

【인천=김인완 기자】인천지역 중소기업
업체대표들은 이전대상업체의 부지확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栗島 및 인천교 공
유수면매립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인천시와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19명은
최근 인천시 한석룡 부시장 등 당국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栗島매립지(1백60만평)의 일부를 중소기업
업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인천교해
면수로매립지(30만3천평)를 인근 기계
공단 등 기존공단지구로 흡수시켜 줄 것
을 요청했다.

埋立地 公團지정 건의
仁川中企, 이전대상업체 敷地확보위해
栗島・仁川橋대상

【인천=김인완 기자】인천지역 중소기업대표들은 이전대상업체의 부지확보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栗島 및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인천시와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19명은 최근 인천시 한석룡 부시장 등 당국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栗島매립지(1백60만평)의 일부를 중소기업업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인천교해면수로매립지(30만3천평)를 인근 기계공단 등 기존공단지구로 흡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당회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栗島매립지(1백60만평)의 일부를 중소기업업공업지역으로 지정해줄 것과 인천교해면수로매립지(30만3천평)를 인근 기계공단 등 기존공단지구로 흡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대표들은 이전에서 현재 인천 시내 2천5백45개업체 중 6백여업체가 비공업지역에 위치 공업지구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의 원도정비사업으로 지정해 납품업체를 입주토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仁川橋매립지는 仁川기계공단 한구수출입, 6공단 仁川지반을 남쪽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매립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개공단의 연계성유지와 관리구역의 불협화음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1988. 12. 01. 8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중소기업대표들은 이 건의에서 현재 인천관내 2천5백45개업체중 6백여 업체가 비공업지역에 위치, 공업지구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완공될 울도매립지 일부를 중소기업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남동 공단에 수용치 못한 이전대상업체를 입주토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매일경제』 1990. 05. 20. 11면

仁川앞바다 땅만들기 大役事

여의도 30배규모 생긴다

公有水面 22곳매립 2천460만坪 조성

성

仁川제철·東岬건설등 추진

【仁川=김인완 기자】인천앞바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80년대 후반 들어 지난해까지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땅은 김포지구 등 14개 지구에 걸쳐 모두 7백53만3천평에 이르고 있다. 이를 사용목적별로 보면 (주)韓獨이 동춘동일원 송도매립지 1백34만6천㎡를 관광위락지로, 한국화약(주)이 남동구 고잔동 36만7천㎡를 시험장 및 야적장으로, 東亞建設이 서구 연희동일원

仁川앞바다 땅만들기 大役事

여의도 30배규모 생긴다

公有水面 22곳매립 2천460만坪 조성

仁川제철·東岬건설등 추진

仁川 앞바다 땅만들기 大役事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80년대 후반 들어 지난해까지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땅은 김포지구 등 14개 지구에 걸쳐 모두 7백53만3천평에 이르고 있다. 이를 사용목적별로 보면 (주)韓獨이 동춘동일원 송도매립지 1백34만6천㎡를 관광위락지로, 한국화약(주)이 남동구 고잔동 36만7천㎡를 시험장 및 야적장으로, 東亞建設이 서구 연희동일원

◆ 해상도시 매립예정지

『매일경제』 1990. 05. 20. 11면

1천7백18㎡를 농경지로, 前 대한준설공사(현 韓逸開發)가 栗島지역 5백30만㎡를 원목야적장 및 공장부지등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천시와 土開公이 자동차면허시험장 및 남동공단연결도로와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확보키 위해 남동구 고잔동 일원 6만㎡와 경서동 일원 靑羅島지역 47만4천㎡를 매립하고 있다……

『한겨레』 1990. 07. 03. 13면

간척지 쓰레기 무허매립

인천시 오염대책 없이 5백만t 버려

원창동·청라도등 9곳

【인천=김영환 기자】인천시가 서구 원창동·경서동·청라도 등 해안 간척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쓰레기 5백여만t을 매립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5년 4월

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동안 간척지인 원창동·경서동·청라도 등 9개 지역 1백10만4천오백43㎡를 쓰레기매립지로 선정, 각종 쓰레기 5백11만t을 매립했다.

그러나 시는 9개 지역 중 원창동 1지구 46만2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88년

간척지 쓰레기 무허매립

인천시 오염대책 없이 5백만t 버려

원창동·청라도등 9곳

【인천=김영환 기자】인천시가 서구 원창동·경서동·청라도 등 해안간척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쓰레기 5백여만t을 매립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동안 간척지인 원창동·경서동·청라도 등 9개 지역 1백10만4천5백43㎡를 쓰레기매립지로 선정, 각종 쓰레기 5백11만t을 매립했다.

그러나 시는 9개 지역 중 원창동 1지구 46만2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88년 2월 환경처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8개 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한 허가없이 침출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원창동 1지구도 86년 11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 매립이 끝날 무렵 뒤늦게 환경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환

경처 승인 조건 중 △침출수처리장 설치 △매립장 주변 수질대 조성 △사후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환경피해 절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토록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1990. 07. 03. 13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더구나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원창동 1지구도 86년 11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 매립이 끝날 무렵 뒤늦게 환경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환경처 승인 조건 중 △침출수처리장 설치 △매립장주변 수림대 조성 △사후 환경관리 계획 수립 등 환경피해 절감방안을 반드시 이행토록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仁川 北港 본격개발

【仁川=김인완 기자】올해부터 5만톤급 선박26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는 북항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仁川 北港 本적개발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

〔仁川=韓通社仁川支社電〕 北港 本적개발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仁川=韓通社仁川支社電〕 北港 本적개발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仁川=韓通社仁川支社電〕 北港 本적개발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仁川=韓通社仁川支社電〕 北港 本적개발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仁川 北港 本적개발 사업에 5천500여투인 원복·古鐵·양곡荷役 전담을 위한 사업이다.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서 전담하역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북항 개발은 서구 가좌동과 栗島남쪽 해면에 위치한 북항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민자 3천4백30억원 등 총사업비 5천5백5억원을 투입, 5만톤급 선박 26척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 5천4백10m를 건설키로 되어 있다.

인천해항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북항개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에 6억5천만원을 확보, 3월부터 연말까지 공공시설부문에 대한 설계를 실시하고 민간 참여업체선정등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로, 선회장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은 정부가 투자하고 부두시설 및 하역기계 등은 민자를 유치하게 됐는데 민자 유치는 하역업체등 실수요자 우선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항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의 인천항 하역능력규모와 같은 연간 2천5백만톤의 하역능력을 갖게 된다.

한편 북항에서 취급할 주종화물인 원목 고철 양곡 등 원목의 87%, 고철의 1백%는 북항 지역 배후공장의 수요원자재로 곧바로 수송이 가능해 북항이 개발되면 지금까지 선거내항을 이용해 하역 수송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돼 결국 공단로, 경인고속도로(인천항~서인천IC) 등 시내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수송차량가운데 하루 2만3천대의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매일경제』 1991. 05. 17. 18면

인천 蓍羅島 매립지 도시용지 용도 전환

【인천=김인완 기자】인천시는 연탄재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키로 했던 서구 경서동 산251의1 청라도 주변의 청라1지구 공유수면 14만평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매일경제』 1991. 05. 17. 18면

인천시는 당초 청라1지구를 연탄재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키로 하고 매립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김포대단위쓰레기매립장이 건설돼 내년부터 이곳에서 연탄재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 도시용지로 이용키로 하고 오는 7월 토사매립변경신청을 건설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52억원을 들여 청라1지구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공영 개발단은 지난해 말 호안축조를 완료한 상태인데 매립목적의 변경에 따라 일반토사로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 1991. 12. 03. 13면

섬지역 LP가스값 폭리

백령도 등 화물선 운반비 밀미 육지보다 갑절넘어

【인천=김영환 기자】인천·경기인근 도시지역 액화석유가스(LPG) 값이 육지에 비해 최고 배 이상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백령도 등 웅진군 내 섬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육지에서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1통(20kg 기준)이 8천7백60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백령도와 연평도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비싼 1만7천원에, 대청도와 북도는 82.6% 비싼 1만6천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과 육로를 연결된 웅진군 대부도가 2.7% 비싼 9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섬지역 LPG가스값 폭리

백령도 등 화물선 운반비 벌미 육지보다 갑절넘어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경기 인근 도시지역 액화석유가스(LPG) 값이 육지에 비해 최고 배 이상 비싼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백령도 등 웅진군내 섬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육지에서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1통(20kg 기준)이 8천7백60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백령도와 연평도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비싼 1만7천원에, 대청도와 북도는 82.6% 비싼 1만6천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과 육로를 연결된 웅진군 대부도가 27% 비싼 9천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인천시 서구 경서동이면서 육로로 연결된 청라도는 25.6% 비싼 1만1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웅진군내 자월도가 1만3천원(48.4%), 덕적도 1만3천5백

50원(57.4%), 영흥도 1만2천원(40.0%)에 거래되는 등 대부도를 제외한 웅진군 관내 10개 섬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거래 가격이 육지에 비해 40~94%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영종도 주민들은 “가스통 1개당 화물선 운반비용이 1천2백50원이므로 1만원선에 불과하나 업자들이 운반비용을 이유로

1만2천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1991. 12. 03. 13면

행정구역상 인천시 서구 경서동이면서 육로로 연결된 청라도는 25.6% 비싼 1만1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1993. 07. 11. 21면

仁川 고철전용부두 울도지역 이전개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10일 고철전용부두인 인천항 8부두를 서구 울도지역 주변 북항을 개발, 이전키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8부두는 현재 연간 2백여

仁川 고철전용부두 울도지역 이전개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10일 고철전용부두인 인천항 8부두를 서구 울도지역 주변 북항을 개발, 이전키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8부두는 현재 연간 2백여만의 수입고철이 하역되고 인천제철을 철강업체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부두운영을 방해하는 커널 부더운 여를 철에도 차운을 열지 못하는 등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당해 수년전부터 부두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향신문』 1993. 07. 11. 21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만의 수입고철이 하역되고 인천제철 등 철강업체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소음과 쇳가루 등이 날려 빨래는커녕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당해 수년전부터 부두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동아일보』 1993. 08. 04. 21면

울도 위생처리장 시설놔아 인천 연안 수질오염도 악화

【인천】인천시
울도 위생처리장
의 분뇨처리시설
이 노후 돼 생물
학적 산소요구량
(BOD)과 부유물
질(SS) 등 방류수

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 인천연안 해역의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하루 배출량 1천50kl중 3백kl처리능력의 울도위생처리장이 방류하고 있는 수질은 BOD가 l 당 40~42ppm으로 법정기준치 30ppm이하를 초과하고 SS는 l 당 70~80mg으로 기준치인 30mg의 2.5배나 초과된 상태다.

울도 위생처리장 시설놔아
인천 연안 수질오염도 악화

【인천】인천시
울도 위생처리장
의 분뇨처리시설
이 노후 돼 생물
학적 산소요구량
(BOD)과 부유물
질(SS) 등 방류수
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 인천연안
해역의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하루
배출량 1천50kl중
3백kl처리능력의
울도위생처리장
이 방류하고 있는
수질은 BOD가 l 당
40~42ppm으로
법정기준치 30ppm
이하를 초과하고
SS는 l 당 70~80mg
으로 기준치인 30mg
의 2.5배나 초과된
상태다.

『동아일보』 1993. 08. 04. 21면

『매일경제』 1994. 12. 28. 11면

仁川3부두 준공 한화에너지

한화에너지(대표 박원배)는 27일 정유공장이 있는 인천 울도에 7만5천톤급(DWT)의 제3부두를 준공했다.

총 3백12억원을 투자, 22개월 만에 완공된 이 부두는 3천톤급 소형 2선좌가 포함된 7만5천톤급의 계류시설과 8백10m의 도교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화에너지는 이날 제3부두의 완공으로 총 2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돼 수도권지역에 대한 원역에 대한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에 따른 물류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열 기자>

한화에너지(대표 박원배)는 27일 정유공장이 있는 인천 울도에 7만5천톤급(DWT)의 제3부두를 준공했다. 총 3백12억원을 투자, 22개월 만에 완공된 이 부두는 3천톤급 소형 2선좌가 포함된 7만5천톤급의 계류시설과 8백10m의 도교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화에너지는 이날 제3부두의 완공으로 총 2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돼 수도권지역에 대한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에 따른 물류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李彩烈기자>

『매일경제』 1994. 12. 28. 11면

『동아일보』 1994. 03. 12. 27면

청라島 30萬坪 내년매립

인천시 2千年까지 영종空港연계 선착장설치

【인천=김진경】인천시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청라도 앞 29만8천평의 공유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청라島 30萬坪 동아매립

인천시 2千年까지 영종空港연계 신차장설치

【인천=金廣敬】인천시가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청라2지구 29만8천평의 동아매립사업이 내년 초 착공된다.	허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지를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영종도 신공항개항과 연계한 선착장 및 유원시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5백50여만평 규모의 동아매립지 및 인접해 있어 앞으로 동아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청라2지구는 89년 3월 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았으나 91년과 92년 매립면허 승인신청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돼 사업추진이 중단됐었다.	한 선착장 및 유원시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5백50여만평 규모의 동아매립지 및 인접해 있어 앞으로 동아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 지역을 도로굴착 등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처리하는 사토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매립면허는 무난히 받아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조성될 공공용지를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영종도 신공항개항과 연계한 선착장 및 유원시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5백50여만평 규모의 동아매립지 및 인접해 있어 앞으로 동아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동아일보』 1994. 03. 12. 27면

수면매립사업이 내년 초 착공된다.

인천시는 건설부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돼 온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공에 대한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초 착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서구 경서동 산251의1 29만8천평을 2000년까지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사업.

시는 이 지역을 공공사업장의 사토장(흙을

버리는 곳)으로 상반기 중 매립허가를 받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라2지구는 89년 3월 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았으나 91년과 92년 매립면허 승인신청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돼 사업추진이 중단됐었다.

시는 우선 이 지역을 도로굴착 등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을 처리하는 사토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매립면허는 무난히 받아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조성될 공공용지를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영종도 신공항개항과 연계한 선착장 및 유원시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5백50여만평 규모의 동아매립지와 인접해 있어 앞으로 동아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향신문』 1995. 02. 08. 8면

한화 仁川공장內건립 복합화력발전소 승인

통산부

한화에너지가 인천공장 내 栗島에 세울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통상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화에너지는 7일 이같이 밝히고 95년 상반기(1~6월)까지 울도화력발전소(시설용량 32만3천kW) 옆 부지에 시설용량 30만kW규모 1기, 96년 상반기까지 같은 규모 1기 등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3천억원을 들여세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응근 기자>

한화 仁川공장內건립
복합화력발전소 승인
통산부
한화에너지가 인천공장
내 栗島에 세울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통상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화에너지는 7
일 이같이 밝히고 95년 상
반기(1~6월)까지 울도
화력발전소(시설용량 32만
3천kW) 옆 부지에 시설용
량 30만kW규모 1기, 96년
상반기까지 같은 규모 1
기 등 복합화력발전소 2
기를 3천억원을 들여 세
울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盧應根기자△

『경향신문』 1995. 02. 08. 8면

『경향신문』 1995. 06. 09. 21면

仁川 7개노선 도로 신설

2008년까지 검단지역 중심으로

인천시는 8일 김포·강화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서구 검단동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의 2개 노선, 남북축 5개 노선 등 모두 7개 노선의 도로를 2008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시는 지난 3월 검단 지역을 흡수한 인천시가 광역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족한 도로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광역도로망을 확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경기도와 협의, 98년부터 8천여억원을 들여 착공해 2008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예정인 광역도로망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중구 항동 개항1백주년기념탑~서구 경서동~검단~김포(35km, 6~10차선) ▲울도~북인천~강화2대교~강화읍(27,5km, 6차선)……

仁川 7개노선 도로 신설

2008년까지 검단지역 중심으로

인천시는 8일 김포·강화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서구 검단동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의 2개 노선, 남북축 5개노선 등 모두 7개 노선의 도로를 2008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검단지역을 흡수한 인천시가 광역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족한 도로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광역도로망을 확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경기도와 협의, 98년부터 8천여억원을 들여 착공해 2008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예정인 광역도로망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중구 항동 개항1백주년기념탑~서구 경서동~검단~김포(35km, 6~10차선) ▲울도~북인천~강화2대교~강화읍(27.5km, 6차선) ▲부평구 계산동~김포군 고촌면

~자유로구간(19.3km, 4~6차선) ▲검단~마전리~대곡리(2.81km, 6~10차선) ▲김포군 불로동~당갈간(4.8km, 6차선) ▲김포군 대곡리~검단~김포읍~자유로구간(16.4km, 6차선) ▲오유리~검단입구~원당리간(13km, 6차선)

<柳成輔기자>



『경향신문』 1995. 06. 09. 21면

『매일경제』 1996. 05. 05. 1면

대한항공, 울도에 「헬기단지」

2010년완공 85만평규모 1조2천억 투입

大韓航空이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을 투입해 인천 울도에 헬리콥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大韓航空은 2000년대 세계 상용 헬기시장 진출을 목표로 1만2천파운드급 상용 헬리콥터를 미국과 유럽 헬기업체와 공동개발, 세계 민간 헬기시장에 판매키로 하

고 이를 위해 인천 울도에 85만평 규모의 헬기 산업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大韓航空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헬기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인천 울도 헬기 산업단지는 울도 매립지에 31만평 규모의 협력업체 부품생산단지와 23만평의 복지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울도 헬기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완전독립적 기능을 보유한 헬기전문 생산 공장을 갖추는 한편 부품제작 수송 보관조직이 체계화된 물류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大韓航空은 헬기산업단지 조성을 바탕으로 수송, 의료 및 업무용 헬기 등 세계 민수용 헬기에 대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大韓航空은 이에 따라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 헬리콥터와 MD 900 헬기의 군용화 개발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윤덕로 기자>

대한항공, 울도에 「헬기단지」

2010년 완공 85만평규모 1조2천억 투입

大韓航空이 오는 2001
0년까지 총 1조2천억원
을 투입해 인천 울도에 헬
기산업단지를 조성한다.
大韓航空은 2000년
대 세계 항공사 시장 진
출을 도모하고, 1조2천
억원 규모의 헬기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울도 헬기 산업단
지 조성은 인천 울도 매
립지에 31만평 규모의
협력업체 부품생산단
지와 23만평의 복지
시설 및 부대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大韓航空은 헬기사업
개발을 바탕으로 수
송, 의료 및 업무용
헬기 등 세계 민수
용 헬기에 대한 국
제 공동개발을 추
진할 계획이다.
大韓航空은 이에
따라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 헬리콥
터와 MD 900 헬
기의 군용화 개발
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윤덕로 기
자>

인천 울도 매립지에 31만
평 규모의 헬기 산업단
지를 조성한다. 대
한항공은 2000년
대 세계 항공사
시장 진출을 도
모하고, 1조2천
억원 규모의 헬
기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울도 헬기
산업단지 조성
은 인천 울도
매립지에 31만
평 규모의 헬기
산업단지와 23
만평의 복지
시설 및 부대
시설을 구축
할 방침이다.
大韓航空은
헬기사업 개발
을 바탕으로
수송, 의료 및
업무용 헬기
등 세계 민수
용 헬기에
대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大韓航空은
이에 따라
미국 맥도넬
더글러스
헬리콥터와
MD 900 헬
기의 군용화
개발에
공동 참여
키로 했다. <윤
덕로 기자>

『매일경제』 1996. 05. 05. 1면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지멘스합작 저공해하이테크 부품공장 인천 청라도에 건립 대우自

【仁川=김인완 기자】大宇 자동차가 독일 자동차제조 업체인 지멘스와 합작으로 인천시 서구 菁蘿도 제 1공유수면 매립 지구에 5만평 규모의 자동차제어 및 저공해하이테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7일 대우자동차가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청라1지구 10만5천평 중 5만평에 자동차부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4월 청라1지구 토지매입 및 매립변경을 인천시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업종

이 첨단 무공해사업인데다 서북부일원의 공장유치방침에 적합하다고 판단, 공공용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청라1지구의 용도를 현재의 자연녹지에서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우와 지멘스가 60대40 비율로 설립하는 이 공장은 내년 1월 착공, 98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멘스합작 저공해하이테크 부품공장

인천 청라도에 건립

대우自

【仁川=金仁琬기자】大宇 자동차가 독일 자동차제조 업체인 지멘스와 합작으로 인천시 서구 菁蘿도 제 1공유수면 매립 지구에 5만 평 규모의 자동차제어 및 저공해하이테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7일 대우자동차가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청라1지구 10만5천평 중 5만평에 자동차부품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4월 청라1지구 토지매입 및 매립변경을 인천시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업종이 첨단 무공해사업인데다 서북부일원의 공장유치방침에 적합하다고 판단, 공공용지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청라1지구의 용도를 현재의 자연녹지에서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우와 지멘스가 60대40 비율로 설립하는 이 공장은 내년 1월 착공, 98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1996. 05. 08. 37면

동아건설 매립지 타당성 검토

인천시 추진案 구성후 개발여건·시기 논의

【仁川=김인완 기자】인천시는 14일 개발논쟁이 일고 있는 4백99만평 규모의 동아건설 매립지에 대해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동아매립지에 대한 개발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그러나 개발 논의에 앞서 청라도 경서동주민에 대한 보상과 개발이익산정 및 배분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곧 구성될 인천발전추진위원회에서 △개발여건 △개발시기 △개발이익 발생규모 △토지이용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 경서동 동아매립지는 총 4백99만평으로 동아건설이 농경지조성목적으로 91년 준공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아건설이 공공용지를 제외한 3백74만평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건설측은 지난 94년 7월 개발이익금을 인천시에 환원한다는 전제로 동아매립지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仁川=金仁完기자】仁川시는 14일 개발논쟁이 일고 있는 4백99만평 규모의 동아건설 매립지에 대해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동아매립지에 대한 개발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그러나 개발 논의에 앞서 청라도 경서동주민에 대한 보상과 개발이익산정 및 배분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곧 구성될 인천발전추진위원회에서 △개발여건 △개발시기 △개발이익 발생규모 △토지이용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仁川 西구 景西동 동아매립지는 총 4백99만평으로 동아건설이 농경지조성목적으로 91년 준공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아건설이 공공용지를 제외한 3백74만평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건설측은 지난 94년 7월 개발이익금을 인천시에 환원한다는 전제로 동아매립지에 대한 관광개발

인천시 추진案 구성후 개발여건·시기 논의

동아건설 매립지 타당성 검토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쓰레기장 가축 기형출산 잇따라

수도권매립장 주변 젖소 사산·불임등 부쩍 늘어
“살충농약·침출수 영향”...주민들 피해보상 요구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주변 마을에서 잇따라 기형 가축들이 태어나거나 사산하고, 청라도 매립지 앞 갯벌에선 조개류가 떼죽음하자 주민들이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이주단지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경인낙우회(회장 이민훈) 등 수도권 매립지 인근 목장주들에 따르면, 매립지 주변 목장 20곳에서 젖소 6백~7백마리를 키우고 있으나, 쓰레기 매립이 본격

쓰레기장 가축 기형출산 잇따라

수도권매립장 주변 젖소 사산·불임등 부쩍 늘어
“살충농약·침출수 영향”...주민들 피해보상 요구

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주변 마을에서 잇따라 기형 가축들이 태어나거나 사산하고, 청라도 매립지 앞 갯벌에선 조개류가 떼죽음하자 주민들이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이주단지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경인낙우회(회장 이민훈) 등 수도권 매립지 인근 목장주들에 따르면, 매립지 주변 목장 20곳에서 젖소 6백~7백마리를 키우고 있으나, 쓰레기 매립이 본격화한 94년 이후부터 어미소가 새끼를 사산하거나 유량이 적어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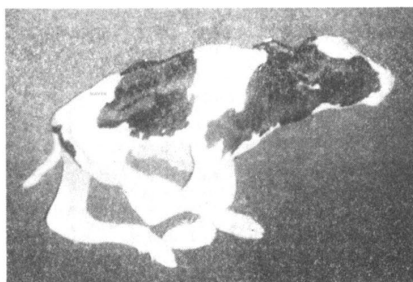
매립지에서 5백m 정도 떨어진 서구 왕길동에서 젖소 1백30마리를 키우는 동원목장(주인 김동현)은 한해에 1~2마리에 불과하던 사산·유산이 94년 8마리, 95년 15마리였으며, 올 들어 벌써 20마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

난 2월엔 애꾸눈에다 다리가 흰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기도 했다.

서구 백석동 천수목장(주인 김천수)은 쓰레기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어미소가 한번에 수정했으나 94년 이후 4~5회 수정해도 임신이 안돼, 현재 어미소 18마리 중 6마리가 불임으로 폐사해야 할 실정이다.

목장주들은 매년 6~8월 주 2~5차례 하는 항공 방역과 매일 하는 살충 소독 때 목초지로 날아오는 농약과, 하루 1천2백대의 쓰레기 수송차가 내는 소음과 먼지가 기형 가축 출산과 유량 감소 같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주단지 조성 △피해 보상과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라도 매립지 앞 갯벌에서 조개 등을 캐는 어민들도 94년부터 조개의 수가 크게 줄고 떼죽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다리 흰 송아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마을에서 기형 가축이 태어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이 마을에서 태어난 다리가 흰 기형 송아지의 모습.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욱 서울대 교수(환경공학과)는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바다쪽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형 가축 출산 등은 역학조사를 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하종식 기자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화한 94년 이후부터 어미 소가 새끼를 사산하거나 유량이 적어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목장주들은 매년 6~8월 주 2~5차례 하는 항공 방역과 매일 하는 살충 소독 때 목초지로 날아오는 농약과, 하루 1천2백대의 쓰레기 수송차가 내는 소음과 먼지가 기형 가축 출산과 유량 감소 같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주단지 조성 △피해 보상과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라도 매립지 앞 갯벌에서 조개 등을 캐는 어민들도 94년부터 조개의 수가 크게 줄고 폐죽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1996. 09. 01. 21면

인천 경서동매립지 개발 확정

최시장 “관광단지·상업지 등 조성”발표…특혜시비 우려

인천시는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매립 완공한 뒤 나대지로 방치해 특혜시비가 일었던 경서동 동아매립지 5백만평을 관광단지 및 농업타운,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최기선 시장은 31일 “농업용수 문제 등으로 농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동아매립지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매립목적 변경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림 참조>

최 시장은 이어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땅 소유주인 동아개발 등과 협의해 개발 이익 환수 등의 방법으로 특혜시비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동아매립지 개발계획 발표는 송도새도시개발을 위해 동아매립지는 개발을 유보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자세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식량 자급자족 등을 내세워 매립 목적대로 농경지를 조성할 것을 고집해온 농림부 등 중앙부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인천 경서동매립지 개발 확정

최시장 “관광단지·상업지 등 조성”발표...특혜시비 우려

인천시는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매립 완공한 뒤 내대로 방치해 특혜시비가 일었던 경서동 동아매립지 5백만평을 관광단지 및 농업타운,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최기선 시장은 31일 “농업용수 문제 등으로 농경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내대로 방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동아매립지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매립목적 변경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그림 참조〉

최 시장은 이어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땅 소유자인 동아개발 등과 협의해 개발이익 환수 등의 방법으로 특혜시비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의 이날 동아매립지 개발계획 발표는 송도새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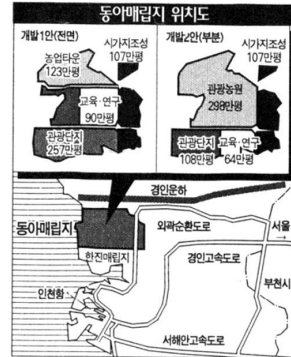
개발을 위해 동아매립지는 개발을 유보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자세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식량 자급자족 등을 내세워 매립 목적대로 농경지를 조성할 것을 고집해온 농업부 등 중앙부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동아매립지 5백만평에 대해 모두 개발하는 방안과 40%만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된 서북부 매립지 9백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동아매립지 전지역을 개발하는 제1안은 △관광단지 2백57만평(동아매립지 2백14만평, 청라지구 34만평, 울도매립지 9만평) △시가가지 조성 1백97만평(교육·연구단지 90만평, 주거·상업·업무지역 1백7만평) △농업타운 1백23만평 △항만 및 물류단지(북항 및 경인운하) 1

백79만평 △기타 1백44만평이다.

동아매립지 40%만을 개발하는 제2안은 관광 및 교육연구단지를 축소된 것으로 △관광단지 1백8만평(동아매립지 74만평, 청라지구 34만평) △시가가지 조성 1백71만평(교육·연구단지 64만평, 주거·상업·업무지역 1백7만평) △도시형 관광농업 2백98만평 △항만 및 물류·기타(제1안과 동일) 3백23만평 등이다. 동아매립지 5백만평은 동아건설이 지난 80년 농



영용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에 들어가 91년 1월 준공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한겨레』 1996. 09. 01. 21면

인천시는 동아매립지 5백만평에 대해 모두 개발하는 방안과 40%만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된 서북부 매립지 9백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안을 발표했다.

동아매립지 전 지역을 개발하는 제 1안은 △관광단지 2백57만평(동아매립지 2백14만평, 청라지구 34만평, 울도매립지 9만평) △시가가지조성 1백97만평(교육·연구단지 90만평, 주거·상업·업무지역 1백7만평) △농업타운 1백23만평 △항만 및 물류단지(북항 및 경인운하) 1백79만평 △기타 1백40만평이다.

동아매립지 40%만을 개발하는 제 2안은 관광 및 교육연구단지를 축소한 것으로 △관광단지 1백8만평(동아매립지 74만평, 청라지구 34만평) △시가가지조성 1백71만평(교육·연구단지 64만평, 주거·상업·업무지역 1백7만평) △도시형 관광농업 2백98만평 △항만 및 물류·기타(제1안과 동일) 3백23만평 등이다. 동아매립지 5백만평은 동아건설이 지난 80년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에 들어가 91년 1월 준공됐다. 인천/김영환 기자

마이클 잭슨-동아건설 인천매립지에 위락단지 추진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과 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인천 경서동 동아매립지에 1백50만평 규모의 대단위 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25일 동아건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클 잭슨과 최원석(崔元碩) 동아건설 회장은 24일 서울 장충동 최회장 자택에서 만나 인천 동아매립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투자 규모와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동아그룹 관계자는 “마이클 잭슨이 이미 이달 초 참모들을 인천 동아매립지에 파견해 현지 조사를 끝낸 상태였다.”며 “매립지가 인천 국제공항과 서울에서 가까워 입지 여건이 좋으며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마이클 잭슨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는 “마이클 잭슨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직접 매립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은 조만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작년 말 대통령선거 때 인천 동아매립지를 관광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마이클 잭슨이 사업 추진 의사를 굳힐 경우 사업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으며 국가의 정책적인 방침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밝히고 “현재로선 동아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키로 한 기존 방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매립지는 동아건설이 91년 인천 원창동 울도에서 김포군 양촌면 오류리 가서도까지 9천3백여m의 방조제를 쌓아 조성한 총면적 1천1백40만평의 대규모 토지. <황재성 기자>

마이클 잭슨-동아건설 인천매립지에 위락단지 추진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과 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인천 경서동 동아매립지에 1백50만평 규모의 대단위 위락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25일 동아건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클 잭슨과 최원석(崔元碩)동아건설 회장은 24일 서울 장충동 최회장 자택에서 만나 인천 동아매립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투자 규모와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동아그룹 관계자는 “마이클 잭슨이 이미 이달초 참모들을 인천 동아매립지에 파견해 현지 조사를 끝낸 상태였다”며 “매립지가 인천 국제공항과 서울에서 가까워 입지 여건이 좋다며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마이클 잭슨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관계자는 “마이클 잭슨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후 직접 매립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은 조만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작년말 대통령선거때 인천 동아매립지를 관광 물류단지



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마이클 잭슨이 사업 추진 의사를 굳힐 경우 사업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으며 국가의 정책적인 방침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동아매립지를 농지로 사용키로 한 기존 방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잭슨은 이와 별도로 쌍방울그룹이 조성중인 전북 무주리조트에도 대규모 위락시설과 영화제작스튜디오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매립지는 동아건설이 91년 인천 원창동 울도에서 김포군 양촌면 오류리 가서도까지 9천3백여m의 방조제를 쌓아 조성한 총면적 1천1백40만평의 대규모 토지.

〈황재성기자〉

“김포매립지 매입은 이중특혜”

주민대책위 “매립때 정부서 강제수용 동아넘겨”

동아 “평가액 정부에 지급”

“김포매립지 매입은 이중특혜”

주민대책위 “매립때 정부서 강제수용 동아넘겨”

동아 “평가액 정부에 지급”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따낼 당시부터 정부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1조원에 매입하는 것은 특혜를 두번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경서동 청라도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창)는 동아매립지 500만평 가운데 382만평은 청라도 주민들이 매립면허를 받아 제방공사의 90% 이상을 완성했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 수용해 동아건설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4년 9월 제방식 양식어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382만평의 매립면허를 받아 당시 부평에 주둔해 있던 미8군의 중장비와 병사들의 도움으로 제방공사에 들어가 90% 이상인 6930m의 제방을 쌓았다. 그러나 정부는 71년 4월 대한준설공사에 매립면허권을 넘기게 한 뒤, 1년6개월 뒤인 72년 10월 대한준설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고 제방



시설을 국유화했다. 주민들은 대한준설공사와 맺은 보상계약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동아건설에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강요에 의해 매립사업에 참여했으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정부에 냈으므로 특혜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신문기사로
보는
서구의 섬

동아건설이 김포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따낼 당시부터 정부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1조원에 매입하는 것은 특혜를 두 번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경서동 청라도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창)는 동아매립지 500만평 가운데 382만평은 청라도 주민들이 매립면허를 받아 제방공사의 90% 이상을 완성했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 수용해 동아건설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4년 9월 제방식 양식어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382만평의 매립면허를 받아 당시 부평에 주둔해 있던 미 8군의 중장비와 병사들의 도움으로 제방공사에 들어가 90% 이상인 6930m의 제방을 쌓았다. 그러나 정부는 71년 4월 대한준설공사에 매립면허권을 넘기게 한 뒤, 1년 6개월 뒤인 72년 10월 대한준설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고 제방시설을 국유화했다. 주민들은 대한준설공사와 맺은 보상계약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동아건설에 특혜가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강요에 의해 매립사업에 참여했으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정부에 냈으므로 특혜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집필

오정윤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위원

손민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최병훈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감수

강덕우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강옥엽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5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서문**, 남은 **서문**

발행일 | 2016년 12월

발행인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기획 | 서덕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편집 | 임혜선, 박현아, 조다혜

사진제공 | 홍석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정회원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SBN 979-11-952675-3-8 : 비매품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